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7월 19일(음력 6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587 호

인재 키워 밝은 미래 연다

13일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이 기폭제
교계 곳곳 인재육성 움직임… 전망 밝아
체계적 지속 관리로 발굴·양성해야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16명 광역단체장 중 불자 단체장은 강원, 전남, 대전, 제주 등 4명(25%).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불자는 22명(9%)이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17대 국회의원 299명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개신교 103명(34.5%) 가톨릭 70명(23.5%) 불교 34명(11.4%)로, 불자 국회의원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계뿐 아니라 여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종교인구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할까? 여기에는 종단의 종책 부재, 종단 및 사찰에서의 활동 영역 전문화 및 세분화 미흡, 관련 분야 교육 및 연수기관 부재, 스님 및 신도들의 무관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은 최근에서야 승가 인력 양성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다수의 종단은 승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사찰 운영 또한 신행, 교육, 포교, 조직, 복지 등의 활동으로 분화되지 못해 전문 인력이 활동할 장이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불교인재개발을 위한 움직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前 전남도지사)은 7월 13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 박윤흔 前 환경처 장관,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사회 각종 여론을 주도할 오피니언리더 그룹 3000명을 육성하고,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불자 조직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도 불교환경운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환경·생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6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들의 현장 인턴활동과 해외 NGO현장 연수, 비상근 실무팀 참여 등의 방법으로 불교환경운동에 결합시킬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은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꼽힌다. 한마음선원은 산하에 한마음과학원과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설치해 전문지식인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교육 및 연구기관인 한마음과학원의 경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적용한 뒤 그 경험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지역의 주천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법흥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지역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교인재화'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들 단체 및 사찰과 같은 노력이 불교계 곳곳에 퍼져나가야 불교인재발굴과 양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불교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활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한층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집시켜 '지역 인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불교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에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맑고 향기롭게' 등 사회운동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슬로건과 실천 덕목도 필요하다. 불교인재개발원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교 발전은 인적 자원의 육성과 직결돼 있다"며 "얼마나 유능하고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종교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이제 본집으로 왔습니다"
7월 13일 동국대박물관에서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는 성보문화재들. 사진=박재완 기자

성보문화재 635점 불교중앙박물관으로

12월 개관… 동국대 등이 위탁관리해온 것

빠르면 올 12월 중 개관할 것으로 보이는 불교중앙박물관에 성보 문화재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조계종은 7월 11~13일 동국대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해 오던 불교문화재 67건 635점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에 동국대 박물관에서 옮겨진 불교문화재중에는 <석시원류> 212점을 비롯해 불암사 경판 379점, 봉은사 청동 향로(국보 321호), 광덕사 고려사경(보물390호), 마곡사에서 소장했던 불화 17점 등 국·보물급 문화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관된 유물은 수종사 부도·5층석탑 출토유물인 불감, 삼존불상, 금동불 등 유물 24점과 은제도금육각감, 금동 9층탑, 수정제사유리병, 수정제사리탑파편, 청자유개호, 사리등 19점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회의실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감정절차가 끝나면 8월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가 통과되면 7월 중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공개 입찰공사에 박차를 가해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교방송 사장 공채
진흥원, 25일 서류 마감

불교방송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사장후보를 공채한다.

사장후보 자격은 △독실한 불자로서 수계를 득했거나, 10년 이상 불교 신행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1943년 7월 5일 이후 출생자이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교구본사급 사찰 주지 또는 전국 규모의 연합 신행단체장 추천서, 소정의 양식에 준한 불교방송 경영계획 및 신행활동 소개서, 주민등록등본이며, 7월 2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불교진흥원 이사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후보 2명을 불교방송 이사회에 추천한다. 새 사장의 임기는 2008년 7월 5일까지.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시방세계 9면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도반의 향기 17면
도봉장애인단체련 이탁송씨

불교계 국제행사 현주소 4면
알찬 여름휴가법 19면

'탁' 초심 잃지 마세요

지관 원장, 불자 지자체장 25명에 죽비 선물



7월 12일, 민선 3기에 이어 4기 종로구청장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김충용 구청장 앞으로 종이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상자를 열어본 김 구청장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격스런 표정을 짓는다.

김 구청장이 소중하게 꺼내든 '물건'은 바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보낸 '죽비'(사진)였다.

김 구청장은 죽비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죽비로 손을 한번 내리쳤다. 신심 깊은 불자인 김 구청장은 "지관 스님이 보내주신 죽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죽비소리에 맞춰 대중을 통솔하듯 흐트러짐 없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스스로를 경책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바로 헤아릴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죽비를 제4기 불자 지방자치단체장 25명에게 7월 10일 발송했다.

11일 이를 받은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늘 죽비를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발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연소 불자 광역단체장인 박성효 대전시장도 "죽비소리를 시민들의 경책이라 생각하고 항상 귀를 열어두는 시장이 되겠다"며 "죽비를 곁에 두고 150만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죽비는 중국의 선림에서 유래되어 널리 보급된 것으로 선가(禪家)에서 참선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불구다. 말 대신 동작의 신호로 좌선을 시작할 때나 방선, 공양 때에도 죽비 소리에 따라 행동을 통일한다.

지관 스님은 죽비와 함께 동봉한 편지에서 "스스로를 경책하여 다스리며 국민들 어려움을 바로 헤아려 공직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으로부터 죽비를 받은 불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서울) 김충용 종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이훈구 양천구청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부산) 박극제 서구청장, 윤덕진 사상구청장, 어윤태 영도구청장, (대구) 임병헌 남구청장, (인천) 이영수 남구청장, (울산) 조용수 중구청장, 최용수 동두천시장, 이진호 양양군수, 노승철 홍천군수, 한창희 충주시장, 박희현 남해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이태근 고령군수, 황철곤 마산시장, 김한겸 거제시장, 이재근 산청군수 등 25명이다.

조용수 기자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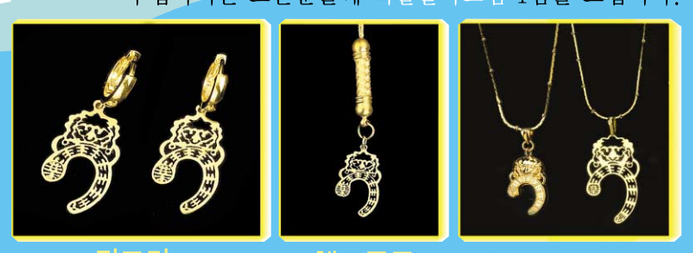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간화선 지도인력 양성과정 이수해도

지도 자격 주지 않기로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부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전형위원회는 7월 12일 봉화 축서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성과정에 지원해 1 · 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양성과정에 대한 '이수증'만 주기로 하고 소정의 자격부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래 계획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치면 지도자격이 부여되고, 포교원이 개발한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성과정 신청자 중 미등록 사설사암 권리인 및 관리인, 기본교육기관 미 이수자(1995년 이후 출가자), 사미(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포함), 타종단 소속, 서류미비자(전국선원수좌회 인정 선원장급 이상의 추천서 미비) 등을 제외한 신청자는 모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양성과정 신청자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1명(스님 95명, 재가자 46명) 신청자 접수가 완료됐다. 소임별로 보면 주지가 27명, 선원수좌가 14명, 기타 소임이 100명이었다. 10안거 이상 경력을 가진 스님이 31명이었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스님이 5명, 석사 학위자가 5명, 석사 수료자가 12명 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교수 4명, 강사 6명, 전현직 교사 5명, 포교사 13명, 종무원 4명, 기업임원 이상 6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도 6명이나 포함됐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을 비롯,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명숙 총리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혜정 교정원장, 지관스님, 한총리, 김희중 위원장.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지관원장 한명숙 총리 초청 만찬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10일 한명숙 총리 초청으로 7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와 만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문화와 사회통합의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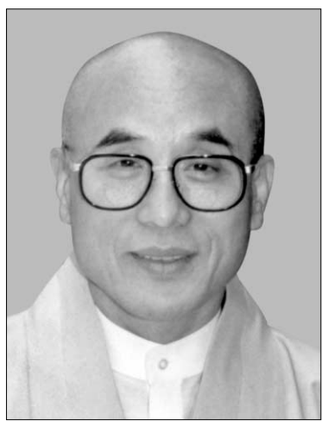
태고종 개혁 방안 운산 총무원장에게 듣는다

"득도 자격 기준 · 재교육 강화"

무속행위로 물의를 빚은 황룡사 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고종이 종단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모색을 위해 7월 11~12일 양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단 간부 및 중진 스님 연찬회를 열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원장 자월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등 50여 중진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단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찰 및 승려 정비 △승려의 득도제도 개선 △사찰 등록제도 개선 △승려의 수행 및 교육제도 강화 △사찰분담금 및 승려 분담금 징수제도 확립 △전통사찰(종단공찰)의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태고종 비전 2010'을 발표했다.

새로운 도약과 진로의 모색이 담겨져 있는 '태고종 비전 2010'을 통해 전통종단으로서 뿌리찾기에 팔을 걷어 붙인 태고종 행정수반 운산 총무원장 스님에게 종단의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들어보았다.



▲ '태고종 비전 2010'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종단 개혁을 위한 초석 작업을 마련한 뒤, 2010년 새 총무원장이 취임하면 그 토대 위에서 태고종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는 취지로 '태고종 비전 2010'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골격은 첫째, 법란극복을 위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과거청산 작업 추진, 둘째 청정승가 구현, 셋째 견고한 승가공동체 정립, 넷째 수행풍토의 조성, 다섯째는 사회교화 능력의 배양입니다.

▲ 제일먼저 개혁해야할 분야는?

-스님도 사람이고 불교 포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도들의 재교육과 득도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백여명의 규모로 개혁위원회를 이달안으로 조직해 3천여 사찰과 7천여명에 달하는 승려 운영 실태를 연말까지 일제 조사해 비불교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있는 사찰이나 승려는 과감히 정리할 것 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법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또한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득도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2007년도부터 동방불교대학에 1년과정의 행자 전수(專修) 과정을 개설해 동방대학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만 득도자격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설연수원을 수도권에 만들어 종도들의 교육을 상설화 시킬것입니다. 승려의 정기 연수교육도 의무화 하고 득도년차에 따라 이수과정을 차등화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3회이상 불참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신규사찰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보니 창건주나 주지 스님 등을 상세하게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그동안 신규 사찰의 등록은 창건주가 신청하고 교구 종무원에서 서류만 받아 대신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무원에 등록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현지에 나가 사찰의 재산상황, 운영방법, 창건주나 주지의 자질 등을 정확히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찰에 한해서만 해당지역 종무원장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 태고종의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가 예산 확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찰과 종도가 내는 분담금만으로 종단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1년에 5만원 정도 내고 있는 승려의무금을 대폭 인상해 종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사용할 것이며, 사찰 분담금은 연초에 종무원별로 개별 면담한 뒤 액수를 사세에 따라 책정해 징수되면 종단의 부대 사업비로 쓸 생각입니다.

'비전 2010' 발표…신규사찰 등록시 현지조사
시도교구 중심에서 지역종무원 체제로 전환
분담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무속이나 점보는 행위 등 종단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 연말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승려윤리헌장과 사찰관리지침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승려법, 의제법, 법계법, 징계법 등을 개정 보완해 사찰과 승려관리가 엄격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 황룡사 사건은 종단이 관리감독만 강화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도교구 중심체제가 관리감독에 역부족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말 전국 사찰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지역별로 사찰분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현재의 시도교구 중심체제에서 지역종무원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종무원이 50개 정도의 사찰을 관할하는 전국 종무원들이 한 개의 시도에도 몇 개씩 생겨날 수 있습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운영실태 파악 소위 구성

정관 개정 끝날때까지 활동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 산하에 '동국대학교 운영 실태 파악 및 정관 개정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종관위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 추천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자재 운달성직 도완 스님 등 5명을 위원으로 한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스님이며, 동국대 정관 개정 만료 때까지 활동한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입적한 성오 스님 후임 문제도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지난 동국대 이사회에서 류주형 이사 후임으로 선출된 김재기 이사와 연임된 이홍섭 감사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류주형 이사의 경우 종관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이사가 아니라는 점, 총동창회의 반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종법상 동국대 이사는 종관위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김재기 이사는 종관위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됐다.

또 전임 이사인 류주형 이사는 교육이사였으나 김재기 이사의 경우 교육이사가 아니라는 점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원용선)도 최근 종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총동창회의 김재기 이사 추천 결의가 없었음 △동국대 정관 24조 2항 중 '이사는 이교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에 해당 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동국대 서울 · 경주캠퍼스 교수회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수회는 7월 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사장 스님은 법인 일방의 이른바 '총추위' 규정 제정을 앞둔 시점에 중앙행정부서를 순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이사장 스님의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학내 행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인(재단)의 학사관여인 동시에 상임이사 재직시절의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동우 기자

불국사 주지직대 종상 스님 고운사 산중총회 무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산중총회 무산으로 공석이 된 제11교구 불국사 주지직무대행에 종상 스님을 7월 10일 임명했다. 종상 스님은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새 주지선출을 위한 제16교구 고운사 산중총회는 14일 성원미달로 무산돼, 8월 14일 재실시하기로 했다.

조용수 · 배지선 기자

대불련 학생 10명 선발 장학금 2000만원 지급

조계종 포교원이 대학생 포교 일선에서 활동 중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지부 및 지회 소속 학생 10명을 선발해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대불련에 등록돼 있는 지부장 및 지회장(지부장 및 지회장 역임자도 가능) △2006년 1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및 4학년 학생(단 2년제 및 3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 및 3학년 학생) 등.

신청자는 7월 31일까지 포교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891

남동우 기자

현법 스님 심판 청구건 각하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7월 12일 제38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청구한 직능직 종회의원에 현법 스님에 대한 심판 청구의 건을 각하했다.

법규위는 "중앙신도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헌종법 위배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의 건'에서 현법 스님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을 문제 삼은 것은 '법규위원회법' 제22조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원을 내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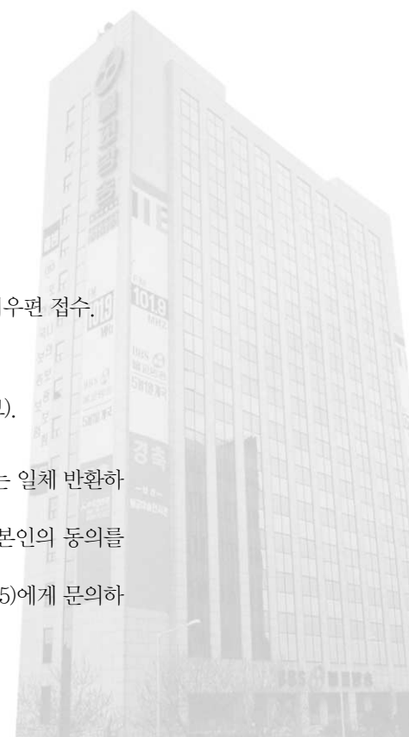
통도사 방장 이번엔 뽑나 8월 10일 산중총회

영축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통도사가 산중총회 일정을 8월 10일로 공고했다. 통도사(주지 직대 현문)는 7월 12일자로 '영축총림방장 후보자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통도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개모집

불교방송의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추천 대상 : 불교방송 사장
   * 임기 4년 중 2008년 7월 5일까지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 수임.

2. 자격 요건
   가. 독실한 불자로서 수계를 득하였거나, 10년 이상의 불교 신행활동 경력이 있는 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다.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불교방송의 경영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라. 1943년 7월 5일 이후 출생한 분.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및 상벌관련 필히 포함)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본사급 사찰의 주지, 또는 전국 규모의 연합 신행단체장 추천서 1부.
   라. 소정의 양식에 준한 불교방송 경영계획 및 신행활동 소개서 1부.
      * 소정의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http://www.kbpf.org)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등본 1부.

4. 제출 기간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06년 7월 25일(화) 17:00까지.
      *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우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다. 접수방법 : 제출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5. 심사 방법
   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서 심사.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6. 기타
   가. 본 공개 모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개 모집은 응모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02-719-18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 02) 719-1855(代) Fax 02) 719-5052 http://www.kbpf.org

'놀토' 자료집 나왔다

'놀토'를 어린이 포교 마당으로 적극 활용할 자료집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과 사단법인 동련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가 공동으로 발간한 〈사찰체험 프로그램 자료집〉은 주 5일 수업제 노는 토요일에 직접 활용한 프로그램과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해 각 사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자료집은 심산 스님외 8명의 선생님들이 집필했으며,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사찰과 스님, 지도교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이 자료집은 어린이들에게 사찰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의도 · 기획됐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칠월칠석 선남선녀 봉은사서 만나요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칠월칠석에 젊은 남녀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행사가 사찰에서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7월 30일 오후 2~8시 보우당에서 개최하는 '견우와 직녀의 아름다운 만남' 미팅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적인 미팅 형식에서 벗어나 조별 모임과 빙고게임, 도전!노래방, 파트너 게임 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겁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

주지 원혜 스님은 "칠월칠석을 의미 깊게 보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3218-4820~8

이은비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창립 본부장에 원범 스님

부산지역에서도 생명나눔실천이 시작된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1일 부산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울본부 외에 광주, 전남, 충남, 제주에 이어 4번째다.

부산지역본부는 장기기증 신청 및 결연사업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대국민홍보사업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혈액질환 환우들을 위한 헌혈 관련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금 모금 및 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은아 기자

태풍 · 폭우에 10여 사찰 피해

축대 · 칠성각 무너지고 물에 잠긴 곳도 정토회 등 긴급 구호단 파견 복구 작업

집중호우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전국 10여개 사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찰은 지역민과 관 · 군의 도움을 받아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양 낙산사는 7월 10일 폭우로 해수관음상 앞 축대가 무너지고 의상연구소 마당 경사면과 화장실 마당 경사면이 무너져 270t 가량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기거중이던 대중은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낙산사는 14일 현재 비가 멈추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했다. 17일께 비가 멈출거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복구를 위해 복구인력과 복구비를 강원도와 인근부대에 요청해놓고 있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 도림사는 10일 칠성각이 완파되고 보광전과 응진전이 일부 파손됐다. 보광전에 보관된 보물 1341호 괘불과 칠성각에 있던 삼존불, 후불탱화 등도 크게 훼손됐다. 도림사는 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재난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소방당국과 함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는 10일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로 설법전과 제2주차장 사이에 토사가 쏟아져 도로 10m 가량이 유실됐다. 부산 용수암도 10일 오후 1시께 100평 규모의 지하 주차장으로 1000t 가량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전각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 해인사는 10일 도량 곳곳의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리고 집수장 수도관이 파열돼 12시간 동안 단수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산내암자인 금대암과 성전암을 잇는 도로와 등산로도 흘러내린 토사로 차단됐다. 그러나 해인사는 비가 그치자 12일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는 등 울력에 나서 착실히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통영 용화사는 10일 대웅전을 보호하려다 강풍과 폭우로 요사채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요사채에 보관중이던 200여점의 그림과 고서 등이 물에 잠겼다. 남해 화방동산은 본관 건물 뒤 절개지 경사면 2군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으나,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진주 토왕암도 대웅전과 산신각 주위로 15t 가량의 토사가 밀려내려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강원이 있는 울산 보덕암은 11일 폭우로 도량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피해를 접수한 직후 순천 선암사 강원 학인 80여명을 긴급투입해 복구를 완료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는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진주 문산지역에 11일 3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단을 파견했다. 구조단은 12일부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재수련회를 진행 중이던 대학생 정토회도 11일 울산 두서면 활천리에서 제방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박봉영 · 배지선 · 이은아 기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양 낙산사가 이번 폭우로 해수관음상 앞 관음전의 축대가 무너져 바닥이 드러나는 등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낙산사

목탁소리

'고무줄' 나이 계산법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후보로 나선 혜승 스님의 세납 계산법을 놓고 7월 11일 중앙선관위가(위원장 도공)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158차 회의를 열고 혜승 스님의 주지 입후보 자격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산정 기준이 모호한 본사주지 연령 제한선 70세 초과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조계종 종법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제2장 10조 임명자격에서 본사주지 자격은 추천당시 승랍 25세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의 비구로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종법에는 태어난 해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70세인지, 사회법에서 준용하는 '만' 나이 70세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안을 흔히 말하는 '종법미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정한 종법인 교육법에 준해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측이나 "지금까지 종단이 '만' 나이를 적용해 주지를 임명한 적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45세를 겨우 턱걸이로 넘겼던 젊은 주지 후보들에게 '만' 나이를 적용한 바가 없는데, 1936년생인 혜승 스님에 대해서만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선관위원 진기 스님의 주장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상황과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조계종의 고무줄(?) 법적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절에 휴식공간 있었으면…

일반인들 사찰서 가장 불편한 점 꼽아

사찰에 대한 이미지는 조용하고 엄숙하며, 가장 불편한 점은 휴식공간의 부족, 사찰 방문시 가장 원하는 것은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발행하는 〈불교와 문화〉가 월간 발행을 기념해 대학생 및 사회복지사, 주부, 직장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인이 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사찰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용하고 엄숙하다(36.2%)' '마음의 안정과 평화(28%)' '아름다운 자연환경(20.7%)'순으로 답했다.

또 사찰의 시설에 대해서 '볼만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2.1%를 차지했으며, 29.3%만이 '볼만한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38.5%) 다음으로 휴식공간(31.9%)을 꼽았지만 정작 불편한 시설을 묻는 질문에서 휴식공간 부족이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사찰방문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53.9%), 불교문화체험(17.4%), 스님과의 진솔한 대화(11.2%), 불교교리나 문화공부(8.7%)등의 순으로 꼽았다.

김원우 기자

유언노트 '연화지기' 배포

불교장례 전문업체 연화회가 '유언노트'를 발간하고 전국 사찰에 무료로 보급한다. 또 원하는 사찰에는 무료강연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화회는 유언과 유언공증, 장례법 등을 꼼꼼히 적을 수 있는 유언노트 <연화지기>를 발간했다. (02)734-4444

이은비 기자

난치병 어린이에 성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7월 10~11일 서울삼성병원과 중앙의료원을 방문, 지난 4월 봉축기간 내 '1배-100원 모금 3천배 철야정진기도'를 통해 모은 성금 11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조계종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땀방울로 이루어진 성금"이라며 "그날 기도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모든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임선정(13)양의 모친은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모야모야 병(소아중풍)과 함께 뇌경색이 돼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했을 때, 서울삼성병원 지도법사 견허 스님께서 고통을 알고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다"며 "그동안 선정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편지글을 통해 전했다.

재단은 이번 성금전달식을 통해 임양을 비롯한 이성준(3 · 신장암), 오찬우(1 · 초극소 미숙아), 박강석(9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서울삼성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에서 투병 중인 1~14살 난치병 어린이 11명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7월 20일 서울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에서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지리산 햇빛발전소 10월 건립

인드라망, 월 120만원 절감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가 오는 10월 남원 지리산교육원에 차세대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친환경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

인드라망은 지리산교육원 주차장 부지에 15Kw급 자가용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지리산교육원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월 12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억 4천만원의 건설비용을 지자체와 인드라망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인드라망은 후원금 모연에 돌입했다. 후원자에게는 지리산 명상관 무료 이용, 인드라망의 각종 강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봉영 기자

조선왕조실록 어디로 갈까?

환수좇-의원모임 소장처 문제 논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의 소장처를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 측의 대립각이 첨예해 지고 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도 실록이 원래 있었던 월정사 사고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해야 할지의 문제를 놓고 난감해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 · 철안)와 실록되찾기의원모임(공동의장 김원웅 외 6명)은 7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실록 소장처 지정' '조선왕조실록 환국 고유제'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관계자들은 "실록을 강탈했던 일본 측이 소장처를 정한 모순 등을 근거로 서울대 규장각의 실록 소장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실록반환운동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개된 만큼, 7월 22일 월정사에서 열리는 고유제 행사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록의 관리와 소장처는 월정사와 독립기념관, 국립고궁박물관 중에서 문화재보관 능력, 반환문화재의 역사적 의의,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차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노병철 기자

봉행

성남 영장산 봉국사

큰스님 초청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기 2550년 8월 8일(음력 7월 15일) 백중절은 수행하시는 많은 스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옥문이 열리고 조상님 및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 천도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에 저희 성남 영장산 봉국사는 큰스님을 초청하여 조상천도 7일 지장기도 법회를 봉행하여 지장보살님이 지옥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악업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봉국사 주지 효관 합장

장 소 : 봉국사 심검당
계좌번호 : (예금주:봉국사) 국민 213637-04-000060
동 참 금 : 5만원

법회 일정

4재 : 8월 5일 (음 7. 12)
◆ 백중기도와 신행
• 정관스님 (명주암 회주)

입재 : 8월 2일 (음 7. 9)
◆ 백중 지장보살의 중생사랑
• 묘허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5재 : 8월 6일 (음 7. 13)
◆ 백중 공양과 방생의 날
• 자광스님 (문경 김룡사 회주)

2재 : 8월 3일 (음 7. 10)
◆ 백중의 유래와 역사
• 효관스님 (성남 봉국사 주지)

6재 : 8월 7일 (음 7. 14)
◆ 백중 천도기도의 공덕
• 정목스님 (한국정토학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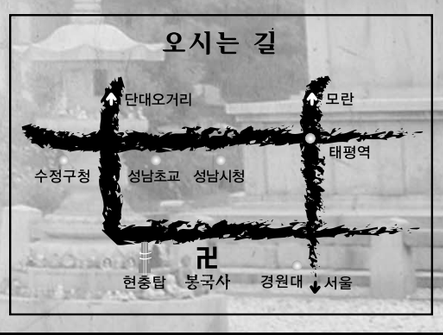
3재 : 8월 4일 (음 7. 11)
◆ 백중의 현대적 의의
• 성렬스님 (강남포교원 원장)

백중(회향) : 8월 8일 (음 7. 15)
◆ 백중의 참된 실천적 의미
• 암도스님 (백양사에서 수행중)

참석기도 안내
• 일시 : 불기 2550년 7월 31일(음 7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봉국사 심검당

춘성 큰스님 다례제
• 일시 : 불기 2550년 8월 1일(음 7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봉국사 심검당

방생기도 법회 안내
• 일시 : 불기 2550년 8월 9일(음 7월 16일)
• 장소 :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 출발시간 : 오전 7시
• 출발장소 : 봉국사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봉국사 회주 혜성 주지 효관 합장 종무소 031)755-0329, 019-380-3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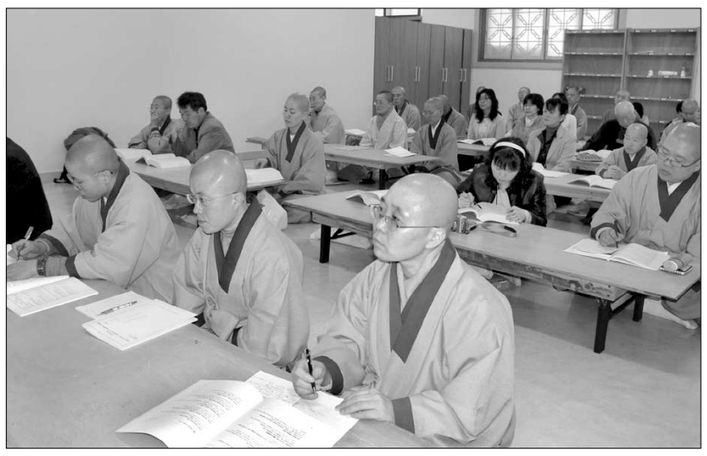
기획 – 진행 – 평가까지 알찬 준비가 관건

불교계 국제행사,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불교계가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들어 세계여성불자대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불교학결집대회, 금강대 국제불교학술대회, 동국대 국제생태학술대회, 세계시인대회, 참여불교세계대회, WFBY한국포럼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연이어 초치하고 있다. 분야도 학술대회 위주였던 예전에 비해 명상 · 문화 · NGO 등 교류의 장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3개 이상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국제대회'라고 불릴 수는 없다. 국제대회라는 명칭에 걸맞는 규모와 내실, 평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계가 주최한 국제행사들은 늘어났지만 마친 후 뒷말도 많다. 기획력 부재나 준비미흡으로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국제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지난 4월 열린 불교학결집대회는 16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다보니 한 논문당 발표시간이 10여분에 그쳐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자비를 들여서라도 행사에 참여하려는 외국학자들이 많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행사이기도 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강원도 만해마을에서 열린 세계시인대회는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쳤기에 체계적인 행사 운영, 해외시인들의 높은 참석률 등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꼽힌다. 이같은 행사는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상호교류'라기 보다 '친목의 장'에 머물러

주먹구구식 준비…자료집 제 날짜에 못내기도

번역 · 통역 · 전문기획자 등 인력양성 시급

▷ 어떤 대회가 있었나

올 상반기에는 '세계종교지도자대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국제생태학술대회' 등이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6월 개최한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는 18개국 8대 종교단체 35명의 지도자가 참석했고, 개 · 폐회식에는 3000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4월 열린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는 7개국 13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논문 130여 편을 발표했다.

동북아음악연구소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한 · 중 · 일 불교음악 학술대회, 천태국제불교학술대회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가며 국제학술대회로 자리 잡은 행사이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태준)의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등도 개최됐다.

7월 20~21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가하는 일연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전 세계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시세계를 교류하며 극찬을 받았던 세계시인대회는 한 번으로 그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부처님의 딸들'이라는 뜻의 사캬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대회)는 2004년 한국에서 개최돼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받기도 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 기획 전문성 부재

국제대회 개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획 · 준비단계의 전문성 부족이다. 대부분의 대회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추진되다보니 전문적인 기획이 이뤄지지 않고, 준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일쑤다. 과거 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했던 김모(동국대 불교대학원)씨는 "당시 보름 만에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토로한다. "촉박한 마감 시간에 쫓긴 국내 교수들은 예전에 쓴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아예 초록만 작성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논문집은 아예 개회식이 끝난 후에 나왔습니다. 외국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까지도 참석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간신히 행사장에 도착한 참가자는 10분간 발표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덧붙였다.

5월 2~4일 에이팬 한국본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역시 팸플릿이 나온 이후에도 공연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촉박한 일정에 쫓겼음을 보여주었다.

● 행사 목적 '아리송'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세 나라 이상만 모이면 행사 이름에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 보니, 친분 있는 외국 인사 두세 명만 초청해 놓고 '국제대회'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될때 국제대회 목적이 연구 성과 발표와 상호간 교류라기보다 '친목의 장'에 머물게 된다. 특히 학술대회의 경우 세계의 유명 학자들이 '제 돈 내고 찾아오는'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언어 불통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불교 용어를 제대로 번역 ·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논문 번역과 통역이 영어로라도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논문발표가 이런 상황이니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국제대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마저 뒷전이 된다.

● 기획 · 진행 노하우 안 쌓인다

국제대회 기획 및 진행 노하우가 축적 ·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 그간 불교계에서 열린 국제대회가 적지 않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된 적은 드물다.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는 이유다. 2004년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처럼 아예 대회 진행을 일반 행사 업체에 맡겨버리기는 경우도 있다. 대회 준비 단계에 참여했던 한 비구니스님은 "불교계 인력들이 큰 대회를 개최해보고, 이것이 불교계의 노하우로 축적되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수탁하다보면 1회성 행사에 그칠 뿐이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을 '규모'로 메우려는 마인드도 팽배해 있다. 개회식은 주최측이 동원한 인원으로 가득 차지만, 정작 학술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 본론에 들어가서는 썰렁하다. '규모만 국제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내실있는 대회가 되려면

● 개최목적 뚜렷해야

국제행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다. 왜 대회를 개최하며, 왜 '국제' 대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될 때, 비로소 대회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고 초청대상들도 걸맞게 '모실 수' 있다.

● 불교용어 번역 통일안 마련을

불교 전문 통역 · 번역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교용어의 번역 통일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번역자가 스스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하루빨리 불교계가 나서서 불교용어에 대한 외국어 번역 통일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종단 차원의 번역 전문 기관 설립' 등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다. 번역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동시통역 인력을 배출해 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동국대 등 불교종립대학들도 행사기획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불교적인 마인드를 지닌 행사기획자가 없는 만큼 불교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행사기획자들을 키우는 것도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

● 노하우 공유 창구 만들자

지속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또는 불교계 밖의 우수 사례 등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해야 한다. 5월 열린 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회에서는 '세미나 발표자 평점표와 개선점 기술란 서식표'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해 발표자들의 논문에 대한 평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참가자들이 적어 낼 수 있도록 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잘못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공지원금 적극 활용을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 예산은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 대부분이 외국학자들의 항공료와 체재비용으로 쓰이다 보니 정작 대회 진행 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로또기금 등 다양한 공공지원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만한 실적을 쌓아야 하는 만큼, 결국 최선의 노력을 다한 최고의 행사를 치러야만 이후 지원의 길도 더 폭넓게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을 참가자 자신이 부담해야 했던 2006 불교학결집대회에 많은 외국학자가 몰렸던 것은 지난 3년간 대회를 국제행사로 키워온 주최측의 노력 덕분이다.

6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자비를 내고 참가했던 국내 참가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 역시 대회 자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요한 행사라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북미쪽에서 한국 학회에 초청받아 오는 학자들 대다수가 '투어성'이라고 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제행사 수준을 낮게 본다"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명예욕과 외국인 참가자 머릿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행사의 질을 높여 자비로라도 참가하게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 여수령 기자

무구정광대다라니범서 소장용 액자 및 사경집 발간



가격 5,000원
(윤달 예수제 사경기도 법보시 사용사찰은 할인 구매 가능함)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정성껏 계를 지키며 법답게 공양을 올리고 이 주문을 77번 읽어주면 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리라.
이 다라니를 지성으로 77번 외워주면 나쁜 곳에 태어났더라도 즉시 그곳을 떠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 다라니를 집안에 모셔놓기만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거니와 하물며 사경하고 항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말로써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 범서 액자 10만원 · 금니 다라니 20만원

범서 반야심경, 범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서 능엄주 외 모든 범서 다라니가 있습니다.
(경명주사, 금니, 묵서)
소장액자는 덕산스님이 직접 쓰신 다라니입니다.

회원가입주문하신분께는 20%할인 해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943-2107, 011-9585-0386
● 한글주소 : 불교기획(www.bulta.co.kr) 인터넷 주소창에 불교기획만 치세요.

※ 광명진언, 대불정능엄주 범서 사경본도 곧 출간됩니다.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9교구 비슬산 적멸보궁 용연사

용연사 회주 일응당 지성 큰스님 추대법회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는 음력 7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전 동화사 주지 일응당 지성 큰스님을 용연사 회주스님으로 추대하는 특별법회를 개최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이번 특별법회에 수희 동참하시어 지성큰스님을 친견하시고, 세세생생 선근인연의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6년 7월 25일(음, 7. 1)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비슬산 적멸보궁 용연사 극락전

용연사 주지 상원
사 부 대 중 일 동 합장

비슬산 용연사 행사 안내

■ **후불탱화 조성불사 점안식 및 개금불사 회향**
-일시 : 11월 5일(음, 9. 15) 오전 10시
-장소 : 용연사 극락전

■ **수능입시 백일기도**
-입재 : 8월 9일(음, 7.16) 오전 10시 30분
-회향 : 11월 16일(음, 9. 26)
-장소 : 용연사 적멸보궁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적멸보궁 용연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 ☎053)616-8846, Fax053)616-0408

현장 전문가가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특화 프로그램’ 마음 끌기 적중

② 템플스테이 · 놀토 프로그램 등 시대 요구 담는다

사하촌 주민 · 공무원 등 테마별 개최로 인기
수련시설 태부족 … 별도의 수련공간 갖춰야
어린이 · 청소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절실

“절 밑에 45년을 살았지만 초청을 받아서 스님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올 2월 범어사에서 열린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한 주민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사찰과 주민의 만남을 준비할 때만 해도 범어사와 사하촌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그러나 범어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새 봄 햇살 아래 얼음 녹듯 녹아내렸다. 범어사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템플스테이였지만 그날 주민들과 보낸 시간은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뜻 깊었다는 기억이다.

이처럼 템플스테이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보여준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의 시대에 잘 맞도록 프로그램화 한 것이며 우리 한국의 전통과 사찰 문화,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게 하는, 둘도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단 한사람이라도 더 불교를 알기 쉽게 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멀리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사찰 고유의 정서를 보여주고, 5천년 역사의 민족성과 기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고자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초청’ 템플스테이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 시내에 있는 중, 고등학생들 중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2~3명씩 50명, 구단위로 2~3명씩 50명으로 나눠 2차례 진행키로 했지만 어쩐 일인지 몇몇 학교와 구청을 제외하곤 마감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와 구청복지과로 전화를 해 봤더니, 구청 담당자들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소년소녀가장들의 연락처조차 알려주길 꺼려했다. 하소연 끝에 동사무소 연락처를 받아 연락한 끝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인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범어사는 그 외에도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복잡한 일상을 툴툴 털고 직장의 동료와 상하간의 불신불만을 해소하게 하는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관과 사찰의 만남’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드러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혜수 스님

(범어사 연수국장)

템플스테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내실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한다는 것을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됐다.

자원봉사는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보살행이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출현하셨더라면 분명히 보살행을 자원봉사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을 받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템플스테이는 것이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서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행이었다.

범어사 연수국장을 맡은 이후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계나 절망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두고 또 되는 방향을 찾으면 되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넘기 힘든 부분이 공간의 문제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생활공간이 주가 된 전통 사찰에서, 일반인들의 템플스테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여유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런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생각에만 그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절대 부족인 샤워시설이나 낙후된 화장실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진행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은 비단 범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는 토요일에 ‘염색’ ‘종이접기’ ‘과학교실’ ‘영어 뮤지컬’ ‘선무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홍법사의 경우도 공간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다. ‘놀토’에 절로 몰려드는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스님 방까지 내어주고 있다. 이처럼 사찰이 이제 스님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심지어 외국인들에게조차 개방돼 불교의 가르침을 알려야 한다면 수행공간과 구별되는 수련공간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여러 사찰들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법사의 놀토 프로그램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발길도 사찰로 향하게 만들고 있으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불법과의 인연을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 놀토 프로그램 속에 자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음사의 경우 상담과정이나, 호스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해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있다. 또 용두산 공원 입구에 위치한 미타선원은 시민선방을 24시간 개방해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다양한 문화 강좌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월 한차례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를 현실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범어사도 현 시대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자문을 구해, 어린이들을 위한 노는 토요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학동안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범어사 곳곳에서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을 대할 날도 머지않았다.

그 어린이의 웃음이 바로 희망이며 부처님의 본래면목임을 믿으며 더위와 함께 찾아온 여름수련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을 채비를 서둘러야겠다.



범어사가 지난 2월 주최한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에서 사중스님들과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1회 금강은빛문화축제의 다례시연 모습.

배우고 익힌 솜씨 뽐내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제1회 금강은빛문화축제’ 개최

경남 마산 금강노인복지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7월 8일 마산시청 대강당에서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제1회 금강은빛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금강은빛 문화축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난 1년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축제 한마당.

진도북춤, 가야금 중창, 금강어린이집 원아들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복지관 다도반의 다도시연, 은빛사물놀이반의 사물놀이 한마당, 건강댄스반의 실버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사회복지법인 금강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처음 복지관을 개원 했을 때 걱정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도움으로 1년을 맞았다”며 “세상의 여러 중생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세상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금강노인복지관은 지난해 6월29일 개관해 국어교실, 한국무용, 미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건강검진, 무료점심급식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내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불교단체에 법회 장소 제공
부산 장원선원 11일 개원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이사장 김수현)이 부산 동래에 위치한 장원 불교의 집 3층에 법당을 조성하고 7월 11일 장원선원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장원선원은 앞으로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파라미타, 부산불교여성개발원 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의 법회장소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직장 불자들이 신심을 높이는 도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아 기자

범어사 팔상 · 독성 · 나한전
부산시 유형문화재 63호 지정

부산 범어사의 팔상전 · 독성전 · 나한전이 7월 3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63호로 지정됐다.

1706년 이래 현 위치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는 이 전각은 천태문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각각 팔상전과 나한전이란 별개의 건물로 존재했으나 1906년 1년간의 공사를 통해 현재 모습인 하나의 전각으로 만들어졌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금강염주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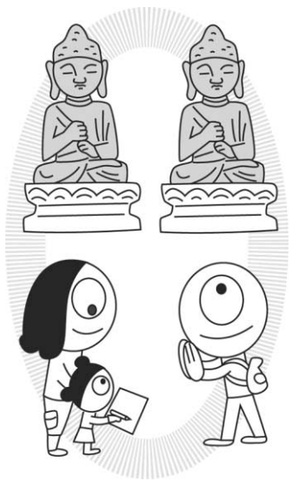
사랑의 만남 '비로자나데이' 연다

해인사, 칠석 맞아 7월 29일 공연 탑돌이 등 행사 다채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칠석(7월 31일)을 맞아 7월 29일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 '비로자나데이(VIROJANA DAY)'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현존 최고(最古)의 목불로 확인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비로자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태양' '광명'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해인사에서 발견된 쌍둥이 목조 비로자나불(883년)에서 착안해 사랑 · 만남 · 생명을 주제로 비로자나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힌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쌍둥이 비로자나불은 여름에 제작됐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통일신라 진성여왕과 정치가이자 문학가였던 김위홍과의 사랑이야기가 깃들어 있어 '사랑과 만남'의 날인 칠월칠석에 축제를 열기로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비로자나데이는 오후 3시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며, 경내와 암자 곳곳에서 소규모 콘서트와 각종 공연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젊은 국악그룹 '이스터녹스'의 역동적인 퓨전 국악공연, 4인조 그룹 '비즐리'의 월드뮤직 콘서트, 멕시코 악단 '마리아치 라틴'의 민속음악 공연, 줄꾼 권원태와 어릿광대 등의 재담과 외줄타기, 야간 탑돌이에 사용할 '종이컵 연등' 만들기, 마임과 판소리 등 각종 퍼포먼스, 진성여왕과 김위홍 그리고 칠석에 관련된 시화전, 사찰음식 맛보기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 오후 7시부터 패션디자이너 이영희의 '사랑과 만남의 패션쇼', 가수 김종국의 '한여름밤의 꿈'과 국악인 김성녀의 '천년의 사랑' 공연, 연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잉태와 완성', 사랑의 탑돌이 등이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현응 스님은 "비로자나데이는 산사에서 벌이는 젊은 국민적 축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당일 밤 늦게까지 대구까지 임시버스를 운행하며, 문화재 관람료, 국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한다. (055)934-3000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류 활발하면 조직력도 살아나요"

대불어 대구지부, 어린이포교 활성화 위한 특강



강좌 및 지도방안 논의

7월 9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 문화관이 시끌벅적하다.

(사)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지구장 선용, 이하 대불어대구지구)가 부산에서 어린이지도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기획이벤트 '공룡' 김창영 대표를 초청해 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열었기 때문이다(사진).

비가 오는데도 선용 스님과 20여명의 대구지역 어린이지도교사들이 모여 때론 어린이, 때론 교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수건돌리기도 하고 수박핥기 게임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배웠다. 웃고 떠드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김창영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어린이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태도까지 조목조목 지도의 중요한 지침이 됐다.

대불어대구지구는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 일요일마다 대구 보현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어린이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교육을 병행하면서 지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역 어린이포교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트풍선 만들기를 배웠고, 어린이여름불교학교가 이어지는 8월은 쉬었다가 9월에는 전래놀이를, 10월과 11월에는 두 달 과정으로 구연동화를 배울 계획이다.

대구지역 어린이지도교사들은 대불어대구지구의 이런 변화와 노력에 감사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금용사 어린이법회 법사 다정 스님은 "대불어대구지구 정기모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만족해했고, 영남불교대학 경산법당 오미자 선생님은 "모임을 통해 어린이지도 교사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직력까지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불어대구지구장 선용 스님은 "매월 한두 시간의 정기모임이 미약한 듯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다보면 어린이지도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포교활동에 기대와 의욕을 보였다.

배지선 기자

경주 장애인종합체육관 착공

경주지역 장애인들의 스포츠 여가문화를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이 건립된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불국사 회주 성타, 주지 종상 스님과 장애인단체장, 복지관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3일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사진).

장애인종합체육관은 황성동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옆 1천여 평의 시부지에 20여억 원의 예산으로 4백여 평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 대구사원주지련 모임 갖고 상호협력 다짐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종무 소임자 스님들은 7월 10일 대구불교회관에서 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과 임원스님들과 상견례를 갖고 대구불교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대구 지역불교의 양대 축으로 활동해오던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임원 스님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운 스님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불교와 종단이 내실있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법혜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인 동화사의 뜻을 존중하면서 회원사찰의 권익보호와 포교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불교계의 취약분야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에 힘을 모으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배지선 기자

은적사, 어린이한문학당

대구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원장 도순희)은 여름방학을 맞아 7세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한문학당을 개설한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문학당은 지행 스님이 지도하며 유치부는 사자성어와, 부모님 한자 이름 쓰기 등을 배우고, 초등부는 백유경을 교재로 기초한자를 익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찬불가와 부처님 이야기, 재밌는 레크리에이션과 반별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 (053)621-1003 배지선 기자

은해사서 지방선거출마자 모임

영천지역 지방선거 당선자와 출마자들이 7월 14일 은해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리로 영천시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손이목 영천 시장과 제4대 경북도의원, 영천시의원 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지역 지도자들과 은해사 신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용태

대구능인중학교 교장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학교 김용태(59) 교장은 불교종립학교 지도자로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청소년포교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 지도자부터 포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자 교장 · 교감 모임인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결성했다.

올 초부터는 대구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으로 청소년포교활동의 일선에도 나서고 있다. 또 조계종립 학교장 모임인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김용태 교장의 이런 노력은 청소년포교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다섯 학교가 파라미타를 새로 구성했고, 5~6학교가 파라미타 결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파라미타를 운영하는 학교가 총 20여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극적이며 드러내지 않고 개인 신행을 하던 불자 교육지도자들이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 무엇보다 큰 보람이 되고 있다.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종교로, 한 인간을 제대로 키워내고자 하는 교육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야 말로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김용태 교장의 청소년포교활동은 이처럼 불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김 교장이 발심하고 신심을 키우게 된 것은 1979년 능인중학교로 부임해 오면서부터다. 조계종립학교다보니 불교연수도 다녀오고, 스님을 만날 기회도 많았다.

김 교장은 특히 80년대 초 다녀온 월정사 연수를 잊을 수 없다. 당시 탄허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를 주었는데, 4시간 동안 이어진 윤회에 대한 법문은 김 교장에게 무수한 의문을 남겼다. 뭐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교장은 당시 능인중학교에서 활동하던 태일 스님을 붙들고 늘어졌다. 몇 시간씩 이어진 토론에서 김 교장은 한번도 태일 스님을 이기지 못했고, 확고한 믿음과 신심을 갖게 됐다.

"당시 태일 스님은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밝혀 주셨어요. 어떻게 물어도 스님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지요. 결국 인과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불교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김용태 교장은 이렇게 독실한 불자가 되어갔다. 85년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됐고 지금까지 전문상담교사로 학교폭력지도위원, 학교폭력강연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장에게 스님들

'불교교육지도자모임' 결성 포교에 앞장
청소년 상담심리프로그램 개발이 꿈

의 관심과 가르침은 각별했다. 때로는 격려도 있었고,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경책도 있었다. 덕분에 김 교장은 학생 하나를 지도하는 데도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는 말을 좌우명으로 살아온 김 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늘 꿈을 이야기하고, 일선교사들에게는 백지와 같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일 출근하면 법당 반야전부터 들러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송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김용태 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 청소년포교와 학생 생활지도에 심혈을 기울인다.

故 계명대 이영덕 교수에게서 전문상담심리를 전공한 뒤 불성을 이용한 청소년상담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꿈인 김용태 교장은 "이런 작은 노력들이 청소년포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한다. 배지선 기자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계곡에 발 담그고, 별보며 추억 쌓고…

여름 체험학교 어디로 갈까

광주 · 전남 사찰, 초중고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 · 전남 지역 사찰에서 초, 중학생을 위한 다양한 수행마당이 펼쳐진다.

금년에 마련된 여름학교는 신행만을 강조하기보다 계곡에서 발 담그고 명상하기, 군수에게 듣는 우리고장이야기, 다도 도예체험, 영화관 나들이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고불총림 백양사 천진암(주지 해만)이 8월 4~6일 개최하는 중학생을 위한 수련법회가 대표적이다.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암자탐방, 계곡에 발 담그기 명상, 별보며 추억 찾기 등 수행에 재미를 곁들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061-392-0533)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 '다도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8월2일부터 9일까지 7박8일간 고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는 차 잎을 따고 덖는 제다체험과 다도, 차 문화유적 탐방, 차와 음악명상이 펼쳐진다. (061-534-5502)

섬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 장보고학교도 손님준비를 마치고 방학을 기다리고 있다. 금년으로 3회째인 장보고학교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신흥사 교육관에서 한문 사경교실, 검도, 다도, 도예체험 등을 펼친다. 또한 군수초청 특강과 놀이공원, 영화관 나들이를 통해 도서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061-554-2634)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상학교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올해도 여름 명상학교를 운영한다. 7월 29~30일 양일간 명상, 요가, 심성프로그램,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062-223-3163)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도 7월 22~24일 14차 어린이 수행학교를 운영한다. 3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체험놀이 마당으로 펼쳐진다.(062-263-4660)

광주 한마음선원(지원장 혜월)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0~12일 경주남산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중등부는 7월 26~29일 오대산, 치악산 일대 성지순례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운다. (062-373-8801)

이준엽 기자

송광사 템플스테이 참가한 미국 입양아 에밀리 로즈양

"한국 사찰은 아름다운 종합예술"



"한국 사찰은 그대로가 아름다운 종합예술입니다. 사찰에 담겨진 과학과 신비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7월 6~8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열린 미국 입양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에밀리 로즈(16 · 사진 가운데) 양은 "오랜 역사와 깊은 생각이 담긴 한국 사찰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사찰체험 소감을 밝혔다.

"백인사회에서 살다보니 외모 때문에 항상 특별한 존재로 의식하며 살았다"는 에밀리 로즈 양은 "모처럼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집에 있는 듯하여 편안하다"고 덧붙였다.

에밀리 로즈 양의 아버지 부르스 레츠멘(53) 씨는 "에밀리가 예체능에 특별한 재주가 많은데 한국에 와서 보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자랑하겠다"는 에밀리 로즈 양은 "이번 여행으로 태어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웃었다.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자랑하고 싶어"

송광사에서 열린 입양아 템플스테이에는 에밀리 로즈를 비롯한 입양아와 가족 26명이 참가해 사찰순례, 예불, 다도,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순천=이준엽 기자

보성 티벳박물관 인도 민속미술展

보성 대원사 티벳 박물관(관장 현장.www.tibetan-museum.org)은 개관 5주년을 맞아 8월 5일~10월 5일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힌두교 신들의 사랑이야기와 인도귀족, 서민의 손때가 묻은 민속품이 전시된다.

또한 인도 민속미술전을 기념해 8월 5일, 12일, 19일 3회에 걸쳐 개막기념 공연을 펼친다. 공연에는 자야프라사드, 밀린드다테, 바르가브 미스트리 등 인도 전통음악인과 변영미, 박양희 씨가 출연해 인도명상곡, 인도전통악기 등을 선보인다. 이준엽 기자

아름다운 생명나눔 영화시사회

콜롬버스 시네마, 헌혈증 2000매 전달



소아암백혈병 환우와 헌혈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아름다운 영화시사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이하 생명나눔)는 7월 8일 광주 콜롬버스 시네마에서 생명나눔가족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영화시사회를 가졌다.

영화관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는 백혈병 환우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영화관 김덕일 관장은 생명나눔 정원채 상임이사에게 헌혈증 2000매와 사랑의 돼지저금통 40개를 전달하고 백혈병 환우를 격려했다(사진).

콜롬버스 시네마는 생명나눔이 펼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으로, 영화 관람객이 헌혈증을 기증하면 무료영화관람권을 증정해 헌혈증을 모으고 있다.

한편 헌혈증 전달에 이어 백혈병 환우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목포교도소 재소자 50명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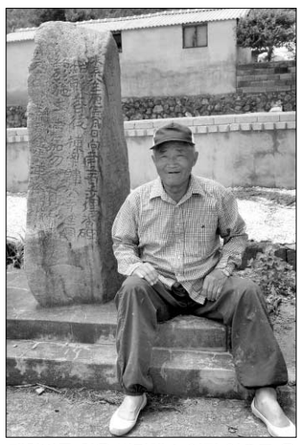
목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가 7월 13일 교도소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경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회는 잘못을 여러 사람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다"며 "진정한 신행의 시작은 참회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수계식에서 불자 재소자 50명이 재가오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계식에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와 농촌공사 마준명 소장이 재소자들에게 음식과 안경을 기증하고 격려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생활 속 불교문화

영광 법성포 매향비



매향비를 처음 발견해 노인정 옆으로 옮겨놓은 하연식씨와 매향비.

예로부터 민중들은 향을 통해 부처님 세상에 나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좋은 향을 얻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매향(埋香)이 그러하다.

고려 말, 이 땅의 민중들은 관료들의 부패로 살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왜구 출몰로 바닷가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했다. 이들에게 희망은 56억7000만년 후에 출현하는 미륵부처님이었다.

어서 빨리 미륵불이 출현하기를 발원했다.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갯벌에 향나무와 참나무를 묻었다. 천년 세월이 흐른 뒤에 침향(沈香)이 되어 땅위로 나투면 미륵세계가 될 것이라 발원했다.

향나무를 묻은 그 자리에 증표를 남겼다. 매향비이다. 길에서 흔히 보는 투박한 돌덩어리에 울퉁불퉁 몇 자 적은 것이 전부다. 현재까지 발견된 매향비는 20여기에 이른다. 대부분 서해안 바닷가에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나주 목사 권극화가 신안 팔금도에서 땅에 묻힌 향과 비석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있는 매향비는 비교적 글씨가 많이 남아있어 보물 614호로 지정됐다.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땅에 처음 불상과 경전을 들여온 법성포에도 매향이 이뤄졌다. 와탄천과 법성포가 만나는 입암마을이다.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1371년, 1410년 두 번에 걸쳐 매향의식이 있었다. 지금은 일제 때 간척으로 갯벌이 논으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매향비 앞에까지 배가 닿았다고 한다.

마을 주민 하연식(82) 씨는 "매향비인줄도 모르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의 닻줄을 매던 '빗돌'로 불렀다"고 증언한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꽃동산으로 밀려났다가 마을 제방이 무너지자 둑을 막는 돌이 되었다. 그 뒤 매향비를 찾아 마을을 방문하는 이가 늘어나자 '빗돌'에 글씨가 새겨졌던 것이 기억났다. 당시 마을이장이던 하 씨가 제방에서 돌을 꺼냈다.

60년대 말, 입암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매향비에서 50m 쯤에 있던 웅달샘을 파자 검고 단단한 나무가 나왔다. 침향이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침향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백년간 갯벌에서 소금물에 다져진 침향은 단단하기가 쇳덩이와 같다.

"매향은 천년前 묻어놓은 나눔 향"

미륵불 출현 발원 … 갯벌에 향나무 묻어

향을 피우면 그윽함이 나지 않으며 은은한 향내가 멀리간다. 벌레가 접근하지 않아 스님들의 사리함 내부에 쓰이기도 한다. 고급 약재로도 쓰였고 견줄 수 없는 향의 신성함으로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되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매향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가뭄을 대비해 묻었다"고 주장한다. 흉년이 들면 갯벌 위로 올라오는 침향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그 뒤 희유하게도 흉년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침향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매향도 전설이 되어버렸다.

수산 스님은 "침향을 찾겠다고 갯벌을 파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매향은 천 년 전에 묻어놓은 '나눔의 향'이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침향이다"고 강조한다. 영광=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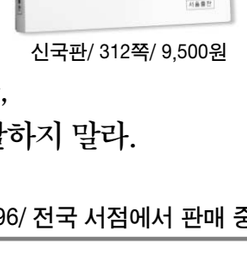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신국판/ 312쪽/ 9,500원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소만 적어가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접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에...

각 종단 자정 움직임 활발

사찰 조사 · 정비 … 종도교육 강화하기로

지난 5월 무속행위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일산 황룡사 사건을 계기로 최근 종단들이 사찰정비와 승려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자정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이는 각 종단들이 청정한 이미지의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찰 및 스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종도교육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지난해에 시작된 사찰 일체 재조사를 통해 올해말까지 종단 소속 사찰 분할 신고를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음종은 총무원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전국에 있는 총 6백여개의 종단 사찰을 대상으로 무속행위를 하거나 승가종풍을 위배하는 사찰과 스님, 미등기 사찰, 주지 스님과 연락이 안되는 사찰 등을 조사해 문제가 발생된 사찰에 한해 종단 등록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원융종(종정 일공 스님)도 7월 5일 중진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사찰 정비와 승려교육을 강화 시키기로 결의했다.

원융종은 이날 회의를 통해 △종단에 등록된 전 종도는 종단 자체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승려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계증서를 수지할 것 △중진 스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 종지종풍에 위배되는 사찰과 승려는 제적 처분한다 등 청정종단 구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침을 결정했다.

20여명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지역별로 조를 편성해 전국 사찰을 직접 순회 조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종단의 임원급 스님들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사찰 스님을 중징계하거나 승적을 박탈시킬 예정이다.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10월 중순 3박 4일 동안의 단기연수를 별도로 기획해 전 종도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의 자율적인 동참 유도에서 벗어나 이번 교육은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 재정비 계획과 종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종도교육 프로그램, 승적 박탈 및 사찰 등록 취소 기준안 등을 발표한다.

종도 연수 교육을 총 진행하는 법공 스님은 "군소종단은 개인 사설 사암들이 많기 때문에 사찰과 스님들을 중앙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면 탈종 하는일이 다반사라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웃종단에서 일어난 일을 거울삼아 종도교육을 1년에 2~3회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타종과 법상종은 종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등록 사찰 현황 파악과 재정비를, 본원종은 상설 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천태종의 두번째 해외포교당인 캐나다 평화사가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일 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평화사

천태종 캐나다 '평화사' 개원

천태종 해외포교당인 캐나다 평화사(주지 세운)의 개원 법회가 7월 1일 거행됐다. 도용 종정 스님과 정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법회는 본존불인 관세음보살 봉안식으로 시작해 종정법어, 특별 불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운 주지스님은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같은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은 종단의 지원과 토론토지역 불자들의 성원에 의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평화사를 북미지역 새로운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의 해외 포교당은 덴마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2003년 3월 종단 지원으로 5만3000여평의 부지를 구입, 180여 평 크기의 법당과 50여 평 규모의 요사채를 마련 작년 말 공사를 마쳤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11시에 열리며 마지막주 금 · 토요일 오후 10시엔 철야 정진법회를 한다. 어린이 법회와 한글학교도 운영한다. 한편 7월 23일 오후 2시에는 평화사 청년부 창립법회도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잔여재산처리 실사委 구성
연천일대 부동산 되찾기로
태고종 공제회

한국불교태고종 공제회(이사장 박인공 스님)는 7월 1일 신촌 봉원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잔여재산처리를 위한 실사위원회(위원장 대운스님 · 공제회 전무이사)를 구성했다. 실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현지에서 공제회의 부동산현황과 관리및 운영현황을 실사하고 향후 공제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사회는 불법으로 처분된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일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공제회 재산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보우승가회 여름수련회 개최
7월 21~23일 태고총림 선암사서

태고종 수행결사단체인 태고보우승가회(회장 지홍스님)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고종림 선암사에서 '제3회 산사체험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내 마음의 불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법회는 어린이 · 청소년 · 성인그룹 등 연령대별로 나눠 진행됐던 기존 형식을 탈피해 이들 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가족중심으로 짜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련회는 △역대 고승 일화 소개 특강 △참선 △선암사 일주문서 경내까지 3km 구간 3보 1배 수행정진 △숲속 명상시간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수련회 소감문 작성 발표△가족수계법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포교사단

함께 군포교에 힘 모은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포교사단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해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출범 6주년을 맞아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함께 7월 9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본지가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과 같은 사찰 – 포교사단– 군법당 – 군종교구가 네트워크를 형성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군종교구 차원에서는 군법사가 상주하지 않는 법당에 포교사단의 포교사를 민간인 성직자로 위촉하고 포교사단은 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포교사단 중앙직할팀장 이재욱 포교사는 '포교 환경 변화에 따른 포교 활동의 발전적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그동안 부대 출입에도 제한적이었고 군법사들과의 의사 소통 및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군법사와 민간인 포교사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열악한 포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지역의 군법사들과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 김상래 군법사는 지정 토론에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 제도를 활용하면 부대 출입이 가능한 만큼 군법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군포교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자"고 말했다.

포교사단 군포교 1팀장 신도성 포교사도 '군 포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1사찰 1부대 결연, 군 전문 포교사 양성, 군법당 신설 확대, 군포교에 대한 적합한 설법 교재 간행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군포교 10팀장 강원호 포교사는 '군불자 효과적인 관리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신병교육대와 같은 교육부대 중점관리, 사병을 위한 불교교리 문답 홈페이지 제작, 전입사병 단주 제공, 친선체육대회, 장병을 위한 발원문 제작 등을 제안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과 양성홍 포교사단장, 전인구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현역 군법사와 포교사단 군포교팀 포교사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사찰–포교사단–군법당–군종교구 네트워크
민간인 성직자로 포교사 위촉 … 법사 지원키로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국방부 김상래 군법사, 호국 원광사 정인성 군법사, 임희웅 포교사, 신현덕 포교사가 군종교구와 포교사단을 대표해 군신도회 활성화, 민간인 성직자 제도의 활성화, 군불교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복지사업체 운영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계종 군종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젊음을 국민을 위해 내 놓은 군장병들에게 불교를 통해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일 이야말로 더 할 수 없는 진정한 군불교 활성화 방안이요, 청년불교의 기틀"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군포교 활성화에 대한 귀중한 체험담이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불교 발전에 전력하자"고 말했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오직 불자님들께만 드리는 단 한번의 혜택!!'

불자들을 위한 냉풍기 초특가 보급행사


얼음 투입구


리모컨 수신 창


버튼조작부 및 기능 표시부

국내 최저가 보급
150대 한정판매

[제품사양]
• 제 품 명 : 아이원 그린 냉풍기[SLC-5000R]
• 구 성 : 본체+리모컨+교체용필터+건전지+아이스팩 4E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제품크기 : 320(W) x 230(D) x 700(H)mm
• 중 량 : 7.4Kg
• 제조사 / 원산지: 성일 / 한국
• 소비자가 : 180,000원 → 초특가 99,000원
(벽걸이선풍기 포함가)

본 제품은 기존 선풍기에 비해 다양한 기능과 차별화된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으며, 에어컨에 의한 냉방병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전기료의 부담이 없고, 냉방기능과 동시에 가습 및 공기정화의 기능이 있는 다기능 냉풍기입니다.


송풍구

상하 조절 레버


이동바퀴

특별 사은품- 하나,
16인치 벽걸이선풍기
특별 사은품- 둘,
아이스팩 2개 더(총6개 증정)

LCD 계기판
최신 접이식 LCD 계기판 채용으로 디자인과 편리함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동이 편리한 측면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시기에 편리합니다





AIRSON 이동식 에어컨
냉방.제습.송풍,공기청화까지.. 4in1 이동식에어콘!!
(10~12평형)

[제품특징 및 사양]
물받이가 필요없는 증발수 냉각방식, 저소음, 제습 및 송풍기능, 자동온도 조절기능, 공기 정화필터 사용, 전기능 을 리모컨 하나로 조작할 수 있으며, 강력냉방, 최대 24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여 작동하고 싶은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냉방능력 : 12000BTU/3500W
• 냉방면적 : 25m • 중 량 : 34Kg
• 소비전력 : 1500W • 제습용량 : 1.8l/H
• 사용전압: AC 220V 60Hz
• 제품크기 : 490(W) × 840(D) × 330(H)mm
• 특별보급가 : 632,000원


EEK3000

일렉트로룩스 무선 주전자
[제품특징 및 사양]
일렉트로룩스 무선 茶주전자 EEK3000 세련된 블랙컬러와 모던디자인의 조화
• 용 량 : 1.75L
• 소비전력 : 1850W
• 색 상 : 블랙 & 실버
• 특별보급가 : 45,000원


EF883


EF881

가정용 제습기
[제품특징 및 사양]
가정용 제습기는 Peltier Technology를 응용한 제품 콤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아 조용한 운전이 가능 초소형,초경량화로 좁은공간에서도 위력을 발휘 통풍이 잘 되 않아 쉽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나 창고, 옷장 등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 제품크기 : 154(W) × 130(D) × 218(H)mm
• 중 량 : 1.1Kg
• 제조사 / 원산지 : GINFAX / 중국
• 특별보급가 : EF883 28,500원
EF881 39,000원

고객센터 02-732-1520 [입금계좌안내] 농협 053-01-267081/ 국민 023501-04-074548 (예금주:마하몰)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일하고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노인일거리마련센터 현장

"집에 있으면 누워있기만 하는디, 여기 와서 형님, 아우님들 만나 이야기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을매나 좋은지 몰라. 여기 아니면, 이 나이에 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간디?"

7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덕림)이 운영하는 '서원노인일거리마련센터'. 이날 나온 50여 어르신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동작업장은 웃음과 말소리로 시끌벅적했다. 60대 후반 할아버지부터 백발 성성한 8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이 볼펜 조립에 여념이 없다. 모두들 어엿한 일자리가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관장 덕림 스님이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을 건네도 어르신들은 "웬걸, 일하다 보면 아픈지 몰라"라며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인다. "평소에는 일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오늘은 바깥에서 손님(기자를 지칭)이 오셨으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라는 말에 여기저기서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노인일거리사업이란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층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돈 뿐만 아니라, 노년생활의 활력을 위해 센터를 찾는다.


이날 출근한 어르신들 중 최고령인 김양진(81) 할머니.

친구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얻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업을 위해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 치매 예방도 되니, 마음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전직 교장선생님이었던 박정옥(70)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70세 나이에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일을 하며 자신감을 찾자 자식들이 더 좋아 한다"고 활짝 웃었다.

간단하고 단조로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 볼펜은 우리가 조립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여. 영국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팔린다지." 박부례(74) 할머니는 조립하고 있던 볼펜의 영어라벨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숙련되면 하루 200개도 조립한다"고 말한다.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정확히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이 진행되지만 어르신들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사업에 비해 이곳 센터 참여 어르신들은 나이의 폭도 다양하다. 최고령자는 93세 어르신으로, 평균 70대인 젊은사람(?)들 못지않게 왕성한 작업을 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 김찬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년퇴직한지 얼마 안된 50~60대의 고학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곳 일거리마련센터는 그 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의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은 전주시에 위치한 회사들의 일거리를 주문 받아 제작하고 개인당 한 달에 30~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 중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숙련된 솜씨로 일거리를 처리해 90여 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도 있다. 수 백 만원을 버는 도시 근로자에게는 용돈에 불과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용돈이 아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알짜배기 돈이다. 벌써 5년 동안 센터에서 일한 김양진(81) 할머니는 "담배도 사고, 아플 땐 약도 사먹을 수 있다"며 "일만 있다면야 언제까지라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곳의 전체 수입을 합치면 연간 1억원이 넘는다. 관계자들은 올해 1억6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에 7개의 노인일거리사업장이 있지만 대부분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선에서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곳보다 세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센터 이성강 팀장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중점육성한 덕분"이라고 요약한다. 즉, 어르신 일거리의 '블루오션'에 과감히 뛰어든 덕분이다.

60~80대 어르신 모여 공동작업
지역 산업 특성 살려 일거리 육성
올해 수입 1억 6천만원 예상
2001년 시작… 매일 9시출근 6시퇴근

물론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일거리를 어르신들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회사도 부지기수였고,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지역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복지관 직원들이 발로 뛰며 '노인일거리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이제는 그 진가를 알아보고 서로 일을 맡기려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에 숙련된 어르신 기술자를 양성하고, 철저한 재고파악, 품질관리, 납품기간이행,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로부터 신용을 쌓았다.

특히 유명한 사업은 상자접기다. 어르신들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메리야스 상자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에 1백30만 장, 일 년에 1천5백만 장의 상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섬유와 종이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한 전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곳의 메리야스 상자 수요는 매우 높은데 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지역적 요구와 맞아떨어진 덕택이다.

올해 시작한 불교용품사업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8월 백중을 앞두고 벌써 예수재 용품 6만 개를 선주문 받았다.

서원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96명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노인일거리마련센터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건강용품을 제작하고 폐백음식 등을 판매하는 서원시니어클럽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전주/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숙련된 솜씨로 상자를 접는 어른신들. 전국의 메리야스 상자 50%는 이곳 어르신들 손끝에서 탄생한다.


"볼펜 조립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납품할 옷을 한땀 한땀 정성들여 확인하고 있다.


관장 덕림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은 노인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지역노인을 위한 일거리사업을 이끌고 있다.

◆어르신들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일거리사업장, 노인취업훈련센터, 고령자직업알선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복지관을 이용해 노인재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 관	프로그램	전화번호
서울노인복지센터	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훈련센터	(02)3210-0237~8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02)385-1351
서울성북노인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02)929-7950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	취업지원센터	(02)466-6242
고양일산노인종합복지관	취업훈련센터	(031)919-8677
수원서호노인복지관	취업훈련센터	(031)291-0911
대전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 유기농산물재배	(042)471-5545
전주서원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일거리마련사업센터	(063)227-7483
울산남구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사업	(052)265-5221
여수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061)685-2381
여수시니어클럽	천생연분 떡방, 먹거리사업단	(061)692-4555
경주시니어클럽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사 양성	(054)775-1950
의성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사업	(054)833-6006
대구남구시니어클럽	햇빛촌 떡방, 행복한 나눔가게	(053)471-8090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도솔산 떡방	(051)244-6700
부산금정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051)516-3045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과년호 한정판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 Email: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불교계와 제휴사업 왜 성공 못했나

마음에 쏙 들면 안 살 수 있나!

'불교계와 함께 하는 사업은 잘 된 것이 없다?'

기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다. 불교계로서는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이 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해보거나 종단 또는 사찰과 손잡고 사업을 진행해본 기업에서 흘러나왔다. 실제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휴사업은 큰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 과감한 인식전환 필요

국민카드사, 삼성카드사, 외환카드사,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 녹십자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KT, KTF….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 기업들은 불교계를 대상으로 카드보급, 보험판매, 핸드폰 · PDA 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인 곳은 조계종, 태고종, 조계사, 통도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다.

최근까지 사업을 추진한 조계종은 보험판매 대리업체와 손잡고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범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 운동은 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 운영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1년6개월여간 추진됐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02년 국민카드사와 손잡은 태고종 총무원은 소속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 사업을 추진했다. 카드사업은 1000명을 돌파했지만 카드업계가 '카드대란'을 맞으면서 카드 발급이 중단돼 한달만에 흐지부지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004년 KTF와 함께 '불자폰'을 개발해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불교소식과 사찰 · 불교단체 전화번호부, 그룹별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불자폰'은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 출시 석달만에 자취를 감췄다.

수익을 불교계에 환원한다며 물꼬를 텄던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는 "수익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태도를 접하고 실망스러웠다"며 "과감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교계에서의 수익사업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부정적 인식 아직도 많아
기업, 정확한 시장조사 · 면밀한 분석없이
인맥에 기대 졸속 추진 안했는지 원인 살펴야

◇마케팅 필수요건 결여

기업의 불교관련 상품개발자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기대이하"라고 입을 모은다. '기대 이하'라는 반응 속에는 최대 종교인 불교계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다. 정확한 시장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사업진출을 위해 필수조건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의 한 단면이다.

게다가 차별화 없는 상품의 질과 홍보부족은 제휴사업이 실패한 원인의 핵심이다. 차별화 없는 상품은 불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홍보부족으로 상품을 접해보지도 못한 불자들이 많은 것. 인맥이나 이용한 마케팅을 선호한 제휴기업들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됐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가 주신도층이고 스님과 신도들의 결속력이 다른 조직에 비해 떨어지는 등의 불교계 특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와 보험 등 상품의 주고객이 30대로 조사된 국세청과 생명보험협회의 통계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결국 제휴기업들은 시장조사, 상품의 질, 영업인력, 홍보 등 마케팅의 필수요건을 생략한채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태고종의 국민불자카드 사업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불자폰'처럼 시장 및 영업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교계 내부에도 제휴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공주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스님과 불자들은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목적은 보지 않고 현상만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누기운동'의 목적이 불교계의 주요현안인 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 운영기금 마련인데도 종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는 것.

'불자폰' 사업을 추진한 중앙신도회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에 집중하는 불교계 내부의 결속력이 부족해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내부문제를 지적했다. 또 불교계 스스로 영업력과 전문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해 상품구매 욕구를 제대로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휴사업 주체간 신뢰 부족, 종단과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불신도 제휴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불교계의 결속력이 약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불교계와 기업의 제휴사업은 애초부터 상품의 질이나 시장조사, 영업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된 경우가 많다"며 "제휴사업 실패가 불교계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분다의 경제학 (12)

잃는 것과 얻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앞두고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은 해당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나라의 한 쪽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다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 열기로 한 공청회마저 반대론자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비전문가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몹시 답답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개인 기업 국가 모두 변화에 적응해야
능력 · 경쟁력 창출만이 안정된 삶 약속
경제 이익 뒤 이웃 아픔 이해 · 대안 마련

우리나라는 이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보호해왔던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미국 기업의 우수한 상품에 밀려 도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새로이 경쟁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일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한국의 3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열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셀 수 있다.

현대, 대우, 쌍용, 한보 등 굴지의 기업들이 그 동안 사라져갔고 주인이 바뀌었다. 딱히 원인을 꼬집을 수는 없지만, 모두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 나아가 성장여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 개인도 기업과 똑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는 짚신 만드는 기술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듯이 개인도 변화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지속적인 능력과 경쟁력의 창출만이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약속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삶의 방식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정부와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적어도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지닌다.

일체(一切)는 무상(無常)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때 지구를 뒤덮었던 공룡들이 지구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듯이 개인도, 나아가서는 국가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 무상은 진리다.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했던, 살아왔던 과거의 조건과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삼법인(三法印)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강요당하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미 무역협정의 체결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의 이웃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은 이웃의 아픔을 대가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백련차 웰빙 3종세트



백련차 웰빙 3종 세트는 100% 백련잎으로 제조한 백련차와 백련꽃(18%), 백련잎(82%)을 혼합한 연화차, 100% 백련잎을 사용한 가루차를 세트로 묶은 제품입니다. 백련차는 그윽한 향과 맑은 색을 가졌고, 가루차는 백련잎차를 곱게 갈아 만들었습니다. 연화차는 새벽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백련꽃과 그 잎을 정성스레 제다하여 향이 깊습니다.

가격 : 73,000원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 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약사여래 정화수 약함

온갖질병의 고통을 소멸하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리라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 마치고 출시!

만수 실리 보살아.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통받는자가 있거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든자를 위해서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병자에게 약을 마시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것이며 죽을병은 구족해지고 병없이 오래살게 할 것이다. <약사경에서>

건강회복을기원하는선물로!
연꽃처럼다시피어나는건강!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하는 불광사에서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약함을 제작해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게 큰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정화수약함은 순금99.9% 금니로 제작하고 약함내부에는 온갖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장수하는 부처님 반장을 넣고 정화수약함 뚜껑에는 뱃속에 있는 악귀와잡귀를 물리치고 병고를 없애는 보발수진언을 넣었으며 뚜껑을 열면 정화수 잔이 들어있다.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영구히 사용할수있게 제작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현재 투병중인 분께는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일간 특별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선물로 인기다.

가격135,000원(현금 또는 신용카드 분할가)
규격 : 높이 20㎝×폭20㎝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사주주역강의
사주통달하게 찝어주는 책임지도
명리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정말 사주쟁이
역학 연구원 금강원
H·P011-9769-8868

경남 최고의 염불
천도재 | 예수재 | 점안식 | 바라춤 | 나비춤 | 태평소
수행과 보시로 집전대행
밀 양 055)391-3274
강정사 011-869-856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 천도재 49재 | 수륙재 | 예수재 | 바라나비춤 | 사물 |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점안식
1인스님 15만원
2인스님 25만원
3인스님 35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드립니다
부산경남지역만됨
010-7747-5222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귄 수행환경 이대로 둘것인가?
불자 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연화사 대웅전 신축불사를 부처님 은덕과 사부대중 원력으로 벽돌1장 세멘트 1포대 불사로 회향하게될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국민은행 638102-04-034244 조명옥
017-297-4097

사찰 처사 및 여사무원 모십니다
처사 : 운전가능하고 숙식가능
여사무원 : PC가능자, 숙식가능
▷경북영동
054)371-0101
011-378-2221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부산지역
011-5580-6221

기도예불스님 모십니다(비구니)
▷실상사-부산시 사하구 괴정
051)293-4569
011-889-1559

불심으로 스님모시고 한가족 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1-9778-0408

사찰(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운전가능자)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주 상계 2동 달마선원
02) 952-8131

공양주보살님 사무직 여직원 구합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744-1650
054) 744-422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덕
054) 733-8786

가족 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과 부전스님 (비구니)모십니다.
공양주 50-60대
010-4808-5794

사찰 종무원 구함
▷숙식제공, 20~40대
031) 283-3655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법사찰 중 염불스님이 필요한 大사찰은 전화주세요
054) 433-6315
010-4811-6787

토굴 암자에서 기도 같이 하실분
(불심 강한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경남 창녕
010-4518-3978

공양주 구함
▷50세 이하
대구 팔공산 신라천년고찰
011-9176-4403

조계종 고찰산사 내원암에서 신심있고 살림 관리할 40~50대의 공양주구함. 그리고 기도하고 관리할 비구니 스님을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에 평생 소원이던 아담한기도 법당을 창건한 불자입니다 법당에서 사용할 모든 법구 기구가필요하오니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계신 대덕스님께서는 불자님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법명 현장
016-466-2470

스님에게 천일 기도처 인연을 맺어주실 분 찾습니다
▷도심지 또는 시골
선망조상 가족모두 평생동안 기도해드립니다
016-9414-196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시
016-278-9166

사찰 운영 버스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54세
010-6476-6026

윤달든 해 조상님 산소 처방 안내
산소이장, 잔듸소멸, 쥐, 뱀, 여우, 두더지, 벌레 구멍방지 물이 고였거나, 흙이 나쁜 산소를 명당터로 바꿔지는 책자가 필요하신분도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7324-511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출 가 학 교 모 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19일(수) ~ 8월 8일(화) - 21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 교육비 전액 무료 ● 선착순 : 20명
● 문의 : 053)474-8228. 011-9852-0075(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조상영가천도
시부모영가 | 친정부모영가 | 태아영가 | 각종질병사고로인한 | 사별한 남편부인 | 조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체계있게 경전을 독송한 후 천도합니다. 가족에게는 삼재팔난 업장소멸하여 소원성취 됩니다.
대불정능엄신주, 우리말천수경, 지장경, 영가천도 책을 열심히 독송기도 하십시오, 필요하신분은?
체계있게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독송기도방법 지도
철야기도 가족과함께
대구팔공산 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오. 소원성취가 더 큼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학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마산 245-2662 안성 010-9242-035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법당 :
● 요사 : 120평
● 부지 : 50평
● 가액 : 7억8천

● 위치 : 경기(경계)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26,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 화성
● 건물 : 수십년된 기와집으로 즉시 개조 사찰사용 가능
● 부지 : 370평
● 가액 : 3억7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강원도 산수 좋은 곳 토굴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17-420-2200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광주 생활권
● 면적: 500평(무상임대)
● 건물 : 법당 1동 20평 등기, 속가형 한옥요사 방3개
● 연혁: 약 80여년된 아담한 산속의 고찰 토굴차 진입 가능
● 가액: 9천5백만원
011-288-666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정선, 소금강
● 화남8경,용마소,종유굴,화암신약수
● 빼어난 경관 명당1필지에 9470평 (임 5370평,전 4100평) ※관리지역
※ 사찰,펜션,방가로,콘도, 휴양지로 최적지
※ 진입로 잘 되어 있음
017-331-15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 부지 : 65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6천

● 위치 : 서울 포교당
● 면적 : 36평
● 전세 : 5500만원
● 시설비 약간
● 3층건물 중 3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가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00평
● 가액 : 9천 5천만원 (절충가능)
● 국부,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이접 요충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위치	부지	가액
• 밀양	약1000평	2억8천
• 서울	약 90평	4억2천
• 남양주시	약1800평	17억
• 부산	4층건물 (뒷산,약수터 도심포교최적)	1억 5천 (1억5천 융자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전세)
● 위치 : 경북 구미시 소재
● 부지 : 120평
● 법당 : 70평(3층), 산신각 70평(2층)
● 종무소 : 70평 (1층) 공양간 ; 30평(지하)
● 가액 : 전세 1억
● 특징 : 도심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 사찰임

● 위치: 경북 포항시
● 부지 : 200평
● 법당 : 40평(삼포,목조,단청)
● 요사 : 40평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 전세 3억원
● 특징 : 신도시에 위치한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3천만원
011-511-2609
064)748-20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근교
● 교통 양호
● 울창한 숲속에 아늑한 암자
● 답사후가격절충 스님외 전화 사절
011-527-54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동구 성내2동
● 평수 : 100평
● 법당, 방3, 창고1, 후원1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 월 150만원(관리비 별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292-1090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 (상가 건물 2층)
● 총평 : 40평,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60 (큰방,1개, 거실, 화장실 보일러) 10년전통
사찰,암자,포교당,운영, 각종행사 상담합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사찰 및 요양원, 양로원 최적지 (서울)
● 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대지 182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엘리베이터, 정자, 주차시설
※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정이전 관계로 안내함
02)3216-0572 / 3216-9011
011-441-19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8-543-0901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3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73-511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시내 근교
● 대지 : 90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511-7705

주 택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 여건 : 해발 약 300M 위치, 전망 좋음
● 내용 : 대지 약 100평, 건물 1동
작은 구들방1, 작은 보일러 방1 , 입식부엌 욕실(수세식화장실) 작은 마루1
● 가액 : 4000만 (설정 없음)
011-9454-8785
055) 963-7233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입구
● 건물 65평,법당 30평, 산신 용왕당 각 5평, 공양실 15평 ,소불 200불, 산신인등 100불
● 방 3개 주지실 , 공양간 별도, 신도 600명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3천 300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2)293-7328
011-556-55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동명
● 평수 : 385평 (대구에서 한시간) 기도장, 주방, 방 기타
● 산세수렴 기도도량
● 가액 : 90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7710-7875

토굴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으흥
● 평수 : 전 320평,건평 40평
● 흙집 소담집 벽 60cm이상 황토방 시설 수행 공부터로 적합
● 가액 : 3천 8백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863-6661

사찰 전세나 임대 구합니다
▷지역관계없음
010-8828-30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600평
● 고건물 대웅전(25평)
● 요사채 약40평
● 가액: 4억 (절충可) (전세도 가능함)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30-1808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하천부지 20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4평(복재), 산신당10평 위패당 및 납골당 85평
● 가액:16억 5천만원
031)543-6526

최고의 포교당안내
● 위치 : 동인천역 자유공원 입구
● 평수 : 50평
● 법당, 공양간, 방 4개, 욕실 2 (화장실 겸), 도시가스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32)772-5854
010-8453-0369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금남로5가 (충장로5가)
● 3층 중 2,3층 사용
● 평수: 총 40평
● 2, 3층 법당으로 이루어짐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163-474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평당 싯가 80만원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평리동 대로변
● 평수: 45평(3층건물 2층)
● 법당 25평,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친견실, 침실, 공양간, 음향시설, 단청 에어컨 기타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미만 협의
010-9511-4963

사 찰 안 내
● 위치: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영도 최중심가
● 평수: 30평
● 3층 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시설 최상급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7406-386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인접 서창 신도지
● 대지 : 60평
● 건물 1층 32평, 2층 29평 산신각 4평(단청필) 신축하지 3년(법당지설 A급)
● 가액: 2억 6천만원(대출 9천포함) 아파트 대단지 인구 10만 육박 주차시설편리
*꼭 필요하신 스님분만 전화바람
011-868-59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 건평 200평, 방 2개 입식주방, 기름 및 연탄보일러 겸용
● 창고, 텃밭 150평
● 가액:1천만원
054)632-93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산동
● 3층건물 1층
● 법당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4735-20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 건물 65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원불 108불, 신중탱화 (법당기본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별도
016-528-3736

좋은 因緣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명)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맞닿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백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010-2245-4862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 영동
● 평수: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집기일체양도
● 심야전기보일러, 용궁, 산신각 전망좋고 돌탑있음
● 가액: 1억 5천만원
011-491-2347
043)744-333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 평수 : 약 60평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권리금 800만원
010-9170-39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마리
● 법당 16평, 요사채 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성주읍
● 대지면적: 2300평 대웅면적: 300평 황토주택건평: 35평
● 전원주택지나 사찰로 적합함
● 가액: 5억 2천만원
010-6307-3111

사찰(급)안내
● 영천-건천 IC에서 20분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 가액: 1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불교대학 하시고 싶은 분도 아주 적합한 위치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도심 포교원안내
60평의 포교원을 잘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비구비구니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부산 중구 3층 전관 EV有(관리비 없음)
● 법당 24평에 접견실2 방3 주방2(한옥식시설) 삼존불 무료 보시함 인수하실분 또는 운영하실분
● 가액: 현재 보증금 4500만원 월 25만원(전월세 조절가)
0502-888-0119
010-9250-2358

사 찰 안 내
● 교통, 관광, 경남일대 최고의 위치
● 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20분거리)
● 부지: 약1200평 주차장100여평 잡500여평, 田280여평 매실나무 70여 그루
● 특징: 도로 1.5km 사찰소유 100% 포장 버스운행가능
● 건물: 65평 입법당, 방7개, 부엌2개, 욕 황토방, 사찰 뒤 8부 능선 200평 토굴집, 창고2, 비닐하우스
● 가액: 1억8천만원 협갚 매매 (주지 교통사고로 운영 불가능)
055)884-0208
011-866-7372

주 택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 여건 : 해발 약 300M 위치 전망 좋으며 석간수 있음
● 내용 : 대지 약 300평, 건물 2동 본채 : 방2, 입식 부엌, 욕실, 마루 별채 : 구들방 1, 창고
● 가액: 9000만원 (설정 없으며 절충 가능)
055)963-7233
011-9454-8785

희소식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사찰
● 가액 10억
● 종교집회장 5100평 전체관리지역 평당 20만원
● 곤지암 전원 주택단지 5500평 평당 25만원
● 요양원 최고 유황물 6000평 평당 20만원
● 가액 10억
모두를 불교재단에 불사하겠습니다
031)767-0837
033)462-3613

사 찰 안 내
● 위치:청주시내 충북대학교 약 200M 시장 약 200M 공단오거리 약 200M
● 대지 50평
1층 요사, 방 4, 주방, 화장실, 거실
2층 요사, 방 3, 주방, 화장실, 거실
3층 법당, 지하창고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010-6460-1316

“봉정사 후불탱화, 고려 화엄사상 담겨”

이효걸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고려 불교사상을 그대로 담아낸 ‘살아 있는 목조사찰 박물관’입니다. 특히 대웅전의 후불탱화와 범문자 단청은 고려 후기 화엄사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안동대학교 이효걸 교수(사진)는 ‘안동문화의 수월성과 종합성’을 주제로 7월 7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국학진흥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려시대 조성된 그림에 중창때 계속 덧칠”

‘미륵하생도’ 통설 비판… “화엄종-밀교 결합”

이 교수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후불탱화를 통해 고려시대 지역불교의 신앙형태와 사상에 대한 중층적 접근을 시도했다. 논문 ‘고려시대의 안동불교’에서 이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의 의미’ ‘범문자 단청과 화엄사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고려 후기의 화엄사상의 변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후불탱화는 <봉정사탁자조성기(1361년, 공민왕10년)>와 <법당중수기(1435년)>에 담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그림에 중창 때마다 계속 덧칠한 것이 확실하다”며 “후불탱화와 우물천정의 문자단청, 고주와 대들보의 용 그림 단청, 고법 금단청, 순각박의 주악비천상 등은 당시의 신앙 형태와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봉정사 극락전 후불탱화는 미륵하생도’라는 통설에 대해서 △그림 내용과의 불일치 △<법당중창기>의 다각적 해석 가능성 등의 실례를 들며 반증을 펼쳤다.

<법당중창기>의 다각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미륵하생도는 미륵전이나 용화전의 후불탱화이지 대웅전의 후불탱화가 아니라며 이글은 또 대웅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봉정사의 전반적인 불사에 관한 기록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를 화엄경적 영산회상도로 한 것은 고려시대가 끝날 때까지 봉정사가 다른 종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지 않고 여전히 화엄종 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는 곧 고려시대의 화엄사상과 신앙이 어떻게 전승 ·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말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정사 대웅전 후불탱화는 당시의 화엄사상 변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어칸 천정에 육자대명왕진언을 새겨 넣은 이유는 당시 고려 불교가 화엄종과 밀교의 결합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려 말기의 밀교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이 원나라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고 그 핵심 다라니인 육자대명왕진언이 크게 유행해 지역의 화엄종 사찰인 봉정사 중창에 신앙의 형태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포벽화와 창방 · 평방의 그림 단청을 포함하는 대웅전 외단청은 장식을 위한 무늬가 아니라 불교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52선지식을 찾아 다니며 보살수행을 닦아 마침내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화엄경의 구도 이야기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즉 고려 후기에 원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밀교적 신앙과 당시에 유행하던 <화엄경> 입계품 선재동자 편력행 이야기를 대웅전 안팎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남대 김호동 교수는 “봉정사 대웅전의 불화를 통해 고려후기의 불교 사상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제반 근거 자료를 활용해 유추 해석한 부분은 매우 적절하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시대 전체를 통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봉정사에 남아있는 국한된 자료조사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탄허 스님 ‘장자남화경’ 인터넷 오디오 강의



탄허 스님(사진)의 <장자남화경>강의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탄허문화재단(이사장 혜거)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교 사이트 탄허닷컴(www.tanheo.com)은 7월 15일부터 <장자남화경> ‘내칠편’ 육성강의를 내보낸다.

탄허 스님의 <장자> 강의는 선(禪)의 입장에서 도교와 유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병철 기자

고미술품 1500여점 한자리에

7월 12일부터 한국고미술대전 반가사유상 등 귀한 작품 많아

불교문화재 · 도자기 · 고서화 등을 한 곳에서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고미술 1500여점을 전시하는 ‘2006 한국고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박물관 소장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시가 140억원의 가치에 달할 정도로 진귀한 작품들이 대거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의 최고 볼거리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11.9㎝)’(사진). 이 반가사유상은 머리에 높은 보관(寶冠)을 썼는데 보관양식은 이른바 삼산관을 이루고 있다. 금동 도금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송죽매인물문항아리(38.0×17.7×18.8㎝) 또한 이번 전시회의 다크호스’. 궁중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그려 기품이 있고 정교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청화백자 중에서도 단연 최고급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청자철채동자형연적’, ‘청화백자반용문각병’ 등도 좋은 볼거리다.

노병철 기자

박선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종교교육학연구’ 발간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동국대 교육학과 박선영 교수(사진) 정년퇴임을 기념해 논문집 <종교교육학연구>를 발간했다. 논문집에는 ‘불교와 교육’을 주제로 한 기획 논문 6편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을 연구한 논문 6편이 수록돼 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6>

디스플레이 기술

한적한 산사에도 TV(television)는 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컬러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각으로 전해지는 정보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

1900년대 말 독일의 과학자에 의해서 브라운관이 발명되고 나서, 인류에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공기로부터 전해 진 신호를 분리해서 증폭하는 기술과 증폭된 신호를 받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가장 먼저 개발된 디스플레이 기구가 브라운관.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방사하는 전자총이 맨 뒤에 위치해 전자를 방사한다. 전자는 브라운관 표면으로 향해서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때 브라운관 표면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도착한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빛을 내게 된다. 밤을 밝히는 형광등 또한 표면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방전에 의해서 생긴 전자를 받아서 빛을 낸다. 브라운관의 단점은 부피가 크다는 데 있다. 전자 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에너지를 얻기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 기술이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플랫 패널 기술이다. 말 그대로 평판에서 만들어 진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LCD 기술과 PDP 기술이다. LCD는 백색광을 내는 판 위에 액정(Liquid Crystal)이라는 특수 물질을 바른 후, 이 액정의 부분 부분(이를 픽셀이라고 한다)이 빛을 통과하거나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상을 표현한다. 액정의 양단에 전압을 가하면, 물질의 광학적인 성질이 변하여 빛을 통과하지 않는 액정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PDP기술은 픽셀에 플라즈마 방전을 시켜서 전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빛을 내게하는 장치다. 플랫 패널기술에 의해서 TV나 컴퓨터의 화면 부피가 작아지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PDP기술을 넘어서 접거나 둘둘 마는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한다. 종이로 만든 공책 대신에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글도 쓰고 책의 내용도 무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나온다면 통신 · 공부방식 등 일상생활 크게 달라질 것

선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혁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인쇄기술을 개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로 팔만대장경과 같은 세계적인 유산을 남겨놓았다. 중세 기독교의 성경이 라틴어로 기술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불경 또한 대부분이 한자로 적혀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대를 사는 불자들의 보살행이 아닐까 싶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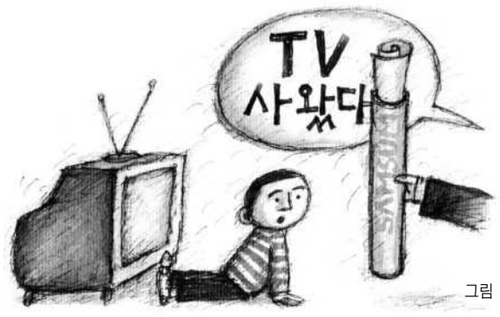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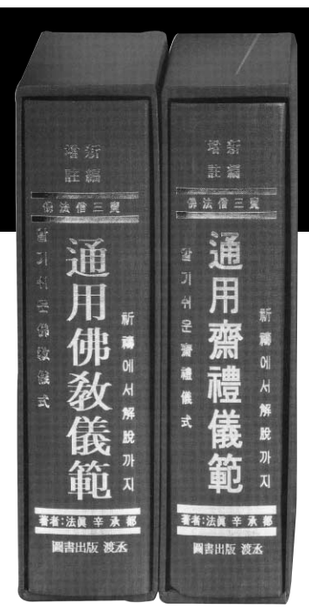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제2장 예 경 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 생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제9장 이 운 편	제10장 수 계 편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제2장 장 의 편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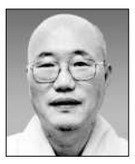
지성 스님 용연사 회주 추대

前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7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용연사 극락전에서 봉행되는 법회에서 용연사 회주로 추대된다. (053)616-8846



광동학원 소속 교직원 연수회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7월 19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법인 소속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불교 연수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개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원택 스님은 7월 24~27일 경남 남해 일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02)723-6165



제1차 사찰 경영연구 세미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은 7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사찰 경영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포항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은 7월 24일 오후 7시 그랜드M호텔(구 시그너스)에서 열리는 법회에서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다.



'생활과 염불선' 주제 법문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7월 15일 광주 호국 관음사에서 열린 군·민 합동법회에서 '일상생활과 염불선'을 주제로 법문했다.



삼국유사 대제전 기념음악회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7월 28일 오후 7시 30분 경내에서 삼국유사 대제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054)383-1161



'밀교신문' 제14대 편집인에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호당 정사(실상심인당 주교)는 7월 1일자로 밀교신문 제14대 편집인으로 임명됐다. 호당 정사는 제11대 종의회 의원,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제2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열어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7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대문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한국의 소리와 몸짓' 공연을 한다. (02)2278-5452



편집·출판 '중도기획사' 설립

한국불교신문 신원식 前 편집국장은 7월 18일 서울 충무로에 불교전문 편집·출판 기획사인 '中道기획사' 사무실을 열었다. (010)6801-1614

와사(WASA), '풀뿌리 운동' 인수 설명회

"좋은 인연 많이 맺어야죠"



티베트스님 후원 '1인 1구좌 갖기'
봉사 확대 및 기존사업 지속 전개

지난해부터 현대불교신문사가 벌여 온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을 인계받은 '세계침술봉사협회(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WASA 이하 와사)'가 7월 12일 현대불교신문사 법당에서 회원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사진)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의학·예술·종교 분야 등 범문화적인 상호 교류 프로젝트로,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연계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하자는 목적아래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간에 다양한 인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에 따라 티베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여 티베트 최고의 승가대학인 가덴장세놀링대학(Gaden Jangtse Norling College)과 비구니 교육기관인 잠양 쵸링(Jamyang Choling Institute), 티베트의 대표적 사원인 규토사원(Gyuto Monastery)을 후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풀뿌리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해 왔던 풀뿌리 운동 대표이자 현대불교 경영총괄본부장인 청월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티베트의 대표적 승가대학인 가덴장세대학 등 티베트 불교에 6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며 "이 사업을 이어받은 와사가 풀뿌리 운동을 훌륭하게 전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사 이홍재 회장은 "현대불교와 풀뿌리운동과의 지중한 인연을 와사의 2500여 회원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이 운동이 여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와사 인성준 사무국장은 사업설명회에서 △가덴장세 승가대학에 의대를 설립해 침술을 가르치고 이들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인도·네팔·부탄·몽골 등 티베트 스님과 티베트 난민이 있는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및 자매결연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의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역점"

interview 신임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불교문화사업에 모든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기 위해 공모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새 사령탑으로 업무를 시작한 종훈 스님(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종훈 스님은 최근 문화사업단의 지원금 운용과 관련한 잡음을 의식한 듯 "합리적 견제장치를 만들어 예산의 관리보다는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훈 스님은 "불교문화사업=템플스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제, 템플스테이는 전체사업의 일부일 뿐이며 앞으로는 불교문화컨텐츠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용수 기자



서울상주 외신기자단
지관 원장 예방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13일 서울상주 외신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ABC뉴스 이동빈 주한특파원, 중국 인민일보 서보강 서울지국장 등 20여명의 언론인들이 동참했다.

서주석 청와대불자회 10대회장 취임식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이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와대불자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총지종 우승통리원장, 김장실 문광부 종무실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사부대중 2백 여명이 참석했다.

'청정운동 신행단체지도자연수' 개최



청정운동추진위원회는 7월 8~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국제포교사회, 포교사단, 대불련 총동문회등 전국 30여 신행단체 대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6-청정운동 신행단체 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송석구 청정운동추진위원장과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육군 50사단 삼련사 군장병 수계법회



육군 50사단 호국수행도량 심련사(주지 상적)는 7월 9일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287명의 군장병들이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이날 허운 스님은 "계는 불자로서 뿐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됐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구미 보현의집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 마하부다 구미 보현의집(대표 진오)은 7월 9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에서 온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리켓, 배구, 농구 등의 경기를 즐기며 타국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랬다.

문수청소년회, 청소년 성교육 1학기 회향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는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성문화 양성을 위한 '성매매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1학기 과정을 회향했다.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된 1학기 동안 진부중, 원주 문막중, 원주 대성중, 계촌중 등 6개교 학생들이 참여해 올바른 성가치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화제의 신간

21세기 다시보는 풍수지리

智山 風水地理要訣 【제1권】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기 형기 현공 양택 산사주학 비법
신개념의 풍수가 한눈에 쏙쏙!

이것이 바로 기둥이요 뿌리라!!!
신 풍수지리 완결편 지침서 길잡이!!!

- 주역팔괘 방위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기학
- 좌향과 해운에 따라 후손에게 미치는 산사주 비법
- 해운과 좌향 변화에따라 변하는 현공학
- 지형지세와 용맥 변화에 따른 형기학
- 간산(산소 감정) 요령
- 각종 택일
- 장의절차와 상례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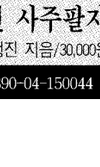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金 根 夏 지음 / 신국판/양장본 / 736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6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02) 921-8434 Fax.(02)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불자 세상보기

강 삼 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말 많은 조세정책

올해 들어 가장 큰 뉴스거리는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방송을 뒤흔들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며칠 전부터는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놓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 곳이 재산세를 10%에서 50%를 감면했는데, 강남구의 경우 50%를 낮추어 주었고 송파구는 이에 뒤질세라 40%, 양천구와 서초구도 30%를 감면하였다. 이렇게 각 구별로 재산세 감면비율이 다르다 보니 가격이 조금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생겨서 조세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는 사람은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탄력세율의 적용 폭을 줄이는 등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초단체들은 재량권 축소라며 항의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을 주장하는 정부와 재량권 유지를 주장하는 자치단체 중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단지 탄력세율 축소 문제 자체에만 시각을 한정한다면 양 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셈이다.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구와 같은 일부 부자동네들 때문에 조세형평성이라는 큰 줄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조세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동시에 수십 곳의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보상자금이 배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제적인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던 때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은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 집중되고, 정부의 주장대로 일부 투기세력도 가세하면서 결국은 부동산 급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투기세력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로써 재산세인상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인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본래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란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면서 국가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국토개발 계획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십수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참을성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2002년 말부터 여러 번 급등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그 때마다 투기세력에 증오감을 불태우며 이를 압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부과는 당연히 시장에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금번에 발생한 조세역전현상도 결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중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세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도 정부당국자는 듣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외에도 귀를 열 줄 아는 진정한 관리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남부지역을 휩쓴 태풍 애니위아가 남긴 상처가 너무도 크다. 화마로 온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낙산사는 산불로 사라진 숲 탓에 이번 폭우로 축대까지 무너져 내린 모습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한다. 올해 첫 태풍에 전남 곡성 도림사, 해인사 산내 암자, 부산 범어사, 통영 용화사, 남해 화방동산, 울산 보덕암 등 수많은 사찰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또 닥쳐올 태풍을 생각하면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

주로 산중에 전통사찰이 많은 불교계는 산불이나 폭우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매년 여름 물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무대책인 채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기'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다.

불교계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대응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지만 아직도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예방 시스템이 먼저

부서나 시스템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도 무대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수해 피해를 집계할 때 소나 돼지 창고 등 사소한 것까지도 파악하지만, 민족의 정신이 담긴 문화재 피해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기는 문화재청도 매한가지다.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은 사전의 방재시스템 구축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고치기'의 수준에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로 두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수재와 화재 등으로부터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점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완비해야 한다.

매년 수해피해의 심각성을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인력과 예산이 배정돼야한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총무원에서 전담 TF부서를 만들어 신속하게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낙산사 화재와 이번 태풍의 피해를 거치고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때마다 한탄만 하고 말것인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는 정부와 불교계가 실망스럽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학생 몰리는 산골중학교

천 개의 문장을 왼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왼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7월 14일 모 언론에 도시 학생들이 몰리는 산골 중학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농촌에, 그것도 교육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화제의 이 학교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 중학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폐교 위기 당시보다 5배 가량 학생수가 늘어났으며, 인근 전주와 익산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영남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됐다.

그 이유는 전인교육과 특화교육에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명상을 한 뒤 수업을 시작한다. 학생 모두가 피아노건 태권도건 특기 한 가지는 익혀야 한다. 보통 악기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룬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사나 방문객을 만날 때마다 하루 몇 차례건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수업은 영어와 수학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등 심화학습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로 호흡하면서 높은 학습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학교가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교육은, 세상은 이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선의취득이라도 아미타극락회상도 돌려줘야" 압도적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양사의 반환 요구에 대해 박물관측은 장물인 줄 알 수 없었다는 논리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에 걸쳐 박물관이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할 것인지를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박물관측이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9명의 응답자 중 83%인 74명이 "선의취득규정을 성보문화재에 적용해선 안 된다. 돌려줘야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7%인 15명은 "선의취득이 입증되면 돌려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심행'이라는 대화명의 독자는 "반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불화가 유통된 경위가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 '아침이슬'이라는 독자는 "선의취득이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선의취득이라 해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돼 백양사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측은 선의취득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돌려줘야 할까요?

선의취득이 입증되면 돌려줄 필요 없다.	15 명 (17 %)
선의취득규정을 성보문화재에 적용해선 안 된다. 돌려줘야 한다.	74 명 (83 %)

사미의제 지도감독에 만전

현대불교신문 586호 4면의 '의제통일' 관련기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모 스님이 지난 5월 기본교육기관인 모 종립대학 구내에서 사미의제를 하지 않는 예비승을 적발했지만 아직도 교육원의 사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기사를 본 일부 스님들은 교육원이 학인들의 사미의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학인들에 대한 사미의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의 기본인 승가의 위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호법부와 공동으로 사미의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고는 있지만 행정적 절차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발자에 대한 처리는 상 ·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지도감독 결과를 집계중이며 조만간 적발된 학인 스님들에 대한 일괄 조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은 법계에 따른 승가의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창훈(조계종 교육원 교육팀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 · 진 · 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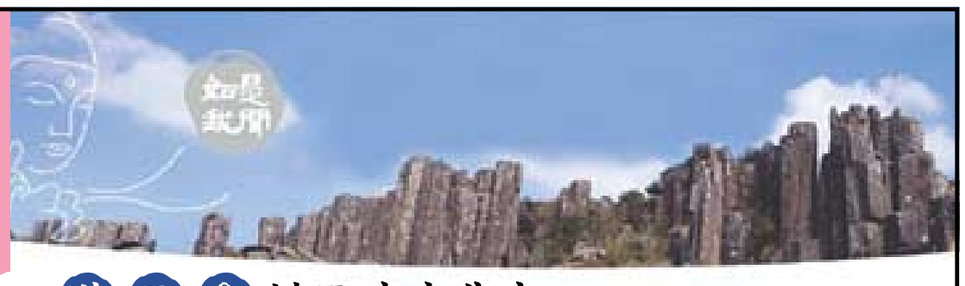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7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587 호



도봉구 지체장애어르신들에게 3년째 무료점심공양을 하고 있는 이탁송씨. 그의 삶 최고의 목표는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세상만들기'다.

'큰아들' 노릇 잘 해야죠

서울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 이탁송 회장

"이 회장 보시게나. 친아들 이상으로 우리들을 보살펴주니 뭐라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펜을 들었소. 한글도 못 깨우쳐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는데 이 회장이 만든 야학 때문에 이젠 제법 손주 너석과 영어로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네. 그뿐인가. 늙은이 혼자 끼니 때우는 것도 여간 큰일이 아닌데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심 덕에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도 나누며 즐겁게 식사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네…."

해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만 되면 아니, 일년 365일 내내 도봉구 지체장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정성어린 선물을 받으며 그들의 영원한 '큰 아들'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장 이탁송씨(54)다.

이씨는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재활사업단체인 '홀로서기'와 장애인체육진흥단체인 '한국장애인역도연맹'을 이끌어왔다.

특히 2003년에는 다 쓰러져 가는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를 맡았다. 지체장애어르신 200여명에게 무료 점심공양봉사를 시작했다. 워낙 규모가 큰 복지사업이라 구청이나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을 법도 싶지만 사무실 임대료를 빼고는 모두 이씨의 자비로 운영되고 있다. 하루 1인당 식비는 약 2천원. 200여명을 상대로 3년째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 인근 불우청소년들이나 한글을 미처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야학단체 '유레카 스쿨'도 개설하고 있다. 유레카 스쿨의 컴퓨터 교양 강좌는 이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단연 '인기 만점'. 이 시간만큼은 추억의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며 잠시나마 옛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주상보시'를 설하셨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도봉구에는 1만 50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만 구청이나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살 때 아파트 건설 현장 3층에서 추락해 손과 발을 크게 다친 이씨.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터라 자신의 몸 상태보다 당장 동생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무작정 삼각산 도선사를 찾았다. 우연히 만난 청담 스님. "3000배 하면 네 소원을 들어 주마"라는 스님의 말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로 죽기 살기 3000배를 마쳤다. 그 후 이탁송씨와 동생들은 스님의 도움으로 도선사에 3년 정도 머물며 학업을 마쳤다.

자비 들여 지체장애어르신들에 무료 점심공양 수년째
한글 모르는 노인들 위한 야학 '유레카 스쿨'도 개설
실업 해소 위해 2010년까지 '자립작업장' 건립 예정

그런 다음 전국을 떠돌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택시운전 등을 해가며 어렵게 모은 종자돈으로 자그마한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을 세웠다. 이제 고생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돈 많고 마음씨 좋은 장애인독지가'라는 소문 탓인지 정체모를 장애인 200여명이 이씨의 회사 앞마당에서 야시장을 벌이면서 공장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말이 야시장이지 폭력이 난무해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다. 이씨가 겪어야 했던 모진 운명의 굴레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1991년에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도와 철거요원들과 대항하다 몸을 다쳐 6개월 간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절망으로 모든 것이 귀찮았지만 수행으로 극복해 냈다. 이씨는 매일 아침 108배와 천수경 염불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절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허허허) 불편했던 다리를 지금처럼 걸을 수 있게 해 준 것도 사실 절 수행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씨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풍토가 남아 있어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

지체장애인들 중에는 뇌졸중과 교통사고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이중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씨는 힘주어 말한다.

특히 이씨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한 안마사 자격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해 '장애인자립작업장' 구축에 힘써야 할 때"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병뚜껑, 옷걸이 제조 등 단순화된 제조 공정에만 참여한 것이 고작이지만 판로가 확실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규격 쓰레기 봉투 등을 만드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이 많이 설립되면 장애인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이씨는 생산부문과 관리부문을 합해 100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도봉장애인자립작업장'을 2010년까지 완성할 계획에 있다.

도봉장애인자립장이 완공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혼 장애인들을 위한 결혼 정보센터도 운영되고 지금의 유레카 스쿨도 확대해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결혼 정보센터는 국내 장애인과 국외 장애인 맞선 주도, 국내 농촌 총각과 해외 처녀 맞선 등을 통해 사회문제로까지 떠올랐던 '장애인 · 농촌 총각 결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에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의 신체는 초개성적인 것일 뿐 입니다. 비록 팔, 다리는 불편하지만 장애우들 모두가 정상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마음의 장벽을 넘어선 '행복한 세상'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노병철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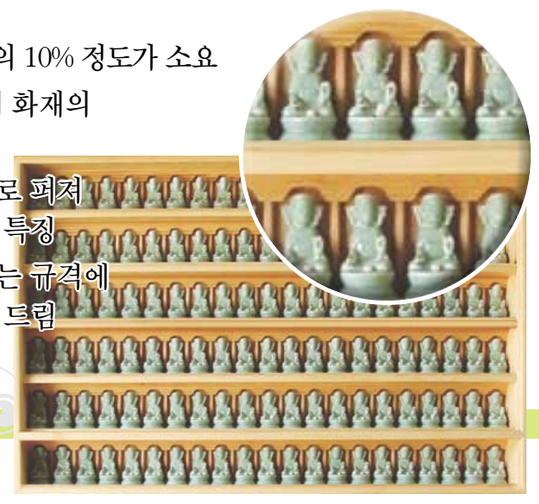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1>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후두후둑 장대비가 쏟아진다. 담장의 비에 젖은 능소화가 붉은 기운을 더하면서 오히려 더 찬란해진다. 땅바닥에 꽃잎 그대로 뚝뚝 떨어진 놈은 흥건한 빗물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빛깔이다.

누군가 그랬다. 질 때의 초라함을 보이기 싫다고 한참 피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 늦은 봄날 남녘의 동백꽃이라 한들 이에 비기겠는가.

한참동안 그 꽃잎을 바라보며 빗소리에 함께 취했다.

경청도부(864~937) 선사가 비오는 날 시자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빗방울 소리입니다."

선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이 전도(顚倒)되어 자기조차 잃어버리고 빗소리만 따라가는구나."

이에 시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시자를 힐긋 쳐다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잠깐 내비치더니 말했다.

"나도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뻔 했다."

그렇다. 깊은 산 속에서 문을 닫아걸고 여름안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 어김없이 장마철이 온다. 예민하고 명징한 의식 속에서 그 비는 나를 잃어버리게 할 만큼 매력적인 소리임을 인정하는 선사의 솔직함이 오히려 더 빛나 보인다.

앙산혜적(803~887)선사가 비 오는 날 어떤 납자에게 말했다.

"좋은 비(好雨)로구나."

"네에~ 참 좋은 비입니다."

또 걸려들었다. 바로 되돌려 다시 비수가 되어 그대로 가슴에 꽂힌다.

"그 좋다는 것은 비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

납자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추스렸지만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답을 알고 싶으면 그대가 나에게 다시 묻거라."

물론 이는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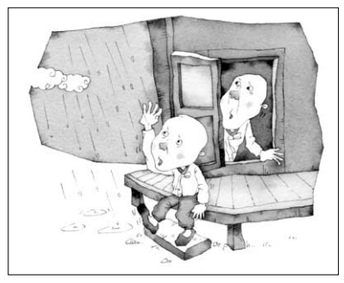
"좋은 비라고 하였는데 그 좋은 것이 비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선사는 아무말없이 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일 뿐이었다.

빗소리에 홀리면서도 그 홀림은 그저 단순한 홀림이 아니라 주객(主客)이 합치되듯 나와 빗소리가 둘이 아닌 경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안거 제도는 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우기에도 아랑곳 않고 돌아다니며 나뭇잎을 상하게 하고 개구리 지렁이를 밟아 죽인다'고 비구들의 '무자비'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설사 사문들의 발밑이 아니더라도 개구리는 빗속에서 뱀을 만난다면 괴로운 중생이 된다.



하안거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장대비 소리에 마음 빼앗긴 선사
"나와 빗소리 둘이 아니로구나"

경천 선사가 비오는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물었다.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인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소리입니다."

"중생의 삶이 고(苦)라고 하더니, 정말 괴로운 중생이 있구나."

이 이야기는 동산양개(807~869) 선사에 의해 버전이 업(up) 된다

"뱀이 개구리를 삼키고 있는데 구하는 것이 옳은가? 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구하자니 (무서워서?) 엄두가 나지 않고 그대로 두자니 자비심 없는 짓이다. 생태계의 순환구조에 인위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과연 연기(緣起)법칙에 맞는가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침묵이 제일이다. 그러자 선사가 대신 대답했다.

"구해도 두 눈이 멀어버릴 것이며, 구하지 않는다면 형체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구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이는 피아(彼我)를 분별하는 까닭에 내 지혜의 눈이 멀어져버릴 것이요, 구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불쌍한 개구리는 결국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위빠사나수행, 정신치료 효과 크다

불이회 법담회서 전현수 원장 발표



위빠사나 수행이 정신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0년 전 불교에 입문해 공부해오다 3년 전부터 위빠사나 수행에 몰두해오면서 그 경험을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전현수(사진) 원장. 전 원장이 7월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불자교수회인 '불이회' 법담회에서 위빠사나 수행이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정신과 의사가 경험한 위빠사나 수행-위빠사나 수행의 정신치료적 유용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전 원장은 지난 5월 미국 LA에서 세계 각국의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SEPI(Society for Exploration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 정신치료통합모색학회)' 제22차 세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현수 교수가 이날 발표한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7월 12일 열린 서울대 불자교수회 '불이회' 법담회에서 전현수 원장(왼쪽 아래에서 두번째)이 논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고통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했더니 대부분 '고통 사라졌다' 응답

▲위빠사나 수행이 정신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위빠사나 수행을 하다가 모기에 물렸다. 가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니 가려움의 정도가 훨씬 적어지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모기에 물렸지만 처음 물렸을 때보다는 가려움이 덜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체적 통증 치료에 위빠사나 수행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신적인 고통의 경우는 효과가 신체적인 고통보다 컸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내 몸과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것을 느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거나 고통 그 자체를 관찰하면서 고통이 훨씬 덜해지는 것을 체험했다. 바로 이런 육체적 정신적 수행체험을 정신치료 대상자들이 그대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행경험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나?

–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경험은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위빠사나 수행을 정신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신치료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정신치료적 바탕이란 정신과의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말하는데, 자기의 치료경험을 분석하고 올바른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전문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정기간 위빠사나 수행을 해서 치료에 적용해야만 문제가 없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수행력과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상치료에서 보인 효과는?

–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현실감각'이 실종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위빠사나 수행체험을 이야기해주고 환자 당사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것을 권했다. 그 뒤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니 환자 대부분이 그 고통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은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환자들 대부분은 과거가 작용하지 않는 현재의 고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명상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자기를 지켜보는 힘이 생기면서 자아가 강해짐을 느끼게 된다.

▲위빠사나 수행과 정신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

– 위빠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를 놓는 훈련'인 것이다.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결과를 현재 받게 된다. 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치료는 정신장애나 정신 불건강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과거에 바탕을 둔 미래에 집착하며 현실이 실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할 뿐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은 없어지고 망상이나 환각으로 현실이 대체된 경우를 정신병이라 하고, 정신병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세상을 살면서 불안과 우울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위빠사나나 정신치료의 핵심은 '현실'이며, 위빠사나 수행이 정신치료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정신치료에서의 '현재'가 갖는 의미와 위빠사나에서의 '현재'가 갖는 의미는?

– 시간적 · 공간적으로 의미는 같다. 과거나 미래는

과거 · 미래에만 집착하는 환자들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통해 치료 일상 생활로 이어질때 재발률 적어

아쉬움과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런 것이 없다. 걷고 있으면 걷는 것에, 밥을 먹고 있는 것에, 보고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을 뿐이다. 정신치료는 그렇게 마음이 가 있는 현재를 알게 해 주는 것이고, 위빠사나 수행은 그 현재를 보는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이 적용된 정신치료의 재발률은?

–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며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빠사나 수행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는 재발률이 훨씬 적다. 왜냐하면 위빠사나 수행은 현재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생활로 이어지면 그만큼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서울 상봉터미널 금란교회 채림은행 원커힐호텔 망우고개 중구능 덕소 팔당 도농삼거리 양평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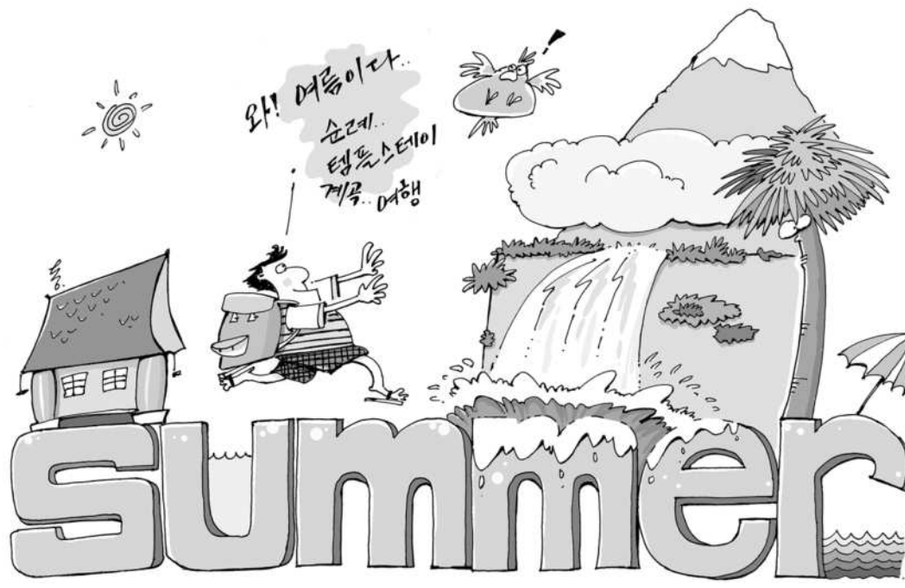

◆조립식 방가로 No-1210 7000×4000×3300(mm) 가격:6,800,000
◆이중창 이중벽 황토흙 방가로 No-2100 7200×4700×3300(mm) 가격:8,500,000
물,흙속에서도 썩지 않는 기둥,들마루는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이
주말농장,휴양림,펜션,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함(원하는 사이즈 주문 생산가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흙 벽돌
◆물로 청소하는 평상 No-1540 1800×1030×350(mm) 가격:190,000 ⇨ 할인가:150,000
◆물로 청소하는 벤치탁자 6인용 No-1530 1500×1700×750(mm) 가격:450,000 ⇨ 할인가:38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원두막,kr/평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 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꼭 하고 싶은 것’ 부터 찾아라

신행단체장들이 권하는 ‘알찬 여름휴가법’



저렴한 비용으로 알차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는 여름휴가철. 이리저리 고민해보지만 아무리 따져 봐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금상첨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장 9명이 권하는 ‘알찬 휴가’를 테마별로 그들의 경험담을 곁들여 소개한다. 이들이 권하는 휴가 보내기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 사람에 치였다면-참선 프로그램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없다. 일보다 인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인. 이런 사람들에게 단기 참선 프로그램이나 수련 프로그램이 좋다. 이런 프로그램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각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어 일정을 잡기에도 용이하다.

“사람을 대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하심(下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정인들이 재소자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가 바로 하심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남을 설득할 수 없지요.”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변동윤 회장은, 휴가기간 동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 편안한 여행 원한다면-사찰순례

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얼마 전 다녀 온 사찰 순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올 여름 휴가도 사찰 순례로 보낼 계획이다. 1박2일로 축서사 부석사 청량사를 돌면서 스님 법문도 듣고 사찰에서 주는 상추쌈으로 식사도 하면서 편안함을 마음껏 즐겼다고.

“사찰순례는 마음 맞는 친구끼리 가면 정말 좋아요. 뭐랄까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보는 모든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다져진 우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선희 회장이 사찰순례를 권하는 이유다.

▶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템플스테이

늘 바쁜 부모의 일상, 어느새 ‘끼리 문화’에 젖어들어 부모 품에서 멀어진 아이들. 대화는 고사하고 얼굴을 맞대는 시간조차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가족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하루 이틀을 보낸다는 것 외에도 가족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몸과 마음을 쉬면서 정까지 나눌 수 있으니 금상첨화.

“지난 여름에는 제가 바빠서 딸들만 보냈는데, 올해는 꼭 같이 갈 생각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저는 꼭 템플스테이를 권해요.”

이탁수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장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조홍인 회장은 템플스테이를 강력하게 권한다.

가족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에는 ‘가족의 장점 찾기’ ‘화 다스림 명상’ ‘함께 손잡고 걷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평소 몰랐던 가족의 마음까지 살펴볼 수 있다.

▶ 조용히 쉬고 싶다-산사 낀 계곡으로 가라

한가롭게 푹 쉬고 싶다면 바다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계곡이 적당하다. 이럴 때는 산사에 인접한 계곡이 좋다.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가 인근 산사에서 들러 기도도 하고 자연과 마음껏 대화도 나누고….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이경재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곳은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 경계에 있는 국립공원. 단양의 남천계곡과 다리안 계곡, 서남쪽으로 희방계곡, 금선계곡 등이 있고, 단양쪽으로는 구인사 영주쪽으로는 희방사와 비로사 초암사 등의 사찰이 있다. 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백담사 계곡을 강력히 추천했다.

▶ ‘나’를 찾고 싶다- ‘홀로여행’을 떠나라

자신을 잊고 사는 현대인. 명상이나 수련센터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바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름휴가는 짧지만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교수불자연합회 김용표 교수는 명상이나 수련도 좋지만 ‘홀로 여행’을 권한다. 김 교수는 “세상과 유리된 공간에서 혼자 남아있게 되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거나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자기를 만날 수 있다”며 “올 여름 휴가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여행을 해보라”고 말한다.

▶ 보람을 찾고 싶다-봉사활동을 하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을 실천해보는 것도 삶을 살찌우고 휴가를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

대불련 신보라 회장은 올 휴가기간 동안 리더십 캠프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편안하게 보내는 것만이 휴가가 아니라 자기를 단련하는, 즉 ‘사서 고생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은 이런 사회활동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 건강에 소홀했다-건강검진을 받아라

직장인들이야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이런 사람들은 몸에 이상을 느껴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일산불교한방병원 구병수 교수는 “2~3일 입원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하거나, 평소 자기가 앓고 있는 지병이나 신체 이상신호에 대해 체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알찬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권한다.

▶ 묵직한 불서에 도전해 보라

너도나도 휴가기간에는 여행을 떠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럴 땐 누구나 권하는 독서가 최고. 문제는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것.

“‘현대불교’ 출판면 기사를 보면 읽고 싶은 불서들이 많다. 평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묵직한 불서를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불교사나 비교종교학, 또는 대승기신론과 같은 집중력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해보라”고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권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마음열고 ‘하심’ 반복합니다”

성북구청 법륜회 정후시 회장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한 조직에서 인사는 그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물론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1380명의 인사와 후생복지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청 정후시 인사팀장. 그는 늘 구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인사 담당자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때로는 온갖 불만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다툼도 벌인다.

최근에도 구청 인사로 여기저기서 많은 말을 들었다. 4년 경력의 한 부하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발령이 나지 않자 심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인사팀장으로 근무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할 짓이 못돼요. 인사를 담당한다는 것이…. 다 만족스럽게 해주고 싶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내키지 않는 자리로 발령이 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정후시 팀장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늘 노력한다. 그게 선배로서의 도리이자 불자로서의 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1993년 성북구청에 들어온 이후 2년 만에 1995년 구청 불자회인 법륜회 회장을 맡아 10년이 넘도록 구청 불자들을 이끌어 온 정 팀장.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지만 정 팀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말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 팀장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발령이 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위로의 말을 반드시 건넨다.

물론 당사자는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가 일쑤다. 그러면 정 팀장은 또 다시 이메일을 보내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 직원도 어느 정도 마음을 푼다. 어떤 직원은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오기도 한다.

“직장생활은 일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힘들죠. 특히 직무상 부딪치게 될 때는 문제를 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낮추는 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성북구청 건물 안에서 만난 부하직원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정후시 거사.

정 팀장은 짜증나고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 ‘하심’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내 탓이오”라는 말을 배우라고 권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직장생활이 더없이 편하다는 것이 정 팀장의 지론이다.

얼마 전, 한 부하직원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꾸짖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며 이내 불평을 했다. 정 팀장은 딱 한 마디 던졌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바로 보라는 성철 스님의 법어를 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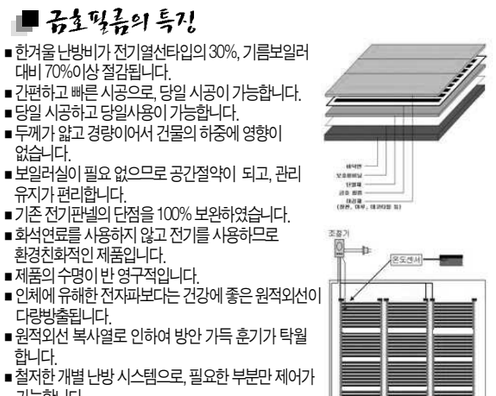
“직장이 수행처라는 거창한 수식어는 달고 싶지 않다”는 정 팀장. 그는 그저 순간순간 스님에게서 들은 법문이, 경전에서 본 내용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한명우 기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 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드는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아주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 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숙변을 분해하여 몸무게를 줄이고 변비에 효과
▶ 혈액순환에 좋아 고혈압, 저혈압에 효과
▶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질 제거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염증에 효과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 탈장, 치질에 효과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 갖가지 암, 근종에 효과, 암세포 성장억제
▶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효과
※ 먹기좋게 환, 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약값은 불사에 쓰여집니다
※ 비구니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 후 완치된 사례가 있음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사백련스님
입금계좌 :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배관과 보일러가 필요 없는
원적외선 필름난방 시스템

“월 5,000원으로 난방비 걱정 끝”
금호필름의 특징
■ 한겨울 난방비가 전기열선타입의 30%, 기름보일러 대비 70%이상 절감됩니다.
■ 간편하고 빠른 시공으로, 당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시공하고 당일사용이 가능합니다.
■ 두께가 얇고 경량이어서 건물의 하중에 영향이 없습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므로 공간절약이 되고, 관리 유지가 편리합니다.
■ 기존 전기판넬의 단점을 100% 보완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 제품의 수명이 반 영구적입니다.
■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보다는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방출됩니다.
■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하여 방안 가득 훈기가 탁월합니다.
■ 철저한 개별 난방 시스템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 혹한에도 동파걱정이 없습니다.
■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은 바닥만 따뜻한 일부 전기제품 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방용 필름… 금호에너텍에서 설치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금호에너텍 KUMHO Enertech co. 상담/문의 031)422-0467

이화 청기와 공장
● KS 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0> 자신의 참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마음에 무명 생기면 참 성품 못봐
시비와 분별 버려야 부처님 세상

중생이 쓰는 마음에는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함께 있다. 오염된 마음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요 청정한 마음은 시비 분별이 떨어진 마음이다.

시비 분별하는 마음은 '나'라는 헛된 생각이 개입되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청정한 마음은 '나'라는 헛된 생각이 사라져 객관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이다. 시비 분별로 '자신의 참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선가귀감> 30장에서는 말한다.

不用捨衆生心 但莫染汚自性 求正法是邪

중생이 쓰는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말고 / 다만 자신의 참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지니 / '정법을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삿된 짓'이니라.

본문의 중생심(衆生心)은 '중생이 쓰는 마음'을 말한다. <기신론>에서 "중생이 쓰는 마음에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모두 거두어져 있다[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라고 했으니, '중생이 쓰는 마음'에는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아울러 있다. 중생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간법'이니 생멸하는 인연법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은 '출세간법'이니 변치 않는 진여(眞如)의 모습이 된다.

이 마음은 '깨끗한 거울'에 비유되기도 한다.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끼면 사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에 시비 분별이 있으면 '사물을 본디 모습대로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 마음이 '자신의 참 성품'이니 자성(自性)이라 한다. 그런데 거울에 먼지가 끼듯 이 마음에 홀연 무명(無明)이 생기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는 헛것이 만들어진다. 이 '나'가 온갖 시비 분별로 '자신의 참 성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마치 먹장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자신의 참 성품'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먼저 참 성품을 오염시키는 온갖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참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捨者求者 皆是染汚也

삿된 법 버리는 것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모두는 참 성품을 더럽히는 일.

삿된 법을 버리는 것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왜 참 성품을 더럽히는 일인가? 삿된 법을 버리는 것과 바른 법을 찾는 것 역시 상대적 견해로서,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한쪽에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이다.

불교사상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심명>에서는 글 전체가 모두 양변(兩邊)을 여읜 중도(中道)를 역설하고 있다. 양변이란 미움과 사랑[憎愛], 거역과 순종[違順], 옳음과 그름[是非] 같은 일상 생활에서 쓰는 상대적 개념으로써,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한 쪽에 치우친 견해를 말한다. 양변을 떠난 중도가 불교의 근본사상임을 일관된 논리로 설파하는 <신심명> 첫 부분을 인용해 보자.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지극한 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 / 오로지 분별만을 꺼릴 뿐이니 / 좋다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애면 / 막힌 눈이 확 트여서 명백하리라

毫釐有差 天地懸隔 欲得現前 莫存順逆

아주 작은 차이라도 어긋난다면 /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지나니 / 참다운 도 이 자리서 얻고자 하면 / 옳다거나 틀렸다는 마음 없애라

보통 우리는 '도(道)' 닦는 일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짐작하여 '도'를 멀리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신심명> 첫 구절에서는 "지극한 도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여, 이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뜨려 버린다. 오로지 중생에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쓸 뿐, 분별하지 말라고 한다.

좋다거나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 자리에서 안목이 확 트여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참된 도'요 '참 성품'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고 시비하는 마음을 내므로 '도(道)'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런 시비와 분별만 버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확 트여 부처님 세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도(道)'와는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도'를 이룰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참다운 도를 바로 얻고자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에만 '옳다'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소리에 '틀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면 시비 분별을 일으켰던 '나'가 없어지고, 헛된 '나'가 사라지면 시비 분별로써 먹장구름 같던 무명이 점차 엷어진다. 그러다 무명이 사라지면 '자신의 참 성품'이 태양처럼 빛나며 오롯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도'로서 '깨달음'이요 '부처님의 세상'이며 바른 법인 '정법(正法)'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불교(佛教)

동국대 불교과를 다녔던 후배가 미팅에 나갔다가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군 제대 후, 여자 친구를 사귈 생각에 그 후배는 전날부터 설레었죠. 그런데, 미팅을 끝낸 후배는 쓴웃음을 지었죠. 여자 분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미팅을 주선한 친구에게 "야! 불교과(佛教科) 다니는데, 타종교인은 좀 곤란하잖아?"고 따졌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너, 불어교육과(佛語教育科) 아니었어?"

'불교'란 단어가 만들어 낸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요? 그럼, '불교(佛教)'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불교사상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한자음대로 불교용어들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유래는 산스크리트어 '보디(buddhi : 깨달음)'에 있죠. 여기에 '교'자 붙어,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 또는 종교'란 뜻으로 '불교'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어 '부디즘(buddhism)'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buddha : 깨달은 자, 깨달음)'에 '주의, 교학' 등의 의미인 '~ism'이 붙은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불교용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가니, 불자님들의 불교상식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지죠? **김철우 기자**

행복동 사람들

재산 목록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1강 언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 <장자>에 실린 이야기이다. 제환공이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깎던 노인이 마루 위로 다가서면서 물었다.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제환공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성인의 말씀이다." 다들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 잘 읽지도 못하는 <타임>지를 옆구리에 끼고 전철을 탄다든지, 아주 어려운, 가령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같은 철학책을 펴들고 누가 보아주기를 기다리던 경험이…. 제환공도 그런 우쭐한 마음으로 수레따위나 깎는 노인에게 자기 수준을 과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레깎는 노인의 응수는 뜻밖이었다. "그럼, 성인이 남긴 찌꺼기겠군요." 이 발칙한 대꾸에 제환공이 불끈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 황황히 자세를 가다듬은 노인의 대답이 이랬다. "성인의 핵심 노하우는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수레바퀴 하나만 해도, 너무 깎으면 헐거워지고, 너무 안 깎으면 빡빡해서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깎는 그 노하우는 저만 알 뿐 자식에게도 가르치지 못해, 이 나이가 되도록 손수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2. 나이가 들수록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는다. 말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닿으려는 촉수가 길고 날카로와졌다. 입을 믿지 않고 눈을 보며, 눈을 보지않고 전체에서 풍기는 풍채 혹은 기품의 언어를 듣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이미 말 이전에 결판난다. 순수한 정보, 객관적 의미란 없다. 언어는 커뮤케이션을 시작하는 현장에서, 이미 전달자와 수화자의 몸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니, 사전에 적힌 죽은 의미는 격화소양, 언발에 오줌누기나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러자면 그의 삶과 닿아야한다. 그 모든 것이 마음과의 교호, 거기서 이루어진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감정에 이입하는 성향이 다르다면,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마음의 교호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때 교환되는 말들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허하게 허공에 떠돌다가 그만 비온 날의 낙엽처럼 땅에 젖어 뒹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며 말을 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을 것이고, 말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잃게 될 것이다."

3. 말은 쉽게 버려지기도 하고, 또 쉽게 피상과 왜곡, 오해에 취약하다. 이것이 동서양의 지혜 전통의 공동 인식이었다. 말은 역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물건이다.

붓다의 경험 또한 말로 전해지기 어렵다. 그는 차라리 침묵하기를 선택했다. 범천 사함파티가 간곡히 설득하는 바람에, 그는 경험을 말로 전해보기로 작심한다. 그로써 붓다의 가르침, '불교'가 있게 되었다.

중생에 대한 그의 자비심이 평면적 언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법의 바퀴를 굴리게 했다. 그는 이 노파심의 자세를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가 경험을 피상적으로 혹은 불완전하게 전하거나, 심각하게 외곡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불교 집단에 널리 퍼진 것이었다. 그 이후, 불교사의 전개는 말에 대한 불신과 희망이 엇갈린다. 반야 중관은 불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선은 그 극단적 불신의 논리적 귀결이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자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찌 진정 붓다의 마음과 경험을 담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화두를 표방하는 현재 조계종은 따지자면 전형적인 '언어 불신'의 계열에 서 있다.

원효는 그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 일심(一心)의 긍정 설법을 폈다. "진여는 언어를 떠나있지만, 또한 언어에 의지하고서야 드러난다(離言眞如, 依言眞如)"고 썼다. 그것이 원효를 일류가 되게 했다. 언어를 세우고 부수는 입파여탈(立破與脫)이 종횡무진 자유자재해야 큰 교화의 방편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의 언설을 진리 그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뗏목은 저쪽 강 언덕을 넘는데는 필요하나, 넘고 나서는 필요가 없다! 병이 없다면 약은 없으니, 건강한 몸에 약은 곧 독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불교' 없이 사는 법이다! "너희들 비구가 내 설법이 뗏목같은 것임을 알면,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릴지어니…." (<금강경> 6장)

뗏목이 필요없다는 것도 틀렸고, 뗏목을 지고가는 것도 우습다. 이 참에 말하자면, 중생들은 앞의 것을 경계해야 하고, 선사나 목사들은 후자를 경계해야 한다.

4. 그러기에 불교는 도그마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인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씀마저도 방편일 뿐이다. 그는 다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뗏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폈다. 그는 고통을 떠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그는 이 길을 자신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는 천만에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 오래된 길'을 다시금 발견했을 뿐이다. 불교의 트레이드마크인 관용과 포용적 정신은 이같은 인식과 풍토의 산물이다. 옛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큰 나무들이 빽빽한 숲 속을 헤매던 사람이 옛날 옛적에 고인(古人)들이 지나가던 길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대의 도시가 나타난다.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정원들이 있고, 숲고 연못과 성벽의 기단이 남아있다.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돌아와서 왕과 신하들에게 말할 것이다.

'왕이시여, 저는 큰 나무들이 빽빽한 숲 속을 헤매다가 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옛 적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왕과 신하들은 그 도시를 복구하여 그 도시는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이 옛길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발견한 옛길이란 옛날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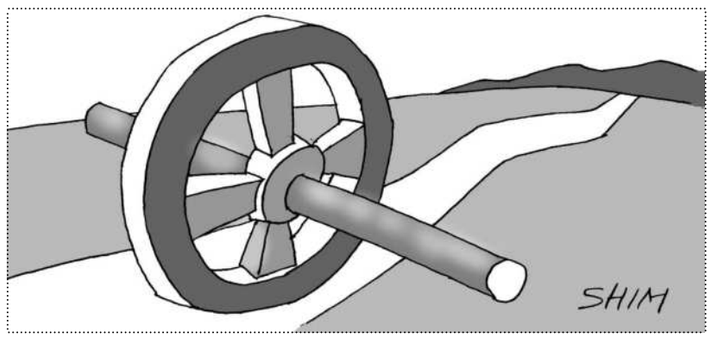
길은 오래되었다. 누구나 그 길을 따라간다. 새로운 길 같지만 길은 늘 옛길이었고, 때로 그것은 덤북쑥에 덮여있다.

불교뿐만 아니라 노자도 유가도 그렇게 생각했다. 노자는 '옛날의 성인들께서는….'이라고 말끝마다 외쳤고, 유가는 옛적의 문화적 지성적 영웅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본받으려 했다. 퇴계는 그 생각을 다음과 같은 시에 담았다. "고인도 날 못 뵈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은 못 뵈고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쩌리(도산십이곡)." 이같은 상고(尙古)적 정신은 지혜의 특징인 바, 유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느림의 미학, 혹은 속도 사이를 간파하는 힘이 필요하다. 근대의 정신은 인류 역사를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동서 현자들은 거꾸로 타락의 역사라고 말한다. 유교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류로 더러워지는 시냇물처럼 풍속이 퇴락하고 각박해졌다고 말한다. 불교 또한 말법사상을 통해 지혜는 사라지고 교단과 설법만 남다가, 그나마도 사라지는 때가 오고야 만다고 진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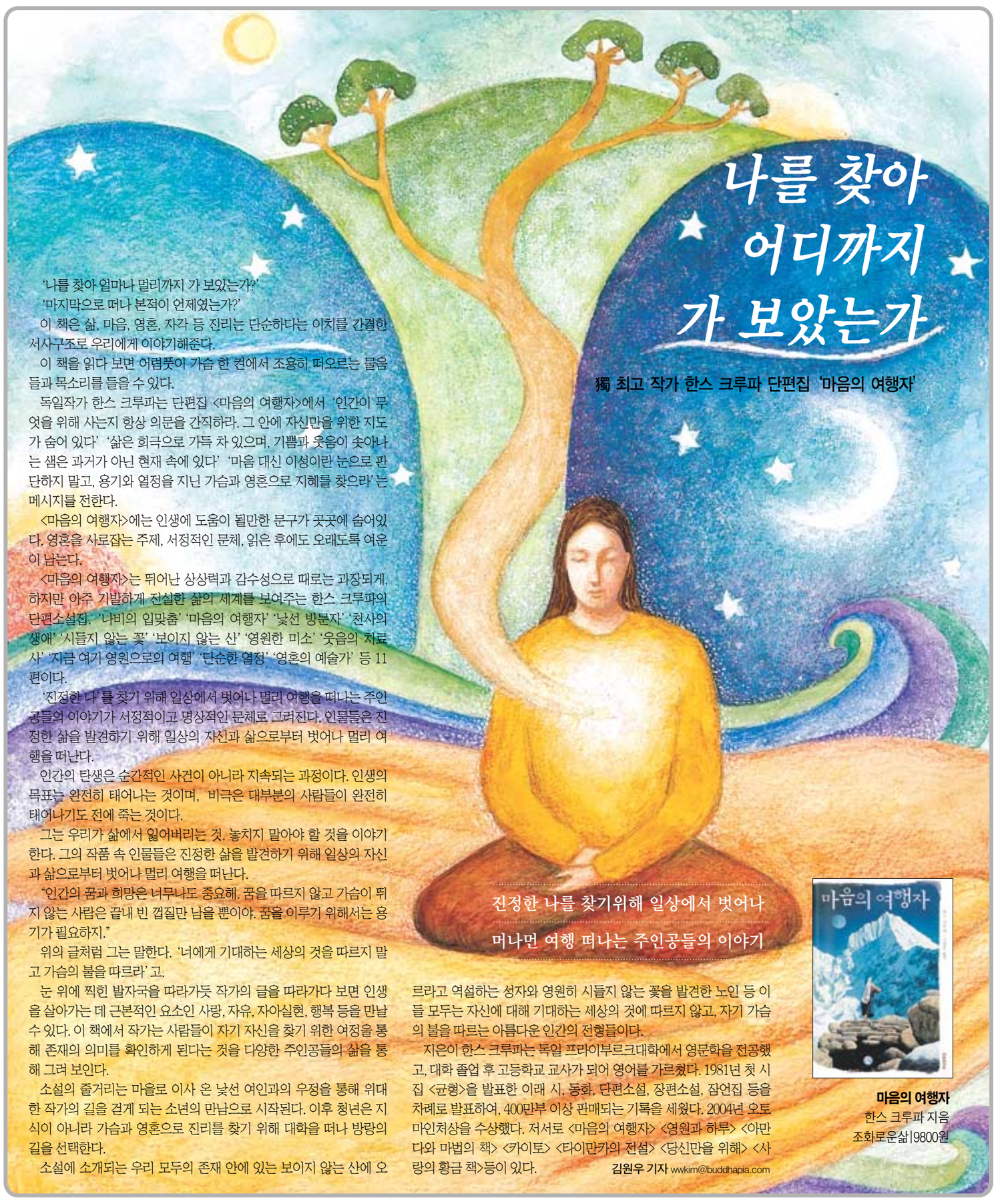
그럼, '지혜'는 멸실되는가. 지혜의 전통도 함께 까마득한 망각 속에 묻혀버리고 말것인가. <금강경>은 그 회의를 망치로 깨두드리며 말한다. "그렇지 않다, 수보리야, 붓다가 떠나고 후(後) 오백세, 그 오랜 쇠퇴의 시간을 거쳐도 붓다의 말씀은 바래지 않고, 그것을 가슴 깊이 붙들 사람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불성에 뿌리박고 있어서 인위적으로는 바꾸거나 조작하지 못한다. 불교는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류가 또 다른 생물종으로 돌연변이 하지 않는 한, 영원한 가르침으로 법계를 울릴 것이다.

길은 늘 옛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나를 찾아 얼마나 멀리까지 가 보았는가?'
'마지막으로 떠나 본적이 언제였는가?'
이 책은 삶, 마음, 영혼, 자각 등 진리는 단순하다는 이치를 간결한 서사구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렴풋이 가슴 한 켠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물음들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독일작가 한스 크루파는 단편집 <마음의 여행자>에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항상 의문을 간직하라. 그 안에 자신만을 위한 지도가 숨어 있다' '삶은 희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기쁨과 웃음이 솟아나는 샘은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 있다' '마음 대신 이성이란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용기와 열정을 지닌 가슴과 영혼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음의 여행자>에는 인생에 도움이 될만한 문구가 곳곳에 숨어있다. 영혼을 사로잡는 주제, 서정적인 문체, 읽은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마음의 여행자>는 뛰어난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때로는 과장되게, 하지만 아주 기발하게 전설한 삶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스 크루파의 단편소설집. '나비의 입맞춤' '마음의 여행자' '낯선 방문자' '천사의 생애' '시들지 않는 꽃' '보이지 않는 산' '영원한 미소' '웃음의 치료사' '지금 여기 영원으로의 여행' '단순한 열정' '영혼의 예술가' 등 11편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문체로 그려진다. 인물들은 진정한 삶을 발견하기 위해 일상의 자신과 삶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인간의 탄생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이다.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태어나는 것이며,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진정한 삶을 발견하기 위해 일상의 자신과 삶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인간의 꿈과 희망은 너무나도 중요해. 꿈을 따르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끝내 빈 껍질만 남을 뿐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위의 글처럼 그는 말한다. '너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가슴의 불을 따르라'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듯 작가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근본적인 요소인 사랑, 자유, 자아실현, 행복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다양한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그려 보인다.

소설의 줄거리는 마을로 이사 온 낯선 여인과의 우정을 통해 위대한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 소년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후 청년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대학을 떠나 방랑의 길을 선택한다.

소설에 소개되는 우리 모두의 존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산에 오르라고 역설하는 성자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발견한 노인 등 이들 모두는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 가슴의 불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간의 전형들이다.

지은이 한스 크루파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 영어를 가르쳤다. 1981년 첫 시집 <균형>을 발표한 이래 시, 동화, 단편소설, 장편소설, 잠언집 등을 차례로 발표하여, 400만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2004년 오토 마인처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마음의 여행자> <영원과 하루> <아만다와 마법의 책> <카이토> <타이만카의 전설> <당신만을 위해> <사랑의 황금 책>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마음의 여행자
한스 크루파 지음
조화로운삶|9800원

네티즌 강추

답답한 세상 유쾌하게 웃으며 살아야지



현대 착각 백서: 대한민국이 배꼽잡는 유머 백서 8가지
수희재, 유동우 지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좋을 책이다.

일상에 지쳐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만들어 주는 책이다.

유머가 화두인 세상에 재미있는 말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친구를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 요즘 잘 나가는 유머가 거의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작은 판형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은 이점이 매력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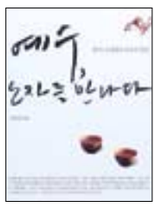
아무튼 언제든지 웃음이 필요할 땐 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엄숙한 무엇이 아니라 유머에 있는 것 같다. 답답한 세상을 웃으며 살아보자는 것이리라.

백서가 사람들 간의 공통점을 부담 없이 확인하며 즐기는 것이라면, 이 책이야말로 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책일 것이다. 백서라는 형식으로 담아낸 의도가 참 신선하다.

다른 독자분들도 이 책으로 유쾌한 웃음을 누리시기 바란다.

(seagarden, yes24.com/ReviewCenter)

도덕경과 성서, 맥이 통하는구려



예수, 노자를 만나다 코나투스, 이명권 지음

진리가 진리를 만난다고 할까. '도덕경'과 '성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책이다.

특히 동양과 서양, 그리스 도교와 도덕경을 통해 새로운 종교적 만남의 시도가 돋보인다.

노자를 통해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통해 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책.

신학과 철학을 전공한 지은이가 무위자연(無爲自然)에 입각한 노자의 도(道) 사상을 해석하면서 예수의 정신과 상통하는 맥락을 짚어준다.

도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측면, '무(無)의 쓰임새'와 '비움의 영성', '상선약수(上善若水)'와 '예수의 길' 등이 그 예다.

'자기만을 위하며 살지 않는다'는 노자의 부자생(不自生)은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에 비유된다. 노자의 눈을 통해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노자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다.

"무지와 무욕의 실천으로 늘 텅 빈 마음이 될 때 얼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대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보슬비, aladdin.co.kr/blog)

책속의 밑줄긋기



○… 그 빛은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쏟아져서 일체가 그것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빛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이제 참된 생명은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 만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아직 살아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저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인 부활은 여기 이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하나의 실현된 진리가 된다.

일체가 조정되고 통일되고 완전한 조화속에서 각기 서로와 상응한다. 단지 내가 보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내 신체적 자아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에서는 참된 '나'가 고요함 속에 지배하고 있다. 나는 우주의 부(富)를 다 준다 해도 이 고요함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감각 기관들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도 상실되지 않을 토대라는 것을 안다. 이 고요함에는 어떤 욕망도 없다.

-<큰 평안의 시절> 본문 122쪽에서, 탐구사, 마우니 사두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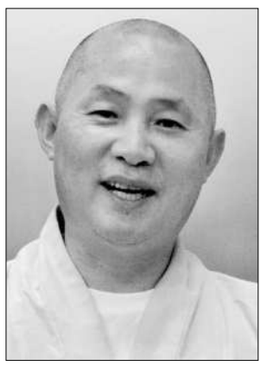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술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어접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천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8권 출간! >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8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9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 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쿨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지압(항균 실리콘 돔)
잠수복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 우레탄)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총 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비'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54)724-7999

중국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 조명



"중국 선종사찰을 한 달간 참배하면서 조사 스님들의 얼이 담기고 혼이 담긴 유적을 둘러보면서 느낀 소감과 선사들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불교방송에서 선학강좌를 하고 있는 해운 스님(서울 해인선원 원장 · 사진)이 방송내용을 정리한 <중국선종사상사>를 발간했다.

<중국선종사상사>는 인더스 문명과

▮'중국선종사상사' 발간한 해운 스님

선의 풍토, 고대 인도문명과 요가, 붓다의 명상과 선정사상등 불교이전의 원시불교에서부터 선을 시작하고 한국 중국 일본에 선을 전달한 달마대사의 선사상을 다룬다.

이어 기라성같은 선사들을 소개한다.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혜능, 남악회양, 마조도일, 황벽희운, 임제의현 선사가 대표적. 이 책에서는 이들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 위산영우, 앙산혜적 선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위앙종의 성립과 보리달마와 연수선사, 종경록에 나타난 마조선, 승찬선사의 신심명등이 수록된 법안종편도 실려있다.

부록으로 실린 중국선종사찰 화보와 중국선종사 계보도 눈여겨 볼만하다.

스님은 "<중국선종사상사>는 선이 중국을 거쳐 자연스럽게 한국불교로 넘어와 우리문화로 자리잡은 간화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근래에 들어와 여타 수행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조계종 수행법이 간화선인 만큼 이를 선양하는데 일조를 하고싶다"고.

스님은 "임제종 법을 이어온 태고보우국사 스님께서 불조의 혜명을 가르쳐 준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책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선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운 스님은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대정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사를 거쳐 경국사 총무, 해인사 포교국장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길이 나는좋아> <불교성전>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달마대사의 선사상' '혜가대사의 선사상' '오조 홍인의 선사상' '마조도일의 선사상' '임제의현의 선사상' '영명연수의 선정융합사상' '영명연수선사의 선사상' '영명연수의 교선일치사상' 등 17편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중국선종사상사
해운 지음 | 한스정보 | 9000원

새로운 관점으로 본 '천수경'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김호성 지음
민족사 | 1만8000원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혀지는 경전인 <천수경>.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가 학문적인 입장을 배제한채 호교론적으로 접근한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를 펴냈다.

15년 동안 <천수경>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천수경>과 관련한 5편의 논문을 실었다.

1편 '원본천수경과 독송용 천수경의 대비'는 김교수가 2002년 연구년을 얻어 일본 교토의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천수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면서 쓴 논문이다.

2편 '관음신앙의 유형과 고찰'은 화엄 반야 법화 선과의 관련성 속에서 관음신앙을 재조명하고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용양상이 다름을 살펴보고 있다.

3편 '일음교에 있어서 천수경의 위상'은 다양한 불교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 이치에 있어서는 일음(一音)이라고 보는 관점과 <천수경>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는 논문이다.

4편 '선종에서 대비주를 독송하는이유'는 대비주와 다라니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을 천착한 논문이다.

5편 '독송용 천수경에 대한 언어적 재해석과 그 적용'은 진언을 우리가 일상속에서 쓰는 유의미의 언어 그 자체를 진언이라고 하는 제2 진언수행론을 고찰한다.



인생 살아가는 지혜

삶의 지침서 인생경 김기상 지음 | 백교 | 3만2000원

불교와 유교, 기독교등 동서고금의 현인과 철인들, 인류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사람들, 부와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경구와 명언을 소개한 책이 나왔다.

삶의 지침서 인생경은 다양한 종교, 여러 성현의 진리를 꿰뚫는 말씀 중에서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만을 집성하였다.

인간편 처세편 도덕편 지혜편 신앙편 사랑편 충효편 총 7부로 나누어 5457구절을 수록한 이 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김기상씨가 광범위한 독서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최근까지 200자 원고지 4000매 분량에 달하는 수기노트를 완성했다. 이 내용중 평범한 사람들의 일과 삶,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누구나 쉽게 음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구절을 모았다.

동국대학술총서 2권 발간

묵조선 수행법 특징 상세 설명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
김호귀 지음
동국대출판부
1만2000원

좌선을 종지나 방법으로 삼고 깨침으로 간주하는 수행이 묵조선이다.

묵조의 의미는 본래 깨어 있는 좌선을 의미한다. 즉 묵이 좌선하고 있는 몸의 모습이라면 조는 성성하게 깨어 있는 마음의 모습을 가리킨다.

동국대 강사인 김호귀씨가 발간한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는 이와 같은 묵조선의 성격과 그 특징 그리고 묵조선 수행의 실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안심입명(安心立命)과 깨침을 추구하는 선에서는 몸과 마음은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신심일여(身心一如)의 도리를 강조한다. 또 묵조선의 깨달음인 자기구제는 물론이고 타인의 구제를 목표로 삼는 자각(自覺)과 각타(覺他)가 대승정신의 발로임을 강조한다.

묵조선은 지관타좌(只管打坐)로 함축된다. 즉 좌선은 올바른 육체와 마음을 드러낸다는 지관타좌는 묵조선 수행법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日 조동종 종조 도겐 선사상 정리



정법안장수문기
이재경 옮김
동국대출판부
1만원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1200~1256)의 법어집 성격을 띤 저술로 그의 제자 에죠(1198~1280)가 스승의 가르침을 3년간 정리, 기록하여 전해온 책인 <정법안장수문기>.

총 6편으로 구성된 <정법안장수문기>는 무상관과 청빈사상, 그리고 도겐의 대표적 선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일념으로 좌선하는 것과 자유자재한 무심의 경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법은 일본 선종사적으로 '도겐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사상적 ·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엔죠의 <정법안장수문기>는 도겐의 육성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한문체가 아닌 일상적 언어로 주제별 대화법의 형식을 빌어 전하고 있어 불교를 모르는 초심자라 해도 불교의 진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수행본위의 구도정신으로 민중생활로의 사상적 외연을 넓혀나간 도겐선사의 정법사상과 선사상의 일관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중한 저술이다.

목표가 있어 비굴할 수 없었던

괴짜작가의 '청춘'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온 소설가 이외수씨(사진). 그만의 언어철학을 완성하는데 토대가 됐던 괴벽과 기행으로 유명한 그의 젊은 날은 과연 어떠했을까?

문학에 대한 열정 빼고는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그가 살면서 느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산문집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와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 각각 새롭게 출간됐다.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에는 대학교육에 염증을 느껴 자퇴한 후 스스로를 괴롭힘으로써 날카로운 작가정신을 연마하던 습작 시절을 적고 있다.

또 '아직도 살아 있느냐'는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인사를 받으며 춘천시내에서 매일 20원을 구걸해 번 데기를 사먹던 젊은 예술가의 고뇌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에는 이외수가 치러낸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고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던 이외수가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서 애틋한 그리움을 갖기까지 그가 치러낸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이외수의 산문을 읽다보면 소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큰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이외수 지음 | 출판사 해냄(네오북) | 각권 95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잡념이보배다** 생각하는백성, 김성수, 8000원
- **마음이란무엇인가** 씨앗을뿌리는사람, 달라이라마 외, 1만2800원
- **하늘로 열린 땅 티베트 타클라마칸 기행** 은행나무, 서화동, 1만3000원
- **너에겐 나무 나에겐 부처님** 조계종출판사, 양동효, 8000원
- **운명의변화** 불일출판사,정공법사,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자기를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법

1.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잘못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2.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자.
3. 모든 것을 금전을 앞세우면 죄악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자.
4. 웃는 얼굴 좋고, 진실된 말, 남을 대하고 모든 것 순리에 따르자.
5.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자기의 돈이 100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100원도 중요하다.
6. 나의 바른 삶이 나라와 후손을 위한 길임을 깊이 생각할 것이며 자기를 아끼듯 부모를 잘 섬겨야 복중에 제일 큰 복이 온다.
7. 내가 지은 모든 선과 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 순간을 후회 없이 살자.
8. 모든 사람이여 하루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미워하기 보다는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자.
9. 도둑을 막기전에 울타리를 고쳐라. 고치면 고마움을 알아야 다시 울타리를 하지 않는다.
10. 자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말을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줄 것도 없지만은 가져갈 것도 없다.
11. 참다운 길로 가는 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바로 이것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12. 몸에 어혈을 제거하고 약을 먹고 1년 치료하면 10년은 젊어진다.
13. 인체의 모든병은 피가 통하지 않아 온다. 혈압, 당뇨, 암, 심장병, 저승꽃, 어떤 병이라도 피가 통하면 회춘한다.
14.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5. 마음을 닦고, 공부하는 자가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삼시구충를 없애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다.
16. 죽은 성인들도 하늘과 땅을 보고 공부를 하였는데 죽은 성인들 보고 애원하는가 하늘과 땅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 광물을 살려주지 않는가 하늘과 땅을 믿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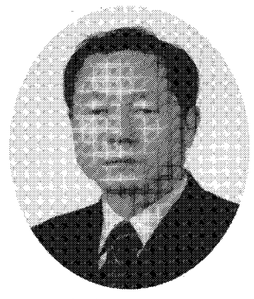
유황법제를 전수합니다.

지구의 중심 대한민국 울타리 없는 곳에서

전화 054)751-8225 / 011-413-0155 차석용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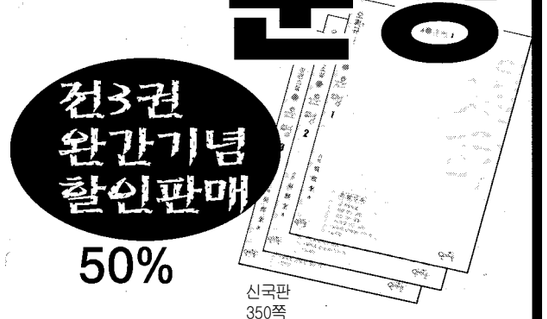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봉원사 일운 스님, 오디오 의식교본 '하늘의 소리' CD 5개 제작

"불교의식 전 과정 CD · DVD에 담겠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이 45년 어장 생활중 처음으로 '소리'를 오디오CD로 만들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신촌 봉원사 옥천범음대학장)이 7월 11일 평생의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오디오 의식 교본 '하늘의 소리' CD를 제작 발표했다.

45년 어장의 길을 밟아온 일운 스님은 "은사 운파 스님이 후학들에게 '소리'를 제대로 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에 심어줬다"며 "14세에 출가해 배우기 시작한 범패와 작법을 비롯한 각종 의식들을 1974년부터 매년 교육을 통해 후학들에게 전승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이번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하늘의 소리'는 5개의 CD로 이루어진 비매품이다. 재(齋) 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CD는 재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인 천도재 의식을 중심으로 <석문의범>을 참고해 구성됐다. 시련에서부터 재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봉송에 이르기까지 CD에 담긴 의식 시간만 6시간에 달한다.

후학들에게 전승을 위한 오디오 교본을 만들자는 기획은 1984년부터 시작됐다. 여러 사정으로 기획에만 그쳤던 오디오 교본 제작은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녹음에 착수해 완성됐다.

육성은 육성대로, 징은 징대로, 목탁은 목탁대로, 호적은 호적대로 모두 제각각 따로 녹음을 해 후반작업에서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냈다.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각각 녹음된 소리들을 한 소리로 합치다보니 미세하게 박자가 엇갈렸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잡아내며 소리를 완성시켰다.

일운문도회 소속 10여명의 스님들이 작업에 동참했다. 총 연출은 혜사 스님이, 호적은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이 각각 맡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CD 5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일운 스님은 "매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운파 · 송암 스님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의식을 녹음해 후학들에게 전수할 CD를 제작할 계획"이고 "DVD 등으로도 불교의식 전체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상주권공, 각배, 영산, 식당작법, 점안, 불공, 수륙재 등 다양한 불교의식들을 조목조목 오디오교본으로 제작할 계획"이라며 "이 오디오 교본만 듣고 연습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교본 작업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내비쳤다.

강지연 기자



일운 스님이 평생의 '소리'를 담아 펴낸 '하늘의 소리'.

남북 공예 美 비교해 보세요

'2006 남북공예교류전-하나됨을 위하여'

8월 1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방아다리 노리개' '쌍학장식청자꽃병' '량천사 대들보 단청' 등 남북의 빼어난 공예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사장 오원택)과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외전람총국이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06 남북공예교류전-하나됨을 위하여'를 8월 16일까지 연다.



북 박창숙 作 '활옷'.



南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作 '금동반가사유상(모작)'.



南 구혜자(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作 '노의'.



南 신근식(경기무형문화재 제26호 벼루장) 作 '사각용연'.

옷차림 · 상차림 · 집꾸밈 · 멋내기 4개 부문으로 나눠 전시

北 손자수 '파도' 생생함에 탄성

이번 전시에서 남한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모작)',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박문열씨의 '혼수함', 경기무형문화재 제26호 벼루장 신근식씨의 '사각용연' 등 중요무형문화재 99명의 작품 250여 점을 선보인다.

북한은 북한 예술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계관인' 칭호를 받은 우치선의 '쌍학장식청자꽃병', 인민예술가 김청희의 대형 수예작품 '파도', 평양 단청연구실의 '량천사 대웅전 대들보 단청' 등 북한 최고 예술가 60여명이 제작한 공예작품 200여 점을 전시에 내놓았다.

북측이 청자의 고운 빛깔을 뽐낸다면 남측은 둥그런 달항아리로 푸근함을 선사한다. 장식이 없이 깔끔함이 돋보이는 남측의 나주반은 만자문양 모란문양 등을 투각해 한껏 멋을 부린 북측의 해주반과 나란히 감상할 수 있다.

요즘 북한에서는 쇠퇴한 불교예술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단청연구실 등을 둬 전통 단청을 복구하는가 하면 만자 문양, 연꽃 문양 등 불교 문양들을 활용한 공예품들도 폭넓게 제작되고 있다.

남북 공예품의 차이는 나전공예품에서도 드러난다. 나무를 일일이 파낸 뒤 자개를 박아넣는 전통 상감기법은 북한에서 그대로 계승됐다. 남한에서는 자개를 붙인 뒤 옻칠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06 남북공예교류전'은 '옷차림' '상차림' '집꾸밈' '멋내기'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남북의 공예품들을 나란히 진열해 비교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옷차림' 코너에서는 활옷 당의 등 의상과 주립 굴레 등 머리쓰개를, '상차림'에서는 유기그릇을 비롯해 도자그릇 소반 등 각종 그릇류를, '집꾸밈'에서는 가구 함 발 상자 등과 함께 만자 소반 등 불교공예품을, '멋내기'에서는 자수를 비롯해 악기 문방사우 등 각종 전통 공예품을 한자리에 전시한다.

남한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북한의 소형 불상이 나란히 전시된 코너는 눈길을 끈다. 이번에 출품된 30여 점의 가구와 나전칠기, 단청 자수 작품과 장신구 등 북한 공예품들은 매우 수준높고 다양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북 단청연구실 作 '량천사 대웅전 대들보 단청'.

평양 수예연구소의 인민예술가 김청희씨의 수예작품 '파도'는 가로 365cm, 세로 182cm의 대형 작품이다. 손자수로 작업한 '파도'는 자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파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남북공예교류전은 지난해 분단 60년을 맞아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1회 전시회가 개최돼 6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1회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2005 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분야 전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2007년 8월~9월 유엔에 초청돼 '화합'을 주제로 유엔갤러리에서 전시회도 가진다. 2007년 제3회 전시회는 두 차례 서울 전시회에 이어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다. (02)733-904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북 박일수 作 '백동화로'.



북 김일룡 作 '련잎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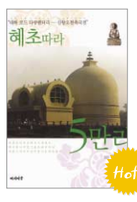
"즐거운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냐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Hot!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Hot!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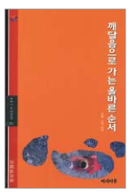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상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



선 방 일 기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6,0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스님이야기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이 소개된다. 85명 스님들의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자체로 절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 불교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
448쪽 / 값 12,000원
지묵 지음 외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 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문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10명의 대선사들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A5 / 449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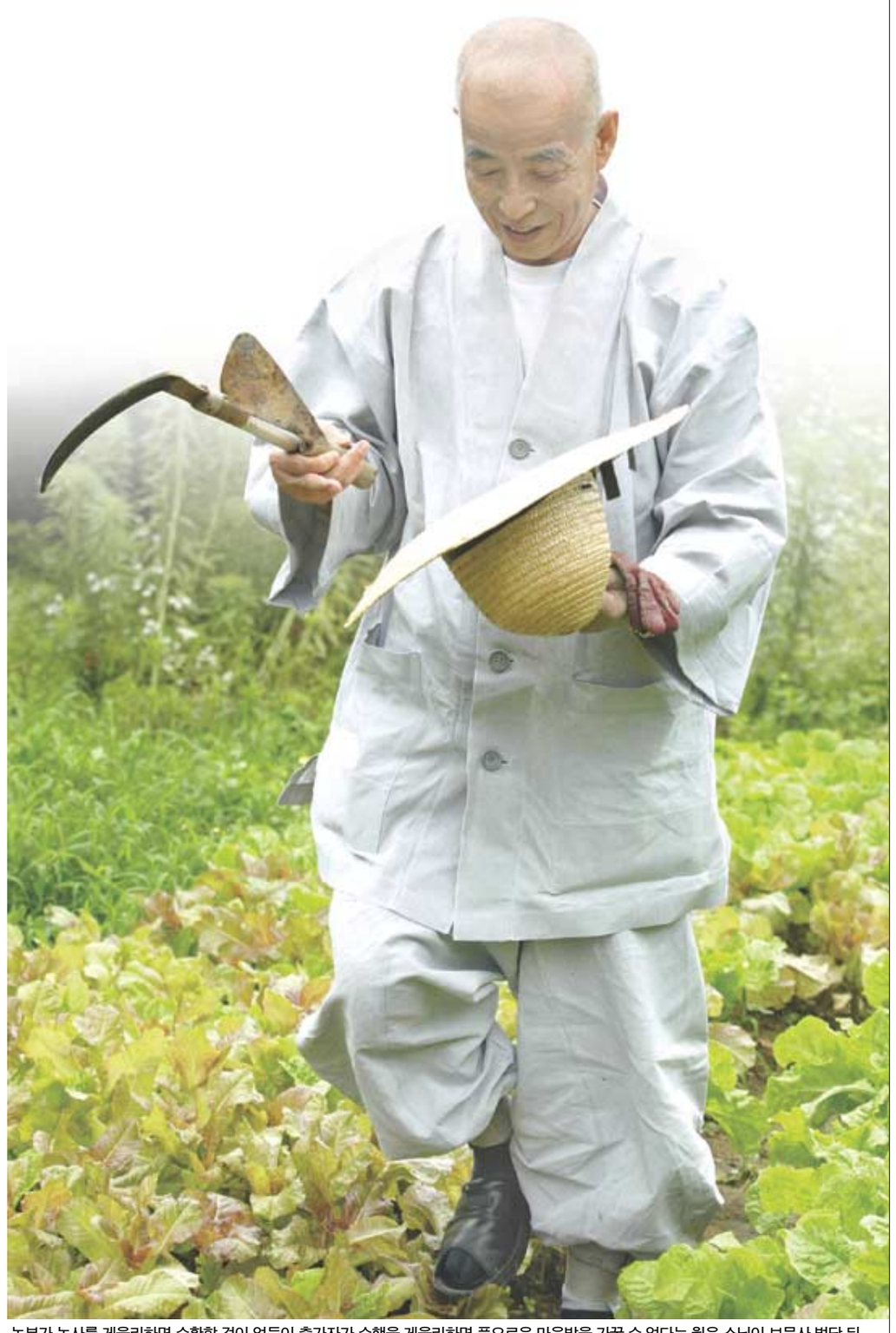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

“원칙 지키면 행복해져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하면 수확할 것이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다는 월운 스님이 보문사 법당 뒤에 있는 텃밭에서 울력을 하고 있다.

태풍이 몰려옴을 예고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7월 6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보문사를 찾았다. 날씨는 잔뜩 찌푸렸지만 인근 계곡의 물은 물대로 멀리 보이는 산은 산대로 맑고 선명했다. 주지실에서 기자를 맞은 보문사 주지이자 태고종 사정원장 월운 스님은 고희가 넘은 나이에도 인터넷 서핑에 여념이 없었다.

예상을 깬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스님, 인터넷 잘 하세요?” 문안 인사를 올리기 전 저절로 튀어나온 질문에 월운 스님은 “인터넷이란 놈이 참 희한해.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려주는지 말이야. 각종 정보나 법문 자료를 이 놈을 통해 많이 얻어. 나한텐 둘도 없는 친구지”하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월운 스님은 이렇듯 다양한 법문 자료를 찾기위해 인터넷으로 세상을 만난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스님 나름대로의 신세대식 공부법이다.

그러나 수행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옛 스님들에게서 배운대로 원칙을 고수한다. 월운 스님은 50여년을 한결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스님의 일과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예불로 채워진다.



인터넷을 통해 법문자료를 챙기는 월운 스님.

고희 나이에도 매일 예불 거르지 않아
인터넷 활용 신세대 맞는 법문 준비
‘폭넓은 공부’ 강조…엄격한 상좌교육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신도들과 함께 매일 오전 5시에 예불 올리기로 약속한 것을 거른적이 거의 없다. 예불 봉행 후 간단한 체조 그리고 아침 공양을 끝내면 인터넷으로 종무행정과 사찰 업무를 시작한다.

보문사에 혼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나 신도관리, 울력 등 모든 것을 스님이 도맡아 하고 있다. 상좌들은 모두 지방에서 공부하거나 각자 사찰 주지를 맡고 있어 스님이 혼자 절을 지키고 있다.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는 스님은 그래도 반드시 저녁 예불 후에는 2~3시간씩 정진한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며, 때로는 법문집도 집필한다. 지난 6월에는 고희 기념 법문집 <월인천강>을 출간하기도 했다. “잠들기 전 하는 수행이 곧 내 하루 농사의 결실인 셈이지. 농부의 농사가 곡식 잘 키우는 것이듯 출가 수행자의 농사는 바로 수행이지요.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 하면 수확할 게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진에 게으르면 수행자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자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범종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스님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이 책이 모자라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공부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은사인 화봉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보니 오히려 정신이 나태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신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선 제자들부터 경전 공부를 충실히 해야만 된다고 독려합니다. 본인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쉽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공부를 용맹스럽고 폭넓게 해야 신심도 솟구치는 법입니다.”

스님의 이런 철저한 교육 철학은 제자를 받을때마다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초발심때부터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자를 길러내는 초석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에게나 제자들에게 수행자로서 엄격한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나는 출가생활에 늘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출가자의 기쁨은 가진 게 많은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빠듯한 절살림에 늘 부족하게 살지만 행복하고 즐거워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면이 풍부해지고 저절로 생활이 충만해지며 행복감이 넘쳐요. 행복은 절대로 부자순이 아닙니다.”

스님은 불교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행복들을 많은 이들에게 항상 나눠주고 싶어한다. 특히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열심이다. 형편이 어려운 불우가정과 무의탁 노인, 군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스님은 특히 97년부터 육군 60사단 사령부내 호국 용주사에 한 달에 두 번씩 나가 노구를 이끌고 손자뻘 되는 장병들에게 법문을 한다. 스님이 인터넷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군포교 때문이다. “초창기에 군장병들에게 법문할 때 영험설화, 경전 법문, 비유법문 등 내 불교지식을 총동원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루한지 법문 시작해 얼마안돼서 모두 졸고 있더라구요.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월운 스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포교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한 장병에게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군포교에 매진할 생각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월운정사 창건, 불교반야병원 설립

월운 스님은 | 193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월운 스님은 58년 합천 해인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78년 서울 안암동에 월운정사를 창건했으며, 80년에는 서울 상봉동에 태고종 산하 불교반야병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태고종 교무부장,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태고종 제도개혁 상임위원, 태고종 중앙 호법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이래 현재 태고종 사정원장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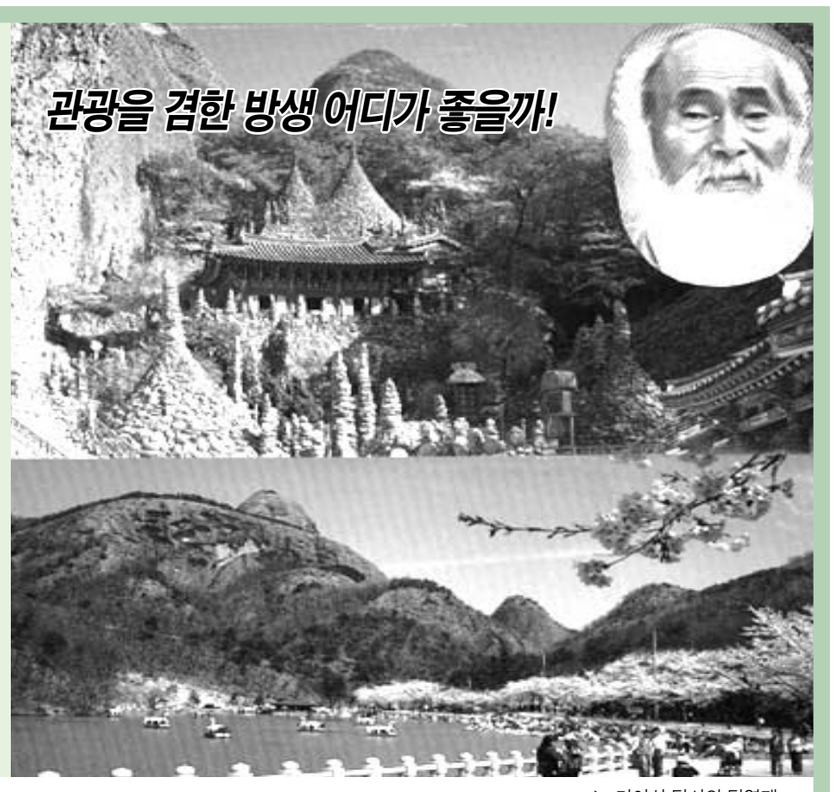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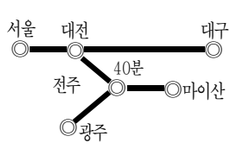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태산 같은 믿음 · 정진이 중요

월운 스님의 가르침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불 올릴때 독송하는 '예불문'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바른 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거지만 예불문의 뜻을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예불 올릴 때 그저 아무 생각없이 입가에서만 중얼거리고 말지요.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 예불문의 핵심내용을 자주 설명해 줍니다.

우선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삼계도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를 이끌어주시는 선지식이란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사생자부는 중생이 태어나는 네가지 방식인 난생 습생 태생 화생으로 생겨난 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뜻합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 땅과 물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부처가 아닌게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같은 원리를 알면 계율이나 수행을 말하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염되지 않으면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주 자연은 그대로가 부처이지요. 그러나 때가 묻으면 중생이 되는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생인 이유는 불성에 무명이라는 때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불성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형성된 우리 육신은 감각을 느끼는 오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또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찾아 다닙니다.

신도들에게 예불문을 가르칠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제망찰해'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등 삼세를 포함해 육지 구석구석 어느 곳이나, 물속 어디든 전체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물이 어떻게 무한한 우주공간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린단 말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은 정보망이요 곧 신경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망은 전부 그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넷(Net)이 그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물질 풍요해지는 일은 좋으나
예기치 않은 정신적 공황 초래
본분 잊지말고 지계에 노력을

우리들의 몸에도 역시 신경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세포를 봅시다. 세포의 조직이나 모든 분자나 세포는 육각입니다.

물의 분자 또한 육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오염되지 않은 물은 육각수라 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연고 하나를 사서 설명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육각으로 된 화학기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부처님은 이미 3천년 전에 그물의 원리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하고 위대하십니까?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계발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19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Q(지능지수)를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EQ(감성지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SQ(영성지수)와 NQ(인간관계지수)가 새로운 척도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반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40년만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범죄형태는 갈수록 악독해지고 기본적인 연간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마치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돛단배 같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탓입니다.

이런때일수록 불교의 계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율, 계율 하는데, 도대체 계율이 뭡니까?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계율은 분명 불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무작정 계율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지킨다는 것 보다 그것의 본뜻을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화합에 그 근본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물질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부와 명예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산같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더 있습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碍)'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광대무변해서 대자비심으로 실천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안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여튼 부처님처럼 3천년전부터 미래의 세상을 미리 예견한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만 알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다보면 성불은 저절로 됩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4>



'옥야경'을 다시 읽는다(2)

"깃발을 보면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다"는 <잡아함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옥야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그저 아내에게만 강요되는 덕목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종류의 아내는 일곱 종류의 부부관계라고 바꾸어 생각해도 그리 심한 억지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부 관계는 배우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기울이는 사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옆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고 아껴주며 자기 배우자가 집 밖에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도 이런 극진한 애정에 지치지 않는 부부 사이입니다.

백년해로 하기란 어렵지만
길동무 · 도반같은 부부관계로
가치있는 삶 함께 추구해야

두 번째 부부 관계는 오누이 같은 부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오빠동생 하자'라는 말은 곧 '서로 연인이 되자'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를 볼 때 얼굴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신뢰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는 부부 관계가 바로 이 오누이 같은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부부 관계는 오래도록 사귀어온 좋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흉허물을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말로 지적하여 고치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속 깊은 친구처럼 배려하고 아껴주는 사이입니다.

"현명한 길 안내자가 객지에서의 좋은 벗이요, 정숙하고 어진 아내는 집안에서의 좋은 벗이다"라고 하거나, "어진 아내가 으뜸가는 좋은 짝이다"라는 <잡아함경>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자기 배우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그 밖의 부부 관계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하인 같은 아내의 경우는 아내에게 매우 엄격한 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권한을 주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의범절이 깍듯하고 스스로를 엄히 단속하면서도 집안을 깔끔하게 챙기는 안주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40대 남성들의 심리적 방황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룬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기사 속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가장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은 한창 연애시절엔 러브(Love) 파트너였다가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퍼밀리어(Familiar:익숙한, 친밀한) 파트너였다가 소울(Soul)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가 사랑해 결혼했어도 퍼밀리어 파트너로 발전하지 못한다. 가족이 됐으나 남편과 아내가 직장 일이나 가사 노동 등으로 대화가 줄어들고 아이 양육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서로 정서적인 고립감을 갖게 된다. 이로써 정서적 이혼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뉴스메이커>682호).

사람은 달라지고 변하게 마련인데 사랑으로 맺은 남녀 관계가 처음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그 관계의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도 위의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중에 '소울 파트너'는 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길동무, 도반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추구해 가는 부부관계입니다.

암제차라는 여인이 남편과 잠시 친정에 들렀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 집에 공양하러 오셨습니다. 온가족들이 공양을 마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나아갔지만 암제차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출 중이었던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늦게나마 나란히 법석에 참여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사자후요의경)

옥야의 급선무는 당장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집과 교만을 털어내는 일이었기에 하인 같은 아내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암제차는 법을 듣는 자리에 배우자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21세기의 옥야들은 이렇게 부부관계를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고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열정 · 예산 쏟아 명실상부한 차 명문으로”

나주 동신대학교, 4년 과정 茶학과 개설

2007학년도부터 학생 모집



동신대 김필식 이사장(왼쪽)이 7월 11일 용운 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과 함께 차학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나주는 고려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던 뇌원차가 만들어진 곳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양의 차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차를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해 나주를 명실상부한 차문화 중심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초의선사의 출가지이자 다산 정약용이 어린 시절을 보낸 전라남도 나주. 이곳에 2007학년부터 4년 과정의 차 학과를 개설하는 동신대학교의 김필식(63) 이사장은 차 학과 운영에 큰 자신감을 비쳤다.

동신대는 1986년 동신공과대학으로 설립된 뒤 90년 동신대학으로 개명했다. 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현재 주간 1개 학부 · 41개 학과, 야간 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4년제 학부 과정의 차 학과 개설은 서원대(2006년 개설)에 이어 두 번째. 독실한 불자이자 80년대부터 차와 인연을 맺어 온 차인인 김 이사장이 차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최근 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감에 따라 학과 개설은 ‘시대적 요청’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였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기업 등과 연계 전문성 강화
국가 인증 자격증 취득도 추진

“처음에는 교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차에 대해 4년씩이나 배울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차인들은 ‘평생 배워도 차를 다 못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차문화가 일부 애호가들을 위한 교양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차도 학문적 토대를 닦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학과 커리큘럼과 운영 방안을 고민하던 김 이사장은 초의학술재단 이사장인 용운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용운 스님은 차문화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차의 대중화와 산업화 · 학문 정립을 꼽고, 대학에서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차의 품종을 개량하고 제다 기술을 발전시키며, 차의 품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신대 차학과의 커리큘럼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전문 교육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인턴 교육, 영농조합 지리산명차원에서의 제다 실습, 동신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의 협력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 내에 차 품질평가실과 다예실, 묘포장 등을 지어 실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기준에 맞는 다예사, 제다사, 품질평가사 국가 인증 자격증 취득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의 포부는 단지 학부 과정의 차 학과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일반대학원 내에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향후 ‘차 대학’까지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동신대학교내 다례실습실 모습.

“차 학문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열정과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앞으로 차라고 하면 동신대를 떠올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차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주=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학과 현황

차 학과 현황		
구분	개설 학과	비고
학부	서원대 차학과	4년제
	동신대 차학과	4년제
	원광디지털대학 차문화경영학과	사이버대학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2년제
	마산대학 국제소믈리에학과	2년제
석사과정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목포대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소수인의 기호식품’으로 취급받던 ‘차’가 학문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그간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이나 사회교육원 등에 석사 과정을 운영하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서경대와 동신대 등이 4년제 학부 과정의 차 학과를 개설했다. 학부과정 개설은 차가 엄연한 ‘학문’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차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9개 대학에 학생 1000여 명
더 많은 대학서 ‘개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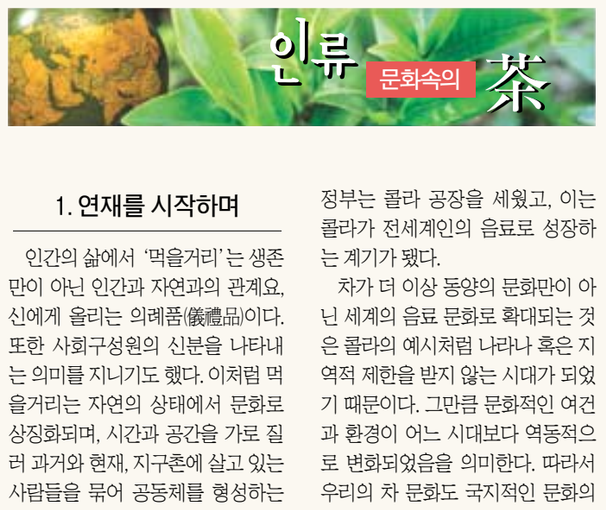
현재 국내 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9곳.(아래 표 참조) 재학 중인 학생만도 1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원광디지털대 차문화경영학과는 매년 2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학생 수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차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이를 학문으로 승화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차 학과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서원대와 동신대는 현재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동신대는 7월 22일까지(061-330-3333), 서원대는 7월 2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043) 299-8471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 연재를 시작하며

인간의 삶에서 ‘먹을거리’는 생존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요, 신에게 올리는 의례품(儀禮品)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이처럼 먹을거리는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로 상징화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 질러 과거와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인종과 다른 언어를 가진 각각의 민족이나 사회집단은 그들의 생각과 풍토성에 어울리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차 또한 각 민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로, 인류 역사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차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만드는 법의 변천에 따라 음용 방법도 달라졌으며 차와 관련된 다기의 발전과 함께 독특한 문화로 형성됐다. 한편 선종(禪宗)과 융합된 차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신적 가치를 지닌 음료로 발전했으며 귀족의 음료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에 유입된 중국의 차 문화는 민족성과 기후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차 문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일본은 ‘다도(茶道)’라는 정형화된 차 문화를 이룩했고, 이는 정치적 상황을 가장 적절히 변혁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일찍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에 전해진 차는 17세기에 기호식품으로 유입되었다. 초창기 영국에서 차는 궁정과 신사계층(紳士階層) 사이에서 즐겨 마시는 사치품이었다.

영국인들은 커피에서 차로 음료를 바꾸면서 홍차문화라는 거대한 음료문화를 이룩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호식품은 일종의 사치품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회성을 가지며 개인과 사회에서 다른 색깔의 문화를 형성한다.

콜라의 예를 들어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한 장교는 ‘코카콜라를 마시기 위해 싸운다’는 병사의 말을 듣고 정부에 콜라를 대량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콜라 공장을 세웠고, 이는 콜라가 전세계인의 음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차가 더 이상 동양의 문화만이 아닌 세계의 음료 문화로 확대되는 것은 콜라의 예시처럼 나라나 혹은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화적인 여건과 환경이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차 문화도 국지적인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로 발돋움해야 한다.

오늘날 차는 웰빙 식품으로 대중과 많이 친숙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차는 곧 다례(茶禮)’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차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가’ ‘다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한다.

차를 마시며 느끼는 한가로움, 가슴 설레는 차 향기 등은 차가 인간에게 주는 덕성(德性)이며 이상(理想)이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차는 음료 · 수행 · 사교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 경제적 가변성을 가지고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제한 벗어나 인류 문화로 확대돼야

필자는 시대에 따라 국가와 민족마다 다르게 이용되고 변화되어온 차 문화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차에 대한 접근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동반됐다.

앞으로 ‘인류 문화 속에 차’에서는 차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시 · 공간을 가로질러 과거와 현재의 인간관계 속에서 차의 의미와 상징성을 정치 ·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창숙씨는?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에서 석사(예절다도학)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중국 사천(四川)연구회원, 성신여대 문화산업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차 생리활성에 관한 종합적 고찰’ 등이 있다.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애들아, 하루 2시간만 TV 보자”

여름방학 TV · 인터넷 사용 지도 이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이면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부모 사이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인터넷만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잔소리도 한두 번. 우리 아이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텔레비전 바로보기와 인터넷 바로하기>를 펴내는 등 미디어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보리(대표 김재일)의 도움말로 올바른 TV · 인터넷 사용 지도법을 알아본다.



사단법인 ‘보리’가 펴낸 TV · 인터넷 사용 가이드북.

▷ 계획 잘 지킬 땐 선물 주기

아이와 함께 매일 TV를 시청하는 총 시간을 미리 짜 본다. 전문가들은 TV 시청이 비디오 감상을 포함해 하루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한다. 신문에 실리는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몇 시까지 시청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계획표를 잘 지키면 학용품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획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TV를 본다면 무조건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리모컨을 없애거나 TV 커버를 씌워 TV를 보고 싶은 욕구를 참도록 유도한다.

인터넷의 경우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해둔다.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사용 시간을 결정한다. 방학 중에는 하루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시간제한을 둔 경우 15분 정도 전에 예고를 해 아이 스스로 컴퓨터를 끌 수 있도록 한다. 자명종을 이용해도 좋다.

가능한 인터넷 사용은 가족이 함께 있는 저녁 시간대로 유도하고 인터넷을 하다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아이와 함께 TV 보기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미리 부모가 시청해 평가를 해본다.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준다. 또한 자녀와 함께 TV를 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시청을 유도한다. TV나 컴퓨터를 거실같이 개방된 공간에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부모 습관부터 먼저 고쳐야

엄마는 저녁마다 드라마에 빠져 있고 아빠는 휴일 내내 TV 앞에만 붙어 있는데, 자녀 시청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부모가 먼저 시청할 프로그램을 엄선하고 시청시간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 습관을 닮아간다. 식사 중이나 가족 간의 대화중에 무심코 TV를 켜두는 습관도 고친다.

텔레비전 시청일지

년 월 일(요일)
시청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분)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어디서 누구랑 보았나요?
이 프로그램을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무엇을 했나요?
이 프로그램을 본 후에는 무엇을 했나요?
내용 형식
드라마 만화 쇼 다큐멘터리 기타( )
함께 본 광고는?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의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사용일지

년 월 일(요일)
인터넷 사용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분)
정보검색(분)/메일(분)/채팅(분)/게임(분)
어디서 인터넷을 했나요?
인터넷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나요?
인터넷을 한 후에는 무엇을 했나요?
오늘 다녀온 사이트 이름과 주소는 무엇인가요?
오늘 다녀온 사이트는 어땠나요?
오늘 채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채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느낌은 어땠나요?
주고받은 메일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한 게임 제목은 무엇인가요?
게임을 한 뒤 느낀 좋은 점 ·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와 함께 시청시간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 볼 것인지 계획 짜야 시청일기·웹 사용일지 기록 후 일주일 단위로 부모와 평가를

▷ 시청일기 쓰기

텔레비전을 본 후에는 매일의 시청일기를 써 보도록 한다. 그날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느낌, 누구와 함께 보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 같은지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부모와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청일기를 쓰다 보면 자녀 스스로 부적합한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는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TV 보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인터넷 사용일지에는 정보검색과 채팅 · 게임은 각각 어느 정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등을 기록한다.

▷ 컴퓨터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린이들의 컴퓨터 사용은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해 생활 계획표를 짜 보거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가족이 함께 할 일 찾기

TV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 둘러 앉아 책을 읽거나 공통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대안활동을 하게 한다.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6>

메밀수제비와 메밀묵무침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냉면이나 팥빙수 등 시원한 음식이겠지요? 하지만 비 오는 여름날에는 수제비나 부침개 같은 따끈한 음식이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여름이면 태풍이 두 세 차례 꼭 지나가게 마련이지요. 태풍이 물러가고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사찰에서 비 내리는 모습을 보던 것이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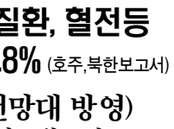
요사채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던 노스님은 “여름엔 비가 와서 나빠. 비란 것이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꼭 추석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태풍과 함께 찾아와 피해를 준단 말이야”하며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쌀이며 과일은 망쳐 놓거나 명절 앞두고 이재민이 생기는 것이 걱정되셨나 봅니다.

노스님은 예불을 올릴 때 마다 나라의 안정을 먼저 기원하시는 발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제 귀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 그 뒤에서 절을 올립니다. 이것이 어릴 적 제 나름의 기도방법이었지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집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멍하니 옛 추억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점심 공양시간이 되어갑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따끈한 수제비로 점심 공양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드는 법



<메밀수제비> 재료: 메밀가루 1컵, 우리밀가루 1컵, 애호박 1/2개, 양파 1/2개,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새송이버섯 3개, 국물(채수 6컵, 국간장 2큰술, 죽염 약간, 표고버섯가루 약간)

①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고루 섞어 수제비 반죽을 한 후 비닐에 넣어 숙성시킨다. ②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새송이버섯은 한 입 크기로 잘라준다. ③ 양파는 채 썰고, 청 · 홍고추는 어슷 썰어 씨를 제거한다. ④ 채수가 끓으면 수제비 반죽을 떼어 넣고 반죽이 떠오를 때 야채를 넣고 끓인다. ⑤ 죽염으로 간을 한 후 한소끔 더 끓여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낸다.



<메밀묵 무침> 재료: 메밀묵 1모, 김치 1줌, 오이 1/2개 양념장(고추장 1작은술, 다진 대파 약간, 참기름 약간, 설탕 약간, 죽염 약간, 통깨 약간)

① 메밀묵은 채 썰어 죽염으로 살짝 간을 한다. ② 김치는 송송 썰어 양념장에 버무린다. ③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한다. ④ 접시에 메밀묵을 먼저 담고 양념 김치를 올려준 후 오이채를 고명으로 올려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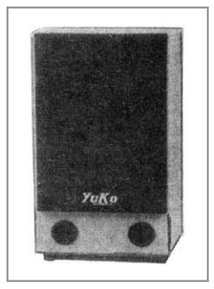
▶다음 주에는 애호박 냉국과 무 지지미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 일 명 상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만성 두통, 견항통, 오십견, 구완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 피부병, 좌골신경통(디스크), 풍치, 무릅관절통, 손, 발목관절통
비결침술로 1회 - 6회만에 완치시키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 수 있다.
※ 선착순 10명 숙식제공함
● 일시 : 7월 22일 오후 5시 - 7월 23일 까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 016-552-2159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내용은 불교적, 선율은 대중적

찬불가수 이진호씨 '야소다라' 이름으로 첫 음반



기타 · 베이스 연주 등도 하지만 이진호씨는 작곡과 보컬이 전문인 싱어송 라이터다.

"어느 날 큰 종교매장 한 곳에 가봤어요. 종교음반이 200~300개 정도 있었는데 불교음반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에요. 그곳만 그럴수도 있겠지만 충격이었죠. 불교 안에서 찬불가가 많이 불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종교에 비해 찬불가수들의 활동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부처님 말씀을 노래해야겠다 생각했죠."

비만클리닉 원장, 내과 의사 그리고 싱어송 라이터 이진호씨(33)가 '야소다라'라는 이름으로 7월 13일 첫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섰다.

"불교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진리인데 젊은 층이 겉모습만 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불교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첫 앨범 'Screaming Buddha 붓다를 외치다'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7곡. 5곡의 노래와 2곡의 반주곡이 담겼다. 이진호씨는 "포교라는 것이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을 때 이런게 불교적인 진리구나 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사를 했다"고 말한다.

이번 출시 음반은 록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업했다. 록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음악을 크로스오버한 것도 특징이다. 불교적인 가사 내용도 많지만 종교색을 많이 걷어내고 작업했다.

"음반 작업을 같이하던 음악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종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보니까 가사가 좋다고 불교가 이런거냐 물으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불교공부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록 등 다양한 장르 접목
'보왕삼매론' 재즈풍 노래로
인터넷사이트에 수록 예정

서울 화계사 신도인 이진호씨는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에 관심이 많다. "사랑 노래는 많으니까 좋아하는 불교와 명상에 대해 가사에 담고 싶었다"는 그는 "이번에 발표한 '보왕삼매론'은 워낙 글이 좋아서 노래로 다듬기만 했을 뿐인데 불교경전에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음악은 내가 다른이에게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다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 혼자만 즐기지 말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음악을 하게 됐다"는 이진호씨. 지난해 여름부터 음반을 기획하고 노래를 만들었다. 최근 음반사 락슈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10년 전 홍대 인디밴드 '야소다라'로 음악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밴드 이름이 너무 애착이 가서 다시 '야소다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디밴드 활동 이후 다시 음악을 시작하기까지 방황도 많이 했다. 대학시절 불서를 처음 접했다.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느낌을 받았다. 불교에 빠져들어 참선과 명상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신적 안식처를 찾아 명상을 배우러 인도에도 다녀왔다. 산사를 다니며 스님들을 찾아 말씀을 구하기도 했다. 위빠사나 호흡명상, 탄트라 명상 등 여러 명상들을 체험하며 나만의 수행법을 찾아갔다.

이러한 그의 구도행각은 타이틀 곡 '구도심'에 절절하게 표현돼 있다. "현실생활을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내 체험이 담겨 있는 노래"여서 '구도심'에 더욱 애착이 간다.

'Screaming Buddha 붓다를 외치다'는 음반 매장과 멜론 벅스 싸이월드 등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진호씨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기독교 찬송음악인 CCM처럼 BM(불교음악) PBM(대중불교음악) 등의 코너를 만들어 불교음악들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원을 밝힌다.

"좋은 불교음악이 있으면 발굴도 하고 가요리믹스 앨범도 만들고 싶어요. 불교에는 가사로 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성제' '육바라밀' 등도 음악으로 작업중입니다. 만든 노래 중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좀 적어 보이는 노래들은 일반 대중가요 음반도 발표할 생각입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는 서울 뮤지컬단의 주역배우 '이경준'(김현 역) '이연경'(호녀 역)이 맡아 열연한다.

'천번의 인연, 기적 같은 만남'

삼국유사 속 호랑이 처녀이야기 뮤지컬로 '키스 미 타이거'

일연 스님 탄생 800주기를 맞은 뜻깊은 올해 <삼국유사> 속 호랑이 처녀와 인간 총각의 사랑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줄거리는 이렇다. 성원사에는 스님들의 일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김현이 살고 있다. 소심한 그는 마을 총각들에게 따돌림당하며 외톨박이로 살아간다.

어느날 성원사 마니(악을 제거하고 탁수(濁水)를 맑게 하고 염화(炎禍)를 없애는 공덕이 있다는 보주(寶珠))를 훔치러 담을 넘은 호녀(虎女)를 우연히 도와주는 김현. 비슷한 점이 많은 호녀와 김현은 친구가 된다. 호녀는 낮에는 호랑이로 밤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마니를 훔친 죄로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는 벌을 받은 호녀. 사랑에 빠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송산야화, 그 두 번째 이야기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Kiss Me, Tiger)!'가 7월 18~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서울시뮤지컬단(단장 유희성)의 2006 정기공연인 '키스 미 타이거'는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한 작품이다. 연출가 장유정씨와 작곡가 김혜성씨는 '송산야화' 초연 당시 '호랑이 처녀 바람났네'를 시작으로 2002, 2003년 '송산야화'로 공연된 작품을 2006년 '송산야화 그 두 번째 이야기 키스 미 타이거'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천 번의 인연, 기적 같은 만남, 천생연분 로맨틱 뮤지컬'을 표방하고 있는 '키스 미 타이거'는 삼국유사 가운데 '김현 감호설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적 해학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 속에 코믹함으로 승화된다. 영원한 삶의 화두 '사랑'이야기가 하늘이 맺어준 천 번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변신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만나게 될 그 누군가까지 모두가 인연에서 비롯된다. '키스 미 타이거'는 현대 남녀의 사랑과 옛날 옛적 연인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인연을 따라가는 액자식 구조의 이야기 방식으로 '인연'과 '천생연분'을 이야기한다.



트로트와 재즈, 비트박스, 힙합 그리고 해금까지 현대와 전통의 조화는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연출가 장유정씨는 "'키스 미 타이거'는 사극 코미디를 지향한다"며 "옛 것을 세련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한 만큼 옛 사람의 여백과 느림 조차 현대적 속도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키스 미 타이거'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지지 않는 길을 돌고 돌아 우리 다시 만납니다." (02)399-1114

강지연 기자

'동백림 3인' 거장을 만나다

1967년 7월 8일, '동백림 사건'이 발표돼 지식인 예술인들이 간첩으로 몰렸다. 39년이 지난 오늘 동백림에 연루됐던 화가 이응노, 음악가 윤이상, 시인 천상병 등 위대한 예술가들을 기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7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동백림 3인의 거장-이응노 · 윤이상 · 천상병을 기리며'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응노 화백의 작품 전시, 윤이상 선생의 곡 연주, 천상병 시인의 시 낭독 등이 이어진다. 이제 이 땅에는 없는 떠나간 3인의 예술가를 서대문형무소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만나보자.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김용태),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국회 동북아연구회 등이 공동주최 한다.(02)723-0364 강지연 기자



윤이상



천상병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옥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87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19일(음력 6월 24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불 밝혀야!

칠석과 백종에 대해서

문 선원에 와서 법당에 삼 배를 드리고 도량 탑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탑돌이를 할 때마다 문득문득 스님께서 마음으로 새겨 놓으신 "칠성불은 만중생의 불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 주시고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그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 하신 그 뜻이 과연 뭘까 하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칠석과 백종을 해마다 지내듯이 끊임없이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라고 하신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또 칠석과 백종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내야 저 자신과 조상님들의 마음을 밝혀서 벗어날 수 있을지요?

답 칠석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또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칠석이다 하면 칠(七)은 우리 몸 자체와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듯이, 즉 말하자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같이 엮어서 마음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저녁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면 칠석(七夕)이 칠성(七星)이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견우와 직녀도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 초, 하루를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 년이면 거기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여기서 지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어 놔도 해당이 되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년, 하루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四生)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모든 만물만생이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될 수가 없고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칠성 부처님이 명을, 또는 생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七夕)날은 칠성(七星)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종에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목련 존자를 비유해 놨을까요? 목련 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옥문을 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부처님한테 구하니 다시 정진하라고

칠석날은 칠성이 되기를 원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나 갖다 놓고 영령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힘을 빌려서 한다 하면은 스님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상대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건져지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둘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되는 줄 아는데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과 둘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항상 부모와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빛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을 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넣는다면 둘로 봐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모들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터져서, 삽시간에 물리가 터져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칠석이 그런 마음의 도리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거니와 조상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데도, 아까 견우와 직녀 얘기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다 견우와 직녀예요. 딴 데,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고,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연이 많다지만, 그 만남도 즐겁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속에서도 벗어나게.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님이 없이 그냥 훌렁 벗어나게끔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 버렸다. 공했으면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법인지요?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불교에 관심 많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염불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지계 하고 염불 하면 극락왕생의 품위가 높아지고 청정한 극락세계에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참모습, 진짜 모습을 보려면 염불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정법은 그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수행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운바가 부족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불교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정법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자가 돼서 불자 노릇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불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쇠퇴해져 있어요. 옛날 부처님 당시, 유마힐 거사가 있던 당시, 또 조사들이 있었던 당시, 달마 대사나 혜가 스님 모두 이런 분들이 있던 당시에는 절대로 기강이 죽질 않고 쇠퇴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말 한마디가 한데 떨어지게 한다면 부처님의 제자로도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마음속에 수레가 있다면, 이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라면 반드시 그 수레에 한 바퀴 돌려서 책정을 해서 말이 나와야 그게 정법인 겁니다. 그 수레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은 사사로운 삿된 말로 취급을 하죠. 그렇게 연결이 되질 않고요, 또. 그 수레바퀴에 한번 돌려서 나온다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이 된 그 자체가 바로 수레거든요, 수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수레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 통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돌에 올려놔도 산다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송장 남겨 두고선 모두들 그 송장을 보고 울고 그럴 때에 자기가 자기 송장을 내려다보고 '참, 저렇게 껍데기인 것을 보고 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씁쓰름하게 돌아서는 그것을 죽어서만이 알아서는 안 되죠. 살아서 알아야 돼요. 살아서 알고 살아서 터득을 해야지 그게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덕이 없다 하는데, 그것은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한마음이 돼야 공덕이 되는 거지, 공심과 공용과 그 모두가 한데 합쳐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공심으로 화하지, 만약에 이게 자기 개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서 돌아간다면 이건 공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천지가 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건 모두가 착입니다.

예전엔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쓰나요?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의 백지의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글씨 써 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글씨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레를 거쳐서 한번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치라야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안에서 돌아가는 그 공한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념무상 하면 되나요?

문 가장으로서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저 그냥 무념무상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과연 무념무상은, 예를 들어 원초적인 원자도 아닌, 그러나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무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자재인가요? 쉽게 잘 설명해 주세요.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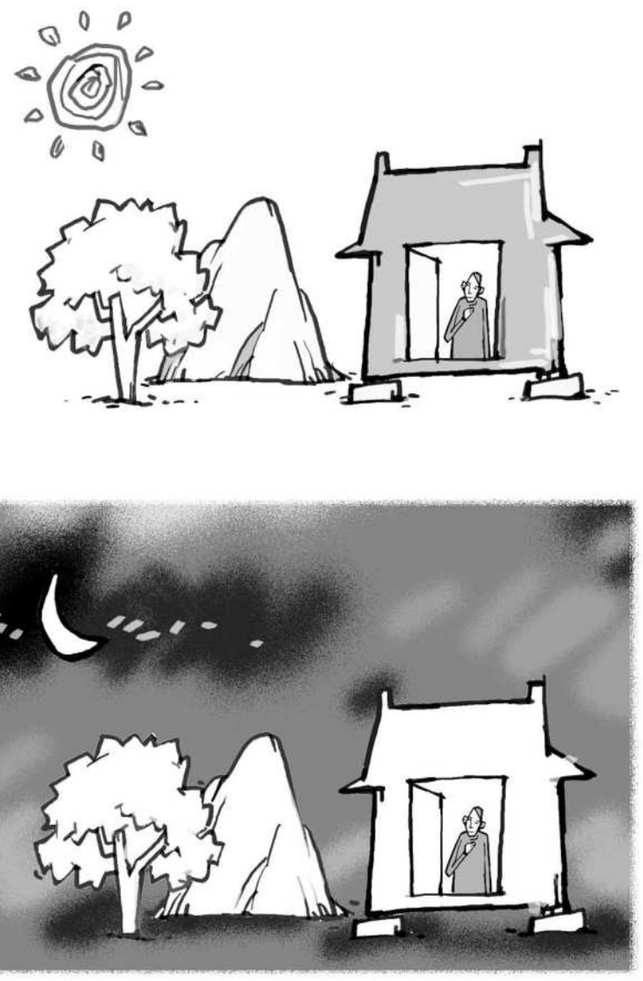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생각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함이 없는 줄 알아라 이거예요. 댁의 육체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했지 왜 당신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공(空)했는데. 그렇죠? 그럼 공체(共體)로서 공심(共心)으로서 생각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각한다' 이런 마음 자체를 떼라 이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공 생각을 한 거죠. 공심으로서 한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이런 이유가 붙을 자리가 못 되죠. 그러니깐 여러분한테 사랑을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무슨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함이 없이 하라.

이 말을 해야 되겠군요.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선뜻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네가 혼자 공부하러 가겠다면 네 몸 속에 있는 생명들 다 내놓고, 옷도 벗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땅도 딛지 말고, 모든 걸 너 혼자 한다니까 다 내놓고 너 혼자 해 봐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끝에 고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하! 내 몸뚱이도 그렇고 모두 일체가 둘이 아니게 같이 더불어 사는구나!" 하고선 "지겨워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그고 그가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듯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써 자기가 지어서 업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착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악행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뛰어넘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말이에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혼자 살아야 그게 되는 거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물을 마셨다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렇게 이유가 붙습니까?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共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터득하고 어디다가도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어디다가도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가져라. 이런다면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비죠.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연구해서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도, 하다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겁

☞30면으로 계속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

☞29면에서 계속

니다. 물 한 방울조차 돼 봤던 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에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솟아오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천차만별의 이름들을,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서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 그 마음 하나에서 다 천차만별의 가지가 가지가지마다 거기에서 풀리고 나온다.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남들이 다 알게 하는 그 어떤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서 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정수에 컴퓨터로, 자동적인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든지 능히 주어지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마음대로 넘어서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도 알아야 된다. 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깊은 물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우주법계를 돌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거를 그냥 굴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모두가 전체, 바로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합류돼서 돌아간다는 수레와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 넘어서서 산다 이런다면 우리가 정신이 아니라면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 언덕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툰다.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생활을 한다. 걸어오는 발자취가 앞으로 걷지 않았으니깐 없고 뒤는 자꾸 가니깐 없고, 현재에도 공해서 떠벅떠벅 떼어 놓고 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은 아주 족한 것을….'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고 또 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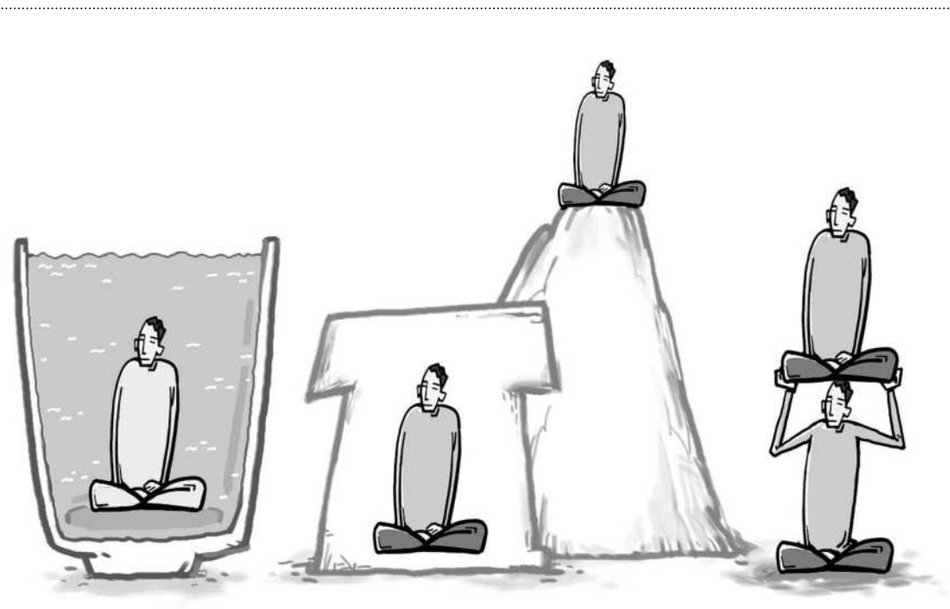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모와 일체 제불과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문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때 위파사나(바라보기 명상)를 하였는데 그때의 방법은 주로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식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마음과 바라보는 주체자(나의 느낌)를 바라보며 그 모두를 인식하는 인식자를 찾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인식하는 주체자 또한 다른 생각과 같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후의 인식자가 본래의 나이며, 본래의 나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시간과 공간 이전)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관념의 허위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기에 그냥 관념의 허구성을 바라보며 살 뿐입니다. 스님, 제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답 부처님께서도 '수행은 내 몸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거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아무리 수행을 해도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깐 놈의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아 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 없습니다.

무(無)자 화두를 가졌다, 또 '이 뭣고?' 화두를 가졌다. 어떤 화두를 가졌든지 간에 그 화두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낸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 바탕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화두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바로 들이대라. 이것이 근본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지낼 때 위패 놓는 거와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또 부처님을 조성해 놨을 때에는 바로 저 부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요, 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셔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두든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벌써 화두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화두로 정해졌는데 바깥에 또 화두를 쥐고 있으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 봅시다. 모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쪽쪽 빠집니다. 그런데 기계 한 귀퉁이가 고장이 나 가지고선 만약에 막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생활도 바로 놓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을, 밀려서 부닥치고 부닥치면서 사람이 고를 겪고 그러지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서 자업자득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죽고 사는 게 없고 또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며 우리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부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씨들도 자기 자석에 의해서, 그 자석의 위력에 의해서 딴 데로 새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 허수아비 같은 육신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법입니다. 육신은 개방시키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자석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것을 고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놓고 참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것도 참선이요, 말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참선입니다. 만약에 그 근본을, 그렇게 돼 있는 근본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자재할 수 있죠. 놓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싸움을 했다고 일 년 이 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한계가 있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한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가 2006년 7월호부터
월간지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ww.buddhistculture.co.kr

구독 문의 : 월간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02-706-1570, 1571 / 1년 구독료 : 30,000원(12권)

9증 9포 (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 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전화문의 환영

KBS 뉴스 - 홍삼, 두뇌 발달 효과 방영
KBS 뉴스투데이 - 인삼에 항암물질 방영
조선일보 - 홍삼, 고혈압 환자 혈압저하 효과 확인 보도

◎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 황토/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 자연상태에서 건조
◎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전원 송료 무료 판매"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 약왕사 ☎ 054)371-6665, 010-2513-6665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별난 수행 (하)

송화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그림 · 문병성

어머닌 늘 걱정을 하셨다. "너 고기 잘 먹는 남자 만나면 너 같이 고기 음식하기 싫어하고 냄새도 싫어하면 쫓겨나. 시집어른들께도 그렇게 성질낼래?" "난 내가 안 먹으니까 고기 음식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 먹으라지 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장담을 했었는데…. 난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위해 갈비탕도 끓이고 갈비찜도 만든다. 냄새가 그렇게 예전처럼 날 힘들게 하지만…. 맛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은 다 하고 있다. 친정어머니껜 죄송함이 앞선다. 친정식구들에게 한 번도 해드리지 않고, 그렇게 성질내던 일이 너무도 부끄러워진다.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남편을 부처님같이 그리고 시어른들을 부처님같이 대하라고. 그러나 부처님께도 가끔 화를 내고 섭섭해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원치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땐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 평범한 진리가 너무도 어려운 건 무슨 이유일까?

나는 내가 참 복 많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에겐 좋은 스승들이 계시고, 나의 직업은 세상 속에서 복을 짓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이다.

내 직장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은 삼라만상과의 만남과 함께 나의 아상으로 극락과 지옥을 넘나드는 특별함이 있다. 인생의 대 선배인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를 열고,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어르신들과 보내면서 나는 자주, 아니 매순간 부처님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복덕을 쌓을 좋은 기회를 매순간 만나며, 매순간 악업을 쌓을 순간과 대면하게 된다.

손이 차다며 익모초를 길러다 주시는 약수여래 같은 어르신도 계시고,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는 어르신 때문에 어리석은 내 모습을 깨닫기도 하고, 육체의 나약함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투병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어르신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나는 좋은 스승과 자주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 삶의 색다른 기쁨이 있다. 좋은 스승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귀감이 되는 스승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도 스승임에 틀림없다.

센터 회원어르신은 총 3만 명, 매일 오시는 300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분들은 모두 내 스승이다.

원치 않아도 해야할 일은 마음 비워야 어르신들 부처님으로 여기며 정진할 것

매일 많은 사람과 만나다보니 나도 모르게 구업을 자주 짓게 된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 한다면서 혹여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 받지 않았나?' 반성하고 살다가도 찰나를 놓치는 혀끝과 우매한 판단으로 구업은 쌓여간다.

그럴때마다 하루에 한번은 천수경을 읽으라던 성진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과 만나서 말을 하다보면 구업을 많이 짓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남 탓하게 된다"는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늘 나의 철없음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외할머니의 "세치 혀로 짓는 악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 늘 말을 조심해라, 화진아!"라는 말씀도 떠오른다. 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실천은 쉽지가 않다.

난 잠들기 전 짧은 성찰의 시간을 만든다. "좋은 사람의 좋은 면은 닮아가고 남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나를 점검하는 수행의 한 조각은 이렇게 하루하루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

2003년인 것 같다.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나의 일상 속에는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너무도 무례한 억지를 쓰는 어르신도 계시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잇속만을 생각하는 어르신도 계신다.

그리고 이유 없이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자주 생긴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지쳐가는 나의 생활에 큰 성찰의 울림이 있었다. 직원교육시간에 당시 조계사 주지이시고 지금은 불광사 회주로 계시는 지홍 스님의 말씀은 날 바로 서게 했다.

"하루 3000명의 어르신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몇 분의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십니까? 하루에 3000배 절 수행을 못해도 여러분은 그 이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오시는 어르신 3000분께 웃으며 인사 올리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끝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얄미운 어르신께 마음이 나지 않더라도 웃으며 인사 한번 해 보십시오. 작정을 하고 몇 번만 해 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리도 얄미운지. 그 어르신의 행동이 내속에 숨어 있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치부랑 너무도 닮아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이 서 있는 이 곳, 이 순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세요. 수처작주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매일 같이 2000명의 어르신들께 식권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1000분의 어르신께 정말 마음을 다해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서 오세요!"라며.

한 달을 작정해서 복도를 지나다니면서도 인사를 하고 나니 점점 짜증과 육체적인 피로가 덜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생인 까닭에 또 다시 원망과 미움과 투정의 씨앗을 떨쳐 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나의 스승과 반면교사를 만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나에겐 네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할머니, 철없는 나를 위해 늘 기도가 생활이 된 외할머니. 그리고 올해 백세가 되신 우리 시할머니와 아흔 다섯이 되신 시외할머니 이렇게 네 분의 할머니가 나의 곁에 계신다. 나의 복 짓는 복지사일은 네 분의 할머니의 응원과 애정 속에서 에너지를 발한다.

나는 어르신이 좋다. 애정과 고민을 던져주시는 네 분의 할머니가 사랑스럽다. 나도 사랑받는 어르신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난 꿈을 꾼다.

어르신들의 꿈과 마음을 헤아리는 문수보살 같은 지혜와, 관세음보살 같은 따뜻함을 지닐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또 센터의 어르신들이 가지신 문수보살과 같은 지혜를 전수 받고, 그 분들을 부처님같이 대할 수 있도록 수행하겠다고.

가끔은 어르신께 화도 내고 부족한 능력에 힘겨워도 하겠지만, 마음자리 찾는 이 불교공부를 늦추지 않고 내 생활 속의 3만 명의 부처님을 만나 뵈면서 이 부족함을 채우고 반성해 나갈 것이다. 3만 명의 스승들과 매일 3000분의 부처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윤회의 바퀴에서 해탈할 수 있는 작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오늘도 난 서울노인복지센터라는 수행처로 새로운 부처님과 보살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별난 데이트를 한다. 내 마음 속 부처를 찾기 위해….(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 구 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청량사는 기암괴석으로 어루어진 12개 봉우리로 구성된 청량산을 등에 업고 첩첩산중의 경사지에 자리잡았다. 청량산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깊기로는 설악이나 지리산에 버금간다.

암자 27개소 이르렀을 정도로 융성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가락[伽倻]의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본류는 태백의 함백산(1573m)에서 발원하여 봉화-상주-성주-대구-밀양-김해 등 영남의 너른 들을 적시며 을숙도를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낙동강을 아홉구비로 나누어 흔히 구곡장류(九曲腸流)라 하는데, 구비를 돌 때마다 지방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다. 발원지인 태백과 안동댐을 잇는 두번째 구간이 명호강이다. 봉화 청량산이 바로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있다.

청량산은 태백산 훨씬 위쪽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내려온 낙동정맥의 식솔이다. 장군봉(1137m)과 일월산(1218m) 사이에서 갈려져 나온 덕산지맥이 서쪽으로 내달리다가 낙동강 강줄기 앞에서 우뚝 멈춘 산이다. 청량산은 해발 870m로, 산간오지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깊기로는 설악이나 지리산에 버금간다.

청량사가 청량산에 깃든 것은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삼국통일 직후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 하던 무렵이었다. 원효가 이 산에 들어와 처음 지은 초막자리가 지금의 응진전 자리라고 전해진다. 원효 이후 크고 작은 암자들이 골골이 들어섰는데, 한때는 암자가 27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량사로 가자면 명호강을 건너야 한다. 명호강에는 1,2급수 어종이 주종을 이룬다. 이곳의 은어를 특별히 '육봉은어'라고 부른다. 은어는 원래 강과 바다를 드나드는 회유성 어류이지만, 이곳의 은어는 안동댐 때문에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눌러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3대 기악(奇嶽) 중 하나

광석나루는 명호강을 건너 청량사로 들어가는 무드리나루이다. 광석다리를 건너면 청량산 도립공원 표석이 서 있고, 표석 뒤에 퇴계 이황이 지은 청량산가(淸凉山歌)가 조각되어 있다.

도립공원 매표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청량천 맑은 물이 내려온다. 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곳곳에 소와 작은 폭포들이 있어서 버들치와 갈겨니 등 계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물까마귀와 해오라기 등이 이들을 노리며 청량천을 오르내리고 있다.

입석에서 등산로를 따라 청량사에 이르는 구간에는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생강나무, 쪽동백, 당단풍과 같은 목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응진전 주변에는 굴참나무 군락도 나타나고 있다.

산길을 걷다보면 숲 그늘 사이로 청량산의 봉우리들이 얼핏 보인다. 청량산은 청송 주왕산, 영암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악(奇嶽)의 하나로 꼽힌다. 청량산의 아름다움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12개 봉우리들이 만들어낸다.

입석에서 청량사에 이르는 등산로는 금탑봉의 허리를 두른 산길이다. 등산로 곳곳에 노출된 절벽단애들은 거의가 역암(礫岩) 지질을 보여주고 있다. 역암은 청량산 일대가 먼 과거 어느 때 강이나 호수의 바닥이었음을 말해준다.

청량사에 당도하기 전에 퇴계 이황의 유적인 청량정사를 먼저 만난다. 일명 오산당(吾山堂)이라고도 부르는 지금의 청량정사는 퇴계 사후 순조 연간에 유림들이 지은 건물이다.

청량정사 삼거리에서 금탑봉 허리를 돌아 응진전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나 있다. 청량산은 행정상으로 영남에 속하고, 위도상으로도 남부에 속하지만, 태백산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북방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방계 특성에 4백여종 곤충상 보여

곤충상으로는 딱정벌레목 124종, 나비목 99종, 잠자리목 16종, 메두기목 26종, 노린재목 56종, 매미목 14종을 비롯해 4백여종이 보고되고 있다.

청량산의 나비 종류로는 왕자팔랑나비, 부처나비, 부처사촌나비, 은점표범나비, 도시처녀나비, 그늘나비, 애물결나비, 범부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응진전 가는 길 주변의 벼랑에 부처손과 연화바위솔 등이 곡예하듯이 붙어 있고, 담장 아래에는 야생 천마가 자라고 있다. 난초과에 속하는 천마는 주로 참나무 뿌리에 다른 버섯과 공생하여 자라는 반기생성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잎은 비늘잎처럼 생겼으며, 여름에 연노란색의 꽃이 총상(總狀) 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땅속의 덩이줄기는 감자를 닮았으며, 한방 약재로 귀하게 쓰인다. 천마는 재배하기가 까다로워 종 보존의 어려움이 있는 희귀식물이다.

청량산에서 발견되는 포유류는 12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등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이다. 또, 응진전 스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야생고양이와 삵이 교잡하여 낳은 새끼들이 절과 청량정사 주변에 나타난다고 한다.


청량사 삼각우송

김생굴(金生窟) 주변 절벽에 구실바위취가 군락으로 붙어 있다. 이곳의 구실바위취는 청량산의 식생이 북방계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구실바위취는 금강산, 설악산, 향로봉, 대관령 등 중부 이북 고산지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여, 구실바위취는 주로 습하고 응달진 바위에 붙어 자란다. 구실바위취는 청량사의 지표종으로 기억해둘 만하다.

김생굴에서 자소봉까지 등산로가 나 있다. 해발 840m인 자소봉은 청량산 육육봉(六六峰) 가운데 하나이다. 청량산을 따로 육육봉이라 이름 부르는 것은 정상인 장인봉을 비롯해 열두 봉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식 봉우리 이름 조선때 바뀌어

원래는 보살봉, 의상봉, 반야봉, 문수봉, 원효봉 등등 불교식 지명이었던 것을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유교식으로 개명한 것이라 한다. 그가 개명했다는 육육봉은 본래 중국의 주자가 복건성의 무이산(武夷山)에 정사를 짓고 구곡(九曲)과 서른 여섯 봉우리(육육봉)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데서 비롯된다.

청량사 큰 절은 첩첩산중의 경사지에 자리한 까닭으로 전통적 가람배치가 어렵다. 일일이 석축을 쌓아 흙을 채워서 평지를 마련하고서야 전각을 앉혔다. 청량사의 석축들은 모두 청량산에서 나는 역암이나 편마암 등으로 쌓여있다. 정 하나 대지 않았지만, 저들끼리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추어 능청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석단을 만들어냈다.

유리보전과 오층석탑 사이에 전설의 소나무와 삼각우총(三角牛塚)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청량사를 창건할 때, 어느 날 사하촌의 한 농부가 머리에 뿔이 셋 달린 소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소가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자 원효대사가 청량사로 끌고 왔다. 대사가 소를 절에 데리고 온 후로는 성질이 고분고분하여 힘든 불사를 저 혼자 해냈다.

그러나, 소는 불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지쳐서 그만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 대사는 소를 유리보전 앞마당에 묻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지가 셋인 소나무가 자라나 지금의 삼각우송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환경부서 생태탐방로 만들어

청량산의 새들은 활공할 공간이 넓기 때문인지, 주로 청량사 큰 절 주변에 모여 있다. 특히 층층이 쌓인 석축의 틈은 새들에게 좋은 석굴이 되고 있다. 심검당 석축 틈에는 박새가, 범종각 앞 석축 틈에는 흰배지빠귀가 둥지를 틀었다.

청량사 경내에서 관찰되는 초본으로는 기린초, 꽃마리, 노루발, 다화개별꽃, 달개비, 매발톱, 산박하, 산부추, 작약, 초롱꽃, 패랭이, 금낭화, 원추리, 수국, 매리골드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오랫동안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들빼기, 지칭개, 쓸바귀, 민들레, 환삼덩굴, 황새냉이, 명아주 등도 보인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청량산 일대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했다. 선정 이유는 낙동강과 청량산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다, 퇴계 이황 등 옛 문인들이 즐겨 기행문을 남긴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청량산 지역의 난개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제 13차 한국 茶문화 연수

한국의 茶聖초의선사께서 동다송을 저술하시고, 茶山, 秋史, 海居, 申櫶 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초의학술문화원(이사장 석용운스님)에서 차문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오는 7월 28(금)일부터 7월31일(월)까지 3박 4일간 열리게 될 이번 한국차문화연수는 열세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올해에는 초의선사의 탄생지였던 무안의 승달산 아래에서 조선시대 차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차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안에서 진행될 이번 연수는 다성 초의선사의 차정신과 얼을 계승하고 있는 (사)초의학술재단(이사장 석용운스님)에서 주관하며 무안군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차문화사와 초의선사의 행다법과 초의선사의 헌다의식과 무아차회 등을 통한 현장감 넘치는 실습과 함께 초의선사의 사상과 철학이 배여 있는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차문화를 배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차문화 발전에 공헌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초의 학술 문화원 이사장 석 용 운 합장

• 연락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전화 061)285-0302 / 팩스 061)285-0304

일자		시간	실시사항	비고
1일자	7월 28일 (금)	14:00 ~ 16:50	입 연 식	등록 · 공지사항, 반편성
		17:00 ~ 17:50	제 1 교 시	초의선사 헌다의식
		18:00 ~ 18:50	제 2 교 시	초의선사 헌다의식
		19:00 ~ 19:50	저 녁 식 사	발우공양
		20:00 ~ 20:50	만남의 시간	인사 · 전체모임 · 임원선출
		21:00 ~ 21:50	좌 선	참선자세와 수행법
		22:00 ~	취 침	
2일자	7월 29일 (토)	06:00 ~ 06:50	기 상	
		07:00 ~ 07:50	좌 선	참선
		08:00 ~ 08:50	아 침 식 사	발우공양
		09:00 ~ 09:50	제 1 교 시	조선의 차문화사
		10:00 ~ 10:50	제 2 교 시	조선의 차문화사
		11:00 ~ 11:50	제 3 교 시	특강 - 뿔리까르뽀신부님
		12:00 ~ 12:50	점 심 식 사	발우공양
		13:00 ~ 13:50	오 락 시 간	휴 식
		14:00 ~ 14:50	제 4 교 시	초의선사 행다법
		15:00 ~ 15:50	제 5 교 시	초의선사 행다법
		16:00 ~ 16:50	제 6 교 시	조선시대 차의 종류와 제다법
		17:00 ~ 17:50	제 7 교 시	조선시대 차의 종류와 제다법
		18:00 ~ 18:50	제 8 교 시	차의 품질평가
		19:00 ~ 19:50	저 녁 식 사	발우공양
		20:00 ~ 20:50	무 아 차 회	무아차회
		21:00 ~ 21:50	좌 선	야외참선
		22:00 ~	취 침	
3일자	7월 30일 (일)	06:00 ~ 06:50	기 상	
		07:00 ~ 07:50	좌 선	참 선
		08:00 ~ 08:50	아 침 식 사	발우공양
		09:00 ~ 09:50	제 1 교 시	한국의 다화
		10:00 ~ 10:50	제 2 교 시	한국의 다화
		11:00 ~ 11:50	제 3 교 시	조선의 다례복
		12:00 ~ 12:50	점 심 식 사	발우공양
		13:00 ~ 13:50	오 락 시 간	휴 식
		14:00 ~ 14:50	제 4 교 시	조선의 떡차 제다법
		15:00 ~ 15:50	제 5 교 시	조선의 떡차 제다법
		16:00 ~ 16:50	제 6 교 시	한국의 다식 종류와 만들기
		17:00 ~ 17:50	제 7 교 시	조선의 식생활과 차음식
		18:00 ~ 18:50	제 8 교 시	조선의 식생활과 차음식
		19:00 ~ 19:50	저 녁 식 사	발우공양
		20:00 ~ 20:50	분 과 토 론	주제 :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21:00 ~ 21:50	좌 선	참 선
		22:00 ~	취 침	
4일자	7월 31일 (월)	06:00 ~ 06:50	기 상	
		07:00 ~ 07:50	좌 선	참 선
		08:00 ~ 08:50	아 침 식 사	발우공양
		09:00 ~ 10:50	발 표	초의선사 행다법 발표 - 각반별
		11:00 ~ 11:50	수 료 식	수료증 교부
		12:00 ~ 12:50	점 심 식 사	발우공양
		13:00 ~	귀 가	개인출발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